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1. 중국관내 독립운동정당의 활동
2. 만주지역 독립군의 무장투쟁
3. 미주·일본지역의 독립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1. 중국관내 독립운동정당의 활동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중국관내 지역에는 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이념을 같이하는 인물들이 하나의 틀을 만들어 각각의 단체에 집결하였고, 그 이념에 따라 상황에 알맞은 활동방향을 찾아 나갔다. 그 단체들이 상황 전개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정당’ 조직체로 발전하여 갔다는 점이다.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1920년대만 하더라도 鐵血團・義勇團・義烈團・大韓愛國婦人會 등 임시정부 주변에 60여 개의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합집산해 나갔다. 그러한 단체들이 점차 정당이라는 형태로 변했고, 또 그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운영하거나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정당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은 임시정부를 수립하던 단계에서 이미 나타났다. 정부가 아니라 정당을 조직하고 그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치자는 주장이었는데, 결국 정부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 뒤 임시정부가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가치’를 해내지 못하고, 독립운동이 전반적으로 담보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유일당・좌우합작・민족협동전선・민족대당 등으로 불리던 유일당운동이 일어났고, 그 연장선에서 독립운동정당이 결성되었다. 이후 임시정부 주변에는 이와 친소관계를 달리하면서 여러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또 통합하거나 분리하면서 광복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을 펼치는 가장 중요한 단위조직체로 자리 잡았다.

## 1) 독립운동정당의 성립과 활동

### (1) 한국독립당

1926년부터 1929년까지 중국관내에서 유일당운동이 펼쳐졌다. 대독립당북경총성회를 출발점으로 하여 상해·광둥·무한·남경 등에서 유일당총성회가 결성되었고, 1927년 11월에는 이들 관내지역 유일당총성회 대표들이 상해에 모여 ‘한국독립당관내총성회연합회’를 결성함으로써 한 발자국 진전시켰다. 임시정부가 민족대당이 완성되면 최고의 권한을 모두 거기에 넘긴다는 내용이 든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국무위원 전원이 유일당운동에 참여하는 파격적인 자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1929년에 들어 분열의 기미를 보이다가, 결국 1929년 10월 26일에 좌파세력이 유일당상해총성회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留滬韓國獨立運動者同盟(滬; 상해의 별칭)을 결성하여 중국공산당과 연대투쟁을 벌이거나 그 범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은 일단 중단되고 말았다.

상해지역의 좌파세력이 이처럼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자, 임시정부 유지세력은 독자적인 방안을 찾았다. 그 결과 1930년 1월 25일에 임시정부 청사에서 韓國獨立黨이라는 정당체를 결성한 것이다.<sup>1)</sup> 유일당운동으로 추구된 단체가 정당이요 단일당이었지만, 좌파세력이 결별을 선언한 상태에서 임시정부를 유지할, 즉 이당치국의 존재로서 정당을 결성한 것이다.

이 한국독립당은 李東寧·安昌浩 등 임시정부 유지세력이 “종래의 지방적·파벌적 감정을 버리고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新旗幟下에 전선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뜻에서 결성되었다. 안창호는 이를 ‘대독립당’이라거나 ‘한국독립운동을 위한 최고기관’이라고 표현하였다.<sup>2)</sup>

한국독립당 결성의 주역은 이동녕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핵심세력과 홍사

1)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東京:原書房, 1967), 511쪽.

金正柱, 《朝鮮統治史料》10(東京:韓國史料研究所, 1975), 697쪽.

朝鮮總督府 高等法院檢事局 思想部, 《思想月報》3-11(1934), 16~17쪽.

2)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중국편(1976), 645쪽.

단의 안창호였다. 임시정부 핵심세력은 임시정부의 기능강화와 이에 따른 독립운동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했고, 안창호는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을 수립코자 했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어렵게 고수해 온 이동녕·金澈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간부들은 “과거 10여 년이란 역사를 가진 정부를 해산함은 불가하며, 설령 새로운 기관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보다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sup>3)</sup> 이러한 상반된 견해가 조정되어 한국독립당이 결성되었다. 따라서 한국독립당은 유일당운동이 결렬되면서 민족주의세력이 임시정부를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조직한 것으로 임시정부의 여당이 되었다.

한국독립당은 1930년을 전후하여 결성된 제 정당과는 다소 그 성격을 달리했다. 즉 이 당은 정착된 정당조직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그 이유는 정부와의 관계와 성숙성 및 정강·정책의 완성 때문이다. 한국독립당은 以黨治國의 체제를 갖춘 소위 ‘중국어민당정부’처럼 ‘한국독립당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1930년에 조직되어 1932년 5월 항주로 옮겨간 이 당은 1940년 重慶에서 조직된 같은 이름의 한국독립당과 달리 임시정부의 與黨이라기 보다 임시정부 그 자체였다.<sup>4)</sup>

당의 중심인물은 모두 임시정부의 주요 직책을 갖고 있었다. 1927년 8월에 조직된 국무위원은 이동녕(국무회의주석 겸 법무장)·金九(내무장)·吳永善(외무장)·김철(군무장)·金甲(재무장) 등이었고, 1930년 6월에 오영선의 사직으로 趙素昂이 외무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8일 의정원 회의에서 임기(3년) 만료로 인한 국무위원 개선에 따라 선출된 국무위원은 이동녕(법무장·주석)·김구(재무장)·趙堯九(내무장)·조소앙(외무장)·김철(군무장) 등이었다. 그 외 주요직은 군사위원회위원장 尹琦燮, 외교위원회와 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임시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車利錫이었다.<sup>5)</sup>

3) 위와 같음.

4) 1930년대의 한국독립당이 임시정부의 여당이면서 유일당이었다. 때문에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은 동일한 인물로 구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1940년대에 조직된 한국독립당은 제1 야당인 민족혁명당을 비롯하여 여러 야당을 경쟁 상대로 둔 집권당이었다.

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1972), 575~576쪽.

한국독립당은 그 이전에 전혀 볼 수 없던 성숙된 정강·정책을 마련했다. 한국독립당의 정강·정책을 입안한 자는 조소앙이었고, 따라서 그의 三均主義가 당 이념의 기본구조가 되었다. 이 내용의 골격은 결국 민주독립국가의 수립과 균등제도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본골격으로 한 한국독립당의 이념을 살펴볼 때 세 가지의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민족주의·민주주의의 성격, 대일투쟁 방법으로 민중적 항일투쟁과 무력적 파괴의 두 가지를 제시한 점,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국유로 한다는 사회주의적 성격 등이 그것이다. 한국독립당의 정강·정책은 1930, 1940년대에 조직된 대다수 정당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독립당은 투쟁방략으로 민중적 반항과 무력적 파괴를 제시했다. 이것은 만주의 한국독립당과 朝鮮革命黨처럼 군사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요인암살이나 적 기관의 파괴와 같은 소규모의, 그러면서도 효과 있는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 기인하였다. 그러므로 1930년대 초 한국독립당의 항일투쟁활동은 이러한 무력적 파괴·요인암살 등이 주된 흐름이었고,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sup>6)</sup> 그리고 이 투쟁방략은 한국노병회의 독립전쟁준비방략과 병인의용대의 의열투쟁방략을 계승한 것이었다.

한국독립당은 산하 각 부문단체를 통해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 산하 부문단체로는 비밀결사인 한인애국단을 비롯하여 상해한인청년당·상해애국부인회·상해한인여자청년동맹 등이 있었다. 한국독립당의 활동 가운데 중요한 것이 중국국민당의 지원 획득이었다. 1930년 5월 초에 남경에서 개최된 제4차 중국국민당중앙집행위원회의 개회와 張學良이 남경을 방문한 기회를 맞아 중국 거주 한인문제에 관해 청원하기 위해 조소앙과 朴贊堯이 대표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남경에서 蔣介石·장학량을 비롯한 중국국민당의 요인을 방문하고 한국독립당의 주의·강령 등을 극력 주장했다.<sup>7)</sup>

6) 소규모의 국부적인 무력적 파괴만으로 독립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복국을 달성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윤봉길의거 이후 장개석과 면담했던 김구는 한국청년의 조직적 훈련과 군사력 양성을 위해 중국군관학교에 한국청년을 입교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양자합의에 의해 중국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한인특별반이 만들어졌다.

7)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중국편(1976), 676쪽.

1931년 5월에 조완구·조소앙·이동녕·김철·김구 등 국무위원 명의로 선언서를 발표했다.<sup>8)</sup> 이 선언은 남경에서 개최되고 있던 중국국민회의에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의 방침과 정책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 선언에서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옛 한국영토에 민주독립국가를 확립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역시 그 땅에 균등제도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과거의 시기로서 첫걸음의 공동목표이며, 후자는 건설시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다.<sup>9)</sup>

한국독립당의 성립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족유일독립당이라는 민족운동상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해 시도된 중국관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정당 활동이었다”<sup>10)</sup>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독립당이 조직된 뒤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거나 또는 그 범주를 벗어난 위치에서 여러 정당이 조직되었고, 이어서 점차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사실도 그러하다.

## (2) 의열단

義烈團은 1919년 11월에 길림성에서 창단된 뒤 상해로 이동하여 1925년 상반기까지 파괴·압살 등의 의열투쟁에 힘을 쏟았다.<sup>11)</sup> 의열단은 20년대 초에 무정부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의열투쟁을 벌였으나 그것만으로 일체를 축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25년부터 활동방향을 바꾸었다. 의열단의 대표인 金元鳳은 여러 단체들과 함께 黃埔軍官學校 제4기에 입학하였다. 당시 이 학교의 교장은 장개석이었으나 북벌에 참가하고 있었고, 교장대리를 맡고 있던 鄧演達이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원들이 공산주의에 심취하게 되었다.<sup>12)</sup>

1926년 10월에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한 김원봉은 그해 겨울에 광주에서 의열단의 개조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吳成倫·金山·柳子明 등이 합

8) 위와 같음.

9)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중국편(1976), 673~675쪽.

10) 秋憲樹, 〈日帝下 國內外 政黨活動〉(《韓國現代史의 諸問題》Ⅱ, 1987), 352쪽.

11) 金榮範,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창작과비평사, 1997), 141쪽.

12) 김희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지식산업사, 1995), 250쪽.

게 참석한 이 회의에서 의열단은 장차 ‘혁명정당’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sup>13)</sup> 이 결정을 바탕으로 의열단은 1927년 초에 조직을 개편하였다. 그것은 광동에 중앙집행위원회를 두고, 상해와 武昌 및 南昌에 지방집행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었다.<sup>14)</sup>

‘혁명정당’으로의 전환을 결정한 의열단은 다음해인 1927년 5월에 〈獨立黨促成運動에 대한 宣言〉을 발표하였다.<sup>15)</sup> 이것은 이미 1926년 10월에 결성된 대독립당조직북경총성회를 이어 1927년 4월에 상해에서 한국유일독립당총성회가 조직된 직후였다. 이로써 의열단은 ‘민족협동전선운동’과 ‘혁명정당’ 결성이라는 두 가지 활동방향을 정립했다. 그들은 우선 주요 활동지역에서 유일당총성회를 조직했다. 1926년 황포군관학교 입교 무렵부터 김원봉과 김성숙 등이 활동하고 있던 광동에서 김성숙이 주도하여 1927년 5월 8일에 광동총성회를 조직했다. 또한 당시 무한에도 1927년 4월 12일에 장개석이 중국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해 전개한 ‘反革命清黨運動’(상해쿠데타)을 피해 모여든 의열단원들이 많았는데, 박건웅을 중심으로 무한총성회가 조직되었다.<sup>16)</sup>

1927년 5월 이후 무한에서 활동하다가 그해 말에 상해로 돌아온 김원봉은 1928년 늦여름 이래 安光泉을 상해에서 만나 앞서 선언했던 두 가지 활동방향 가운데 민족협동전선운동을 추진하고,<sup>17)</sup> 이와 함께 1928년 말에 들어 의열단을 정당조직체로 그 성격을 전환시켜 나가기에 이르렀다. 의열단이 1926년에 ‘혁명정당’으로의 전환을 결정한 이래 내용면에 있어 구체적인 변화를 보인 사실은 1928년 10월 4일에 발표한 〈朝鮮義烈團 제3차 全國代表大會宣言〉<sup>18)</sup> 가운데에서 ‘정당체적 조직’으로의 전환을 암시한 20개항의 정강·정책이었다.<sup>19)</sup> 이는 결국 의열단이 1926년 겨울에 결의한 ‘혁명정당 전

13) 水野直樹, 〈黃埔軍官學校と朝鮮の解放運動〉(《朝鮮民族運動史研究》6, 1989), 63쪽.

14) 水野直樹, 위의 글, 59쪽에서 재인용.

15) 朴泰遠, 《若山과 義烈團》(백양당, 1947), 206쪽.

16) 梶村樹秀, 〈1940年代 中國の抗日闘争〉(《三千里》31, 1982), 102쪽.

17) 韓相禱, 《韓國獨立運動과 中國軍官學校》(문학과지성사, 1994), 223쪽.

18)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東京: 原書房, 1967), 340~341쪽.

19) 강만길,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和平社, 1991), 37쪽.

의열단의 이념과 정강을 보면, 사회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채택하고 있었음

환' 방침을 사실화하면서, 이와 함께 1927년에 표명한 '통일적 총지휘기관'의 확립을 위해 힘을 기울이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선언이 나온 바로 다음 달인 11월에 의열단은 <창립 9주년을 기념하면서>라는 발표문을 통해 협동전선의 실천적 형태로 '통일적 정당'을 제안하였다.<sup>20)</sup>

상해를 거쳐 북경에 도착한 김원봉은 ML과 간부인 安光泉과 제휴했다. 그들은 조선공산당재건동맹을 조직하고 전위투사의 양성을 위해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설립하고 청년들을 교육했다.<sup>21)</sup> 그러다가 1930년에 상해에서 한국독립당이 창당될 무렵, 의열단의 중심세력은 1929년 봄 이래 상해를 떠나 북경으로 활동무대를 옮겼다.<sup>22)</sup> 그러다가 1931년 9월에 일제의 만주침공을 접하면서 의열단의 중심세력은 남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의열단 활동은 김원봉이 남경에서 군사간부를 양성한 일과 한일래와 박건웅이 중심이 되어 韓國對日戰線統一同盟을 결성하여 민족협동전선운동을 전개한 일로 나타났다.

김원봉은 남경에서 황포군관학교를 통해 맺어진 인연을 최대한 살려 국민당정부 군사위원회에 <中韓合作에 관한 建議>, <韓國革命的 現狀과 本團의 策略>, <朝鮮義烈團의 政治決意案> 등을 제출하고, 그 결과 장개석의 결재를 얻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열었다.<sup>23)</sup> 이 학교의 설립목적은 청년간부들에게 항일투쟁정신을 계승시키고 근대적 군사교육을 시켜 한국의 절대독

---

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1928년 10월에 조선의열단 제3차 전국대표대회선언을 통해 발표된 정강의 대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은 ① 봉건제도 및 일제 반혁명 세력을 삭제하고, 진정한 민주국을 건설함, ② 소수인이 다수인을 착취하는 경제제도를 소멸시키고 조선인 각개의 생활상 평등한 경제조직을 건립함, ③ 대지주의 재산을 몰수함, ④ 농민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가난하여 고생하는 농민에게 토지·가옥·기구 등을 공급함, ⑤ 대규모의 생산기관 및 독점성의 기업(철도·광산·기선·전력·수리·은행 등)은 국가에서 경영함 등이었다.

20) 朝鮮總督府 慶北警察部, 《高等警察要史》(1934), 102~104쪽.

21) 金正柱, 《朝鮮統治史料》10(東京: 韓國史料研究所, 1975), 704쪽.

22) 坪江汕二, 《鮮民族運動秘史》(東京: 日刊勞動通信社, 1959), 65쪽.

23) 군사간부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韓相禱, 앞의 책, 255~296쪽.

金榮範, 앞의 책, 299~316쪽.



립을 달성하고 중국의 목표인 만주국 탈환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의열단은 1932년 10월부터 1935년 9월에 이르기까지 3기에 걸쳐 모두 125명의 청년간부들을 배출했다.

의열단이 전개한 또 하나의 중요한 활동은 앞서서도 본 것처럼 1920년대 후반기에 추진되다가 일단 실패한 민족협동전선체 구성에 관한 노력이었다. 1932년 10월 이래로 구체화된 이 활동은 의열단을 비롯하여 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한국광복동지회·신한독립당 등의 대표들이 상해에 모여 各團體聯合籌備委員會를 결성하고, 뒤이어 11월 10일에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정식으로 발족시켰다.<sup>24)</sup> 이로써 1926년 이후 상해 등 중국본토지역에서 추진된 민족협동전선운동이 한 단계 나아가 장차 ‘대동단결체’를 조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의열단의 위치에서 볼 때, 이러한 결실은 1926년 겨울에 광주에서 열린 의열단 개조를 위한 전체회의와 1927년 5월에 발표한 <독립당 축성운동에 대한 선언> 등으로 시작하여 1935년 7월 5일에 성립되는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연결되는 민족협동전선운동의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의열단은 당명을 사용하지 않았던 문제와는 관계없이 다른 독립운동정당과 동일한 자격과 위치에서 제 역할을 발휘했다.

### (3) 신한독립당

新韓獨立黨은 만주의 한국독립당(상해의 것과 다름)과 남경의 한국혁명당이 1932년에 통합되어 조직되었다.

만주의 한국독립당은 1928년 12월에 조직된 혁신의회를 기반으로 하여 1930년 7월에 홍진·李靑天·閔武·安勳·黃學秀·申肅·李章寧·金元植 등에 의해 결성되었다.<sup>25)</sup> 만주의 한국독립당은 중앙에 6개 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는 支黨部和 區黨部를 두었다. 그리고 이 당은 동북 만주의 의병·유림·대종교 등의 집단을 망라하였다. 당의 간부를 보면 홍진이 중앙위원장이었으며, 신숙(총무)·南大觀(조직)·안훈(선전)·이청천(군사)·崔灝(경리)·이장녕(감찰) 등이 각각 6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했고, 한국독립군 총사령은 이청

24)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資料》3, 473~474쪽.

25)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大韓民國公報處, 1949), 156~157쪽.

천이 맡았다.<sup>26)</sup> 이 당은 당 내부에 총무·조직·선전·군사·경리·감찰 등 6종의 위원회를 두었고, 당의 조직체계는 중앙당부·지당부·구당부 등의 3급 조직을 두었다. 그리고 한국독립당은 이후 동·북만주의 의병출신과 유림 및 대중교 등의 집단을 망라하여 진영을 강화했고, 따라서 1931년에는 36개의 軍區를 가질 정도로 그 조직이 확대되었다.<sup>27)</sup>

한국독립당은 창당과 함께 다음과 같은 〈黨綱〉을 채택하였는데, 첫째 民本政治의 實現, 둘째 勞本經濟의 組織, 셋째 人本文化의 建設 등이 그것이다.<sup>28)</sup> 이 강령은 民·勞·人을 三本으로 삼는 정치·경제·문화정책을 의미하였다. 특히 여기에서 나타나는 ‘민’이나 ‘인’은 곧 당시 만주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독립운동의 인적·물적 바탕을 이루고 있던 동포들이었고, 따라서 한국독립당이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 농민 위주의 경제정책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당은 소속 당군으로 한국독립군을 조직했다. 따라서 한국독립당은 자치기관으로서의 한족자치연합회와 군사기관으로서의 한국독립군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관계에 섰다.<sup>29)</sup> 이리하여 한국독립당은 한족자치연합회와 한국독립군을 주도·육성하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31년 일제가 전격적으로 만주를 침공하자, 한국독립당은 1932년 11월 한국독립당 중앙의회의 결의를 통하여 한국독립군의 항일전선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리는 한편, 중국의 길림성 당국과 연합 항일전쟁 방안을 협의하기도 하였다.<sup>30)</sup>

이후 일제의 침공이 더욱 격화되자, 한국독립군 부대는 중국관내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 때 임시정부가 이청천을 초대하여 이청천·趙擎韓·吳光宣·公震遠 등이 상해로 이동하는 동시에 독립군 가운데 군관학교 입학지원자를 선발하여 상해에 보내기로 하였다.<sup>31)</sup> 이것은 1932년 1월 29일의 윤봉길의거를 계기로 蔣介石이 김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김구의 요청과

2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1973), 598~599쪽.

2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1973), 596~597쪽.

28) 申 肅, 《나의 一生》(日新社, 1963), 94쪽.

29) 秋憲樹, 앞의 글, 343쪽.

30) 洪永道, 《韓國獨立運動史》(애국동지수호회, 1956), 281쪽.

31) 洪永道, 위의 책, 279쪽.

장개석의 찬성에 의해 중국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한인특별반이 설치됨에 따른 것이다. 즉 중국관내로 이동한 만주 한국독립군들의 대다수가 여기에 입교하였다.<sup>32)</sup>

한편 韓國革命黨은 尹琦燮·申翼熙·延秉昊·成周寔·閔丙吉 등이 1929년 남경에서 조직한 정당이었다. 구성원은 임시정부에서 주류를 이루지 못했던 인물들이었는데 근거지를 남경으로 옮겨 임시정부나 한국독립당과는 별도의 정당을 조직했다. 이 당의 목적은 사상의 정화와 독립운동 진영의 단결을 꾀하는 것으로 동시에 산하에 철혈단을 두어 무력행동대로 삼았는데, 그 주요 인물은 安在桓·金昌華·羅月煥 등이었다. 이 당은 기관지로 《우리 길》을 발간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단원 훈련과 교양에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1932년 현재의 당원은 40명 정도였으며, 간부는 이사장에 윤기섭, 총무 鄭泰熙, 외무 신익희 등이었다.<sup>33)</sup>

1934년 2월 25일에 만주 한국독립당의 대표 홍진·김원식과 한국혁명당 대표 윤기섭·연병호가 남경에서 협의한 결과 각 당을 해체하고 ‘신한독립당’을 조직했다. 이어서 3월에 대표회의를 열어 간부선임과 운동방침을 결정했는데, 당수에 홍진, 당무위원에 김상덕·신익희·윤기섭 등이 각각 선임되었다.<sup>34)</sup> 신한독립당은 당의로 “민족주의를 기초한 정권, 생계문화의 독립과 민주적 신건설 완성, 전세계 인류의 평등·행복의 촉진”을 채택하고, 강령으로는 민주공화국·대의제·토지와 대생산기구의 국유제 등을 채택하여 한국독립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의 그것과 유사했다.<sup>35)</sup>

이러한 양당의 통합은 독립운동사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黨對黨 통합’이라는 데 의미가 있었고, 장차 독립운동계에 있어 정당간의 통합운동을 내다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이 당의 세력은 그리 확대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주의 한국독립당이 만주사변으로 북경으로 남하하게 되면서 합당의 교섭을 벌이게 되었다.

32) 낙양분교에 대해서는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白凡金九全集》4(1999), 799~1066쪽.

3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4, 727쪽.

34) 金正柱, 《朝鮮統治史料》10, 701쪽.

35) 金正柱, 《朝鮮統治史料》10, 702쪽.

이것은 만주 한국독립당의 당세 만회와 한국혁명당의 세력확대 추구라는 목적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었다.

#### (4) 조선혁명당

朝鮮革命黨은 1929년 12월에 국민부가 기존의 민족유일당 조직동맹을 개편함에 따라 결성된 것이다. 그래서 조선혁명당은 국민부의 독립운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고, 국민부의 무장조직을 조선혁명군의 산하에 편성하기로 했다.<sup>36)</sup> 이것은 以黨工作·以黨統治라는 시대조류에 호응한 것으로, 국민부는 한인사회의 자치행정기관, 조선혁명군은 독립운동에 대한 군사적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 조직과 운영은 유일정당인 조선혁명당의 정치적 지도 아래 놓이게 되는 체제를 갖추었던 것이다.<sup>37)</sup>

조선혁명당의 중심인물은 崔東旼·柳東說·高謨信·李雄 등이었다.<sup>38)</sup> 구성간부들의 내용을 보면 玄益哲이 중앙책임비서였고, 7부 위원장에 玄正卿(정치부)·高而虛(조직부)·金輔安(교육부)·張承彦(체육부)·최동오(외교부)·고할신(선전부)·이웅(군사부) 등이 각각 선임되었다.<sup>39)</sup>

이들은 대다수 민족주의자들이었고, 또 이 당도 민족주의 세력의 결집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당시 발표했던 선언은 사회주의적인 논리를 강하게 표방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일본제국주의를 박멸하고 아울러 내부의 일체 압박 및 착취세력을 파괴하고 조선의 절대 독립을 완성하여 노동·민중 정권을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대기업 기관을 몰수하여 국유로 하고 대토지 소유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여하고 일체 노력 생활의 평형 발달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목적을 천명했다.<sup>40)</sup> 이들이 ‘민족주의자들의 결사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선언에서 사회주의 논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당시 러시아 혁명의 성공에 따라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이 민족운동 내에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었으며, 또한 만주 한인사회의 대다수는 농민으로 구성되어

36)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史》5(1969), 736쪽.

37)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2(延世大出版部, 1975), 338쪽.

38) 金正柱, 《朝鮮統治史料》10, 703쪽.

39) 洪永道, 앞의 책, 281쪽.

40)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중국판(1976), 669~672쪽.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의 수용이 선전적 차원에서 보다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41)</sup>

조선혁명당은 실제 민족·사회주의 양파의 대립이 극심하였다. 그 결과, 민족주의 세력의 현익철이 사회주의 세력인 玄河竹 일파를 몰아내고 실권을 장악하였고,<sup>42)</sup> 1935년에 조선민족혁명당에 참가함으로써 해체되었다.

조선혁명당은 한국독립당(만주)과 함께 1930년대 초 만주에서의 정당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모두 당에 소속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짐으로써 활동의 주안점을 정책 제시 및 조직화의 측면에 두는 다른 정당과 달리, 오히려 항일전투활동의 정치적 지도를 위한 정당조직의 유지를 강조했다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만주사변 이후 1931~1933년 사이에 중국관내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이후 만주지방에서의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활동은 종료되었다.<sup>43)</sup>

## 2) 제 정당의 통합노력과 양대 정당체제의 성립

### (1) 조선민족혁명당

1932년 후반에 들어 독립운동정당들은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통합운동은 1920년대에 이루어졌던 유일당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통일운동의 재기로 해석된다. 이처럼 다시 통일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에는 만주사변과 상해사변에 의한 중국인의 대일 항전의식 고조, 李奉昌·尹奉吉 의거로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미국과 일본, 혹은 소련과 일본 사이의 전쟁 예견 등이 작용하였다.

한국독립운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맞는 대응책으로 대동단결체의 결성을 모색하였다. 그 근거에는 이 목표가 이루어질 경우 효과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할 수 있고, 또한 중국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그 결과 1932년 10월 12일에 한국독립당 대표 이유필·송병조·김두봉과 신한

41)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2(연세출판부, 1975), 339쪽.

42)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2(연세출판부, 1975), 67쪽.

43) 秋憲樹, 앞의 글, 345쪽.

독립당 대표 윤기섭·신익희, 조선의열단 대표 한일래·박건웅, 광복단 대표 김규식 등 9명이 모여 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하였다.<sup>44)</sup> 이 동맹의 결성은 1920년대 후반에 추구되었던 유일당운동의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동맹은 각 단체의 제후에 불과했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투쟁 역량 결집을 위한 단일대당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1933년 3월 1일에 남경에서 열린 2차 대표대회 겸 한국혁명각단체대표자대회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각 단체의 해체와 단일대당의 결성 및 임시정부의 해산이 제안되었다. 이후 상당한 진통을 거쳐 1935년 6월에 있었던 동맹의 제3회 대회에서 동맹의 발전적 해소와 신당, 즉 민족혁명당 창립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sup>45)</sup>

민족혁명당은 1935년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열린 신당창립정식회의를 통해 결성되었다.<sup>46)</sup> 의열단의 김원봉과 신한독립당의 이청천은 윤봉길의거로 이후 중국의 대단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일본의 추격을 피해 잠적중인 김구의 세력에 대응하면서 중국 국민당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김구가 이탈한 상태의 한국독립당의 경우는 단일 신당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지 못하였다. 김두봉·강창제·박창제 등은 신당 참여에 찬성했으나 송병조·조완구·차이석 등은 끝내 반대하였다. 민족혁명당에 참가한 단체들은 7월 25일에 단체를 정리하고 사업·재정·당

44)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513쪽.

45) 朝鮮總督府 高等法院檢事局 思想部, 《思想彙報》5(1935), 89~91쪽.

당명이 처음에 민족혁명당·한국민족혁명당·조선민족혁명당으로 쓰이다가 1937년 1월에 남경에서 개최된 전당대표대회에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결정되었다.

46)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537쪽.

민족혁명당은 창당선언을 통해 신당창당의 역사적 당위성을 밝혔는데 그것은 과거의 분산적 운동과 그 오류를 지적하고 투쟁역량의 결집을 주장한 내용이었다. 즉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예견하면서 “우리민족의 혁명역량을 급속으로 집중·공고하게 하고 중국민족과 절실히 제휴하며, 나아가 우리 독립운동에 동정하는 각 민족국가를 모두 우군으로 인정하고 반일전선의 전략 아래 최후에 승리를 획득할 때까지 희생적으로 분투한다”라고 했다(金正柱, 《朝鮮統治史料》 10, 757쪽).

원 및 소비비품 등을 신당에 인계하였다.

민족혁명당을 구성한 핵심인물은 물론 의열단·한국독립당·신한독립당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러나 창당 2개월 뒤인 1935년 9월에 김원봉의 전권 장악에 반발한 조소앙·박창제 등의 한국독립당 출신들이 탈퇴하여 한국독립당의 재건을 선언하고, 이어서 신한독립당 출신의 閔丙吉·조성환·홍진 등도 탈퇴하게 되자, 남은 중심인물은 김원봉 등의 의열단계와 이청천·윤기섭 등의 신한독립당계, 그리고 최동오를 비롯한 조선혁명당계의 인물들이었다.

창당대회에서 선임된 간부는 내무부 겸 선전부장 김두봉, 외무부장 김규식, 군무부장 이청천, 재무부장 윤기섭, 교통부장 이범석, 특무부장 박창제, 감찰부장 양기탁 등이었다. 그러나 한국독립당 등의 세력이 이탈된 뒤, 1937년에 구성된 중앙위원은 김원봉·이청천·윤기섭·成周寔·신익희·윤세주·김상덕·최석순·千炳日·유동열·金弘敍·李景山·鄭八仙·鄭日明 외 2명으로 세 계열의 대표로 구성되었다.<sup>47)</sup> 민족혁명당은 중앙에 중앙위원회와 7부 및 서기국·군사국·조직국·검사국의 4국으로 구성되는 중앙당부를 두었다. 그리고 1937년 초에 중앙의 7부를 조직부(부장 최석순)·군사부(부장 이청천)·선전부(부장 陳義路)·서기국(총서기 김원봉)의 3부 1국제로 고쳤다. 지부 조직은 처음에 상해지부(지부장 김홍서)·남경지부(지부장 최석순)·만주지부(지부장 김학규)로 구성되었다. 그 뒤 1936년 4월에는 화중·화동·화남·화서·화북 지부와 국내외 특별1지부 및 만주의 특별2지부 등 7개 지부로 변경했다.<sup>48)</sup>

민족혁명당의 이념은 당의와 당강 및 정책 등을 통해 쉽게 드러난다. 그 이념의 대강은 혁명적 수단으로 일제를 물리치고 정치·경제·교육의 평등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조소앙의 三均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앞서 성립된 한국독립당이나 민족혁명당의 결성 직후에 성립되는 한국국민당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발표된 이념과는 달리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 세력은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었고, 다만 중국 국민당정부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민족혁명당의 항일투쟁방략은 당의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혁명적 수단’

47)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601쪽.

48)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571~572쪽.

을 전개하는 일이었다. 아울러 민족혁명당은 일제의 견제를 피하면서 중국 국민당정부의 지원을 받아 군관을 양성하고 이들을 국내와 만주 그리고 중국내 각지로 파견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방략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1·2·3차의 단계로 특무공작을 전개했다. 제1차 공작은 중국군관학교에서 한인군관을 양성하는 것으로 일본의 간섭에 의해 중지되었다. 제2차 공작은 1936년부터 각 당원을 희망에 따라 군사부(부장 이청천)·특무부(부장 이범석)·당무부(부장 김원봉)로 나누어 군사부가 무장 군사훈련을, 특무부가 첩보·암살·과괴 활동을, 당무부가 특무부원 배치·당원밀파·선전활동 등을 각각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제3차 공작은 같은 해에 파견된 요원으로 하여금 암살과 과괴활동을 전개하게 하고 또 남경에서 대기중이던 40·50명을 다시 파견하는 일이었다.<sup>49)</sup> 민족혁명당은 중국 국민당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활동했다. 이 당은 蔣介石이 이끄는 藍衣社(중국국민당의 비밀특무기관)와 정보를 교환하고 재정과 무기의 원조를 받았다.

민족혁명당은 대일전선통일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제 정당의 통합운동으로 성립되었지만, 성립 무렵부터 상당한 문제와 한계를 갖고 출발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에 근거한 것이었다. 첫째 독립운동계의 가장 큰 세력이었던 김구 계열과 임시정부를 고수하고자 했던 송병조·조완구 등이 불참한 것이었다. 둘째 통일전선을 이루었으면서도 사상적인 갈등을 극복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이었다. 셋째 항일투쟁의 대부분이 중국 국민당정부의 자금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를 둘러싼 실권장악의 투쟁이 논란거리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창당 2개월 뒤인 1935년 9월에 조소앙·박창세 등의 한국독립당 출신들이 탈퇴하여 한국독립당의 재건을 선언함으로써 미완성된 단일 신당의 모습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이 현상은 중국의 재정지원을 김원봉이 독점함에 의해 나타났다.<sup>50)</sup> 곧이어 신한독립당 계열의 민병길·조성환·홍진 등의 탈퇴로

49)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571쪽.

50) 중국국민당이 남의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당시 남의사는 김원봉의 황포군관학교 동기생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원봉은 남의사



1936년부터는 의열단과 조선혁명당 및 신한독립당의 잔류 세력만이 남게 된 상황이었다. 더구나 김원봉과 이청천의 대립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재정운용에서 김원봉의 독점, 특히 중국 공산주의자와의 일방적인 교섭 등에 대한 이청천의 불만이 그 원인이었다. 그런데 그 대립이 표면화된 발단은 1936년에 당의 기관지인 《民族革命》 3호에 黨旗 대신 의열단기를 게재했던 사건이었다.<sup>51)</sup> 이로 말미암아 이청천 세력이 비상대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반격을 가하게 되자, 김원봉은 1937년 4월 상순에 간부회의를 열어 이청천·최동오·이광제 등 11명의 핵심인물을 제명시켜 버렸다.

민족혁명당은 1935년 7월에 김구 계열과 임시정부 고수파를 제외하고 성립된 통합 정당이었다. 따라서 1930년대 전반 중국 본토에 있어서의 독립운동계에는 독립운동정당이 정착했던 시기였고, 특히 정당의 통합운동이 전개된 시대였다. 그러나 민족혁명당이 성립된 4개월 뒤인 1935년 11월에 김구 세력이 한국국민당을 결성함으로써 양대 정당체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 (2) 한국국민당

1930년에 성립된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의 여당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고 앞에서 서술한 바 있다. 그런데 대일전선통일동맹과 민족혁명당이 결성되는 1930년대 전반에 있어 한국독립당은 세 갈래로 나뉘어졌다. 첫 갈래는 이봉창·윤봉길 의거 직후에 쇄도한 중국인들의 의연금을 둘러싸고 일어난 시비 때문에 김구와 김철 사이에 대립이 생겼고, 이에 김구 세력이 임시정부 군무장직을 사임하고 떠남에 따라 만들어졌다.<sup>52)</sup> 김구는 그 뒤 한인애국단과 군사활동에 주력하면서 한때 한국독립당과 임시정부에 관여하지 않고 고립적인 상태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sup>53)</sup> 둘째 갈래는 민족혁명당 결성에 가담했던 홍진·조소앙 등의 세력이었다. 앞에서도 본 바

---

로부터 매월 2천 5백불(원)을 지급 받았고, 기타의 자금 수입도 있었다(金正明, 《朝鮮獨立運動》 II, 576쪽).

51)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II, 577쪽.

52)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II, 490~500쪽.

53) 노경채, 〈한국독립당의 결성과 그 변천: 1930~1945〉(《역사와 현실》 1, 한울, 1989), 217쪽.

와 같이 이들은 민족혁명당 창당 직후에 탈퇴하여 한국독립당 재건을 선언하였다. 셋째 갈래는 임시정부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른바 ‘임시정부사수파’였다.

김구는 1935년에 이동녕·엄항섭 등과 제휴하고, 특히 임시정부 폐지론이 등장하게 되자 임시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조직의 결성과 임시정부로의 복귀를 시도하였다. 김구는 우선 그와 타협이 가능한 세력인 한국독립당 재건파·임시정부 고수파와 제휴하고자 했다. 즉 세 갈래로 나뉘어졌던 한국독립당의 세력들이 다시 결집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민족혁명당이 점차 독립운동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그들은 ‘임정존치론’의 명분 아래 민족혁명당에 대항해야 할 공동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임시정부를 둘러싸고 서로 간의 연합을 모색하였다.”<sup>54)</sup> 그러나 세 갈래 세력의 연합 모색 과정에서 김구 세력과 임시정부 고수파만이 의견을 합치시켰으니, 이로써 韓國國民黨이 결성된 것이다.

한국국민당은 민족혁명당 성립 후 4개월이 지난 11월 하순에 결성되었다. 이 당의 구성은 김구의 한인애국단을 비롯하여 임시정부 사수파 및 구 한국독립당 광동지부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구성 간부진을 보면 이사장에 김구, 이사에 이동녕·송병조·조완구·차이석·김봉준·안공근·엄항섭, 감사에 이시영·조성관·양묵(양명진) 등이었다.<sup>55)</sup> 한국국민당의 이념은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무산계급혁명론을 배격하는 내용이었다. 이 당은 창당선언에서 일제의 박멸과 임시정부의 옹호 및 완전한 민주공화국의 수립 등을 주장했다.<sup>56)</sup> 이 당의 당강은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혁명적 의식을 국민에게 고취하며 민족적 혁명역량을 총집중시킬 것을 주장하고 아울러 독립운동에 대한 사이비 불순적 이론과 행동을 배격할 것임을 천명하였다.<sup>57)</sup> 그리고 광복 후 추구할 정책으로 민족혁명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한국국민당은 항일투쟁방략으로 무장투쟁론을 당강에 제시했다. 그 내용은

54) 노경채, 《한국독립당연구》(신서원, 1996), 63쪽.

55) 社會問題研究會 編, 《思想情勢視察報告集：中華民國在留不逞鮮人の動靜》2(京都：東洋文化社, 1976), 42쪽.

56)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545~547쪽.

5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4, 755쪽.

‘민족적 반향’과 ‘무력적 파괴’를 적극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 방략은 한국노병회의 독립전쟁준비방략과 병인의용대의 의열투쟁방략에 이어 대두된 것으로, 특히 만주사변 이후 중일전쟁의 현실화가 예견되는 시기에 적절한 것이었다. 한국국민당의 활동은 기관지를 통한 선전활동, 부문 단체를 통한 조직력 강화, 의열투쟁(특무공작) 및 중국국민당과의 협조체제 유지 등이었다. 1936년 3월에 창간된 《韓民》은 국제정세의 분석과 민족적 항쟁을 고양시키는데 이용되었다. 한국국민당은 산하에 행동력을 가진 청년단체로 한국국민당 청년단을 두었다. 이 단은 1936년 7월에 김구의 청년전위단체였던 한국특무대 독립군에 이어 만들어진 것으로,<sup>58)</sup> 당의 선전부장 嚴炯燮의 지도 아래 남경 중앙군관학교 졸업생 17명과 응모청년 20명으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단의 중심인물은 김구의 장남인 金仁과 安恭根의 장남인 安禹生이었다. 또 이들은 《韓靑》이라는 기관지를 1936년 8월에 창간했다.<sup>59)</sup>

이 청년단의 구성원은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녀로 구성되었다. 이 단은 강령을 통해 “스스로 훈련하고 자체의 역량을 제고·강화하여 본당의 핵심이 되는 전위적 임무를 충실히 하는 외에,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각종 청년과 제휴하여 한국광복운동에 노력한다”<sup>60)</sup>고 밝혔다. 즉 이들은 김구의 지도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한국국민당의 전위활동조직이었다. 또한 한국국민당은 그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1936년 10월에 안우생 등 수명을 민족혁명당의 지부활동이 전개되고 있던 광동으로 파견하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청년들을 규합하여 한국청년전위단을 결성했다.

구 한국독립당의 조소앙·홍진 등과 이청천 세력과의 통합 모색은 1937년 초에 가서야 가시권에 들게 되었다. 1937년 2월에 이청천 세력이 민족혁명당

58) 한국특무대독립군은 1934년 12월에 김구가 자신의 휘하에 있던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입교생을 중심으로 조직한 것으로 ‘김구구락부’라고도 불렸다. 이 조직은 1936년 1월에 金東宇(본명 盧鐘均)·吳晁植·韓道源 등의 이탈로 해산되었다. 이들은 민족혁명당을 탈퇴한 金勝恩과 아나키즘계열의 金昌根 등을 규합하여 猛血團을 조직하고 한국독립당재건파와 제휴를 시도하다가 김동우를 제외한 대다수가 일제에 체포되어 해산되었다(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560쪽). 한국특무대독립군에 대해서는 한상도, 앞의 책, 333~338쪽.

59)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562~563쪽.

60) 朝鮮總督府 高等法院檢事局 思想部, 《思想彙報》20(1939), 267~268쪽.

을 탈퇴하고 4월에 조선혁명당을 다시 조직하게 되자 한국국민당의 송병조가 주축이 되어 제후를 시도했다. 그 해 7월에 남경에서 제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재미 독립운동단체도 함께 포함시키는 문제를 협의하는 동안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마무리 매듭을 맺지 못하고 뒤로 미루었다.<sup>61)</sup>

### 3) 양대 연합체제와 통합노력

#### (1)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터지자, 한국독립운동계는 정세변화에 적응하면서 돌파구를 찾아 나갔다. 양대 정당체제에서 좌우 세력이 각각 연합체를 결성한 것이다. 그 가운데 우파의 연합체가 바로 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會(약칭 光復陣線)였다.

1935년에 민족혁명당으로 결집하고, 임시정부 사수파만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였다. 그 한국국민당을 이끄는 김구는 민족혁명당의 동정을 주시하고 있었다. 결성 두 달만에 조소앙이 이끄는 한국독립당 출신들이 김원봉의 독점에 반발하여 뛰쳐나와 (재건)한국독립당을 결성하자, 이를 다시 자신의 세력권 속에 포함시키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더구나 1937년 4월에 이청천마저 민족혁명당을 이탈하여 조선혁명당을 결성하게 되자, 김구는 이들 두 세력과 함께 우파 3당 통합을 모색하게 되었다.

임시정부를 사수하고 있던 김구가 이들 세력을 통합하는 구체적인 수순 밟기에 들어간 시기가 1937년 중반이었다. 미국의 이승만에게 서신을 보내 미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도 참가하는 통합정당 창출에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작업을 서두르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7월 7일에 터진 일본군의 중국본토 침략, 즉 중일전쟁의 발발이었다. 전시체제에 맞추어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논의하자면, 먼저 통합체를 구성해야만 했다. 그래서 이승만의 답이 오기도 전에 그 사정을 8월 2일자 편지로 알렸다.<sup>62)</sup> 이어서 8월

61)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644쪽.

62)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白凡金九全集》4(1999), 758쪽.

17일 남경에서 앞의 3개 정당과 미주지역의 대한민국민회(북미·멕시코;玄楯)·대한인동지회(李承晩)·대한인단합회(全耕武)·한인애국단(韓始大;미주 대한인애국단)·대한부인애국단(일명 대한인부인구제회;朴信愛)·대한인독립단(일명 대한인독립군)의 6개 단체 등 9개 단체의 연명으로 선언을 발표하고 광복진선을 결성하였다.<sup>63)</sup>

광복진선은 성립 선언을 통하여 세 가지 노선을 천명하였다. 하나는 강력한 光復戰線을 건립하고 확대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합작하여 중요 당면 공작을 실행한다는 것이며, 끝으로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지지한다는 것이다.<sup>64)</sup>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본다면, 민족혁명당 창당으로 대부분이 합류한 뒤 극소수의 잔류자들에 의해 임시정부가 다시 우파 3당의 참여로 다시 활기를 찾는 길이었다. 특히 대당결성을 내다보는 김구로서는 한 단계 고비를 넘긴 셈이었다.

광복진선의 이념은 그를 주도하고 있던 한국국민당의 당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주권 광복의 혁명적 의식을 국민에게 고취·환기하여 민족적 혁명역량을 총 집중할 것”이라 하여 좌우 세력의 연합에는 원칙적으로 길을 터놓았다. 그러나 “독립운동에 대한 사이비 불순적 이론과 행동을 배격할 것”과 “임시정부를 옹호·진전시킬 것” 등의 사실을 규정하고 있어서 계급혁명적인 의식과 임시정부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던 朝鮮民族戰線聯盟(약칭 민족진선)과의 합작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광복진선은 중일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강력한 연합진선을 형성하여 일본을 타도하는 공작을 실행할 것과 임시정부를 절대 옹호해 나갈 것을 방략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중일전쟁을 한국과 중국 양 민족의 최후결전이라고 인식하면서 “양 민족이 연합하여 항일구국전선에 참여해서 왜적을 섬멸할 것”을 실행목표로 정했다.<sup>65)</sup> 광복진선은 구체적인 활동방안으로 선전활동과 군사작전계획 수립을 채택했다. 광복진선은 선전활동을 위해 1937년

63)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559쪽.

64) 尹炳奭, 〈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會〉(《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昂篇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9~10쪽.

65) 尹炳奭, 〈韓國光復運動團體對中日戰局宣言〉(《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昂篇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7~8쪽.

10월에 선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당면 공작의 방향을 간행물의 발간을 통해 일제의 붕괴과정과 정보를 우방과 약소민족의 혁명동지에게 제공하고 국제공론을 환기하며 일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설욕으로 잃은 국토를 회복하는 데 두었다.<sup>66)</sup>

광복진선의 성립과 선전위원회 선전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향은 상당히 컸다. 1937년 9월 3일자 중국의 신문에 “한국 각 당이 대연합하여 조국의 회복을 도모한다”라는 표제로 크게 보도하고, 끝으로 “국민당은 혁명영수 김구가 영도하는 유일대당으로, 김구는 1·28(상해사변) 당시 虹口공원사건(윤봉길 의거)의 주모자이다”라고 찬양했다.<sup>67)</sup> 또한 같은 해 11월 1일자 각 신문은 여기에 호응하여 선전위원회의 내용을 게재했고,<sup>68)</sup> 11월 6일자 《上海大公報》에도 그러한 사실을 보도했다.<sup>69)</sup> 광복진선은 중일전쟁을 맞아 군사작전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정부의 후퇴에 따라 임시정부도 이동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실천은 다소 연기되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1938년 10월 廣西省 柳州에서 羅月煥을 대장으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를 조직했다.<sup>70)</sup> 하지만 본격적인 군사활동은 1940년 중경에서 결성된 광복군의 성립까지 기다려만 했다. 비록 군사활동이 본격화되지 못한 단계였으나 광복진선은 결사대 파견을 통한 공작, 무정부주의자와의 연결을 통한 대일 투쟁전개, 중국정부기관의 통신검열 및 상해·홍콩 등지를 통한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sup>71)</sup>

광복진선의 역사적 의의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광복진선이 우파세력인 3당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장차 3당의 합당을 거쳐 좌파의 통합세력인 민족전선과의 합작을 내다볼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둘째 광복진선이 중일전쟁에 대응한 전시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셋째 이것이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66)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1973), 468쪽.

67) 金正明, 《朝鮮獨立運動》II, 599쪽.

68) 金正明, 《朝鮮獨立運動》II, 600쪽.

69) 趙中孚·張存武·胡春惠 主編, 《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四(臺北: 國史館, 1987), 436쪽.

70) 독립운동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6(1979), 164쪽.

71) 金正明, 《朝鮮獨立運動》II, 614쪽.

강력한 기초조직이며 여당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광복진선이 이러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한계점도 갖고 있었다. 1919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독립운동자들은 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했다. 기다리던 기회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중일전쟁의 발발이었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더구나 중국이 과거와 달리 전면전에 돌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좌우파의 연합이 달성되지 못한 점은 광복진선이 가진 큰 한계점이 분명하다. 특히 한국국민당이 실제로 우파세력을 이끌면서도 당의 통합이 아닌 연합 단계에 머문 것도 그러하다.

## (2) 조선민족전선연맹

민족혁명당은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1935년 7월에 창당되었다. 그러나 민족혁명당은 창당 2개월 뒤인 9월에 조소앙·박창세 등의 한국독립당 출신들이 탈퇴하여 한국독립당 재건을 선언했고, 곧이어 신한독립당계열의 閔丙吉·曹成煥·홍진 등이 탈퇴하여 미완성된 단일 신당의 모습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이 현상은 중국의 재정지원을 김원봉이 독점함에 의해 나타났다. 1936년부터는 의열단과 조선혁명당 및 신한독립당의 일부 잔류세력만 남게된 상황이었다.

민족혁명당은 이청천세력이 이탈한 1937년 4월 이후 더욱 약화되었다. 김원봉은 민족혁명당의 세력만회를 위해 연합 가능한 단체와의 교섭을 추진했다. 그는 우선 1936년 여름부터 광동지부원들이 중앙본부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한 데 대해 이들을 복귀시키고자 노력하였다.<sup>72)</sup> 그는 이어서 무정부주의 단체인 朝鮮革命者聯盟<sup>73)</sup> 및 孫斗煥·金炳斗가 중심이 된 남경한족회와의 연합에 노력하였다. 김원봉이 이들과의 제휴

72) 조선민족해방동맹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은 좌파인물에 의해 결성되었다. 김성숙·박건웅·김산 등이 주역이었고, 중국공산당이나 코민테른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민족주의적’ 좌파 성향을 보였다(內務省 警報局, 《社會運動の狀況》 8, 1936, 東京: 三一書房, 1972, 1572쪽).

73) 1930년에 상해에서 柳子明(본명 柳典湜)·柳基石 등이 ‘南華韓人青年聯盟’이라는 무정부주의 단체를 조직했다. 이 단체가 1937년에 남경에서 ‘조선혁명자연맹’으로 재조직되었다.

를 통하여 김구 세력에 대항할 단일대당을 추구하고 있던 가운데,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8월에 우파진영이 광복진선을 성립시켰다.

김원봉도 중일전쟁이 터지자 7월 말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동맹·조선혁명자연맹의 대표 15인으로 구성되는 대표회의를 가졌다. 여기에서 조선민족전선통일촉성회가 조직되었다. 그런데 8월에 김구 쪽에서 먼저 광복진선을 발표함으로써 연합체 결성에 선수를 빼앗긴 꼴이 되었다. 이들은 남경 함락 직전인 11월, 대표회의를 통해 민족전선을 조직하기로 하고 규약·강령·선언 내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곧 남경이 함락되었으므로 12월 초에 漢口로 옮겨 창립을 선언했다.<sup>74)</sup> 민족전선은 창립선언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유일 활로는 전 민족의 단결력에 의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민족의 독립자주를 완성함에 있다. 고로 조선혁명은 민족혁명이며 그 전선은 ‘계급전선’도 ‘인민전선’도 아니며, 또한 프랑스와 스페인 등의 소위 ‘국민전선’과도 엄격한 구별이 있다”<sup>75)</sup>라고 하여, 현 단계의 조선혁명은 민족주의적 민족해방운동이지 사회혁명이 아님을 천명했다. 즉 민족전선은 민주주의적 독립국가건설과 민족의 자유·평등 실현을 공동의 정치강령으로 하면서 단체본위의 연합형식으로 결성된 연합전선체였다. 이처럼 민족전선에 공산주의자가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과제를 강령으로 채택한 것은 식민지하에서 계급모순은 민족모순을 통해 관철되며, 한국에서의 총체적인 적은 일본제국주의라는 이해시각 때문이라 하겠다.<sup>76)</sup>

이처럼 민족전선은 조선의 혁명이 민주주의적 민족해방운동이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1940년까지 임시정부에 대한 不關政策을 가지고 있었다. 민족혁명당은 불관정책만이 아니라 심지어 임시정부가 조선의 復國에 유해한 존재이며, 하나의 군중기초도 없는 것이고, 통치권력이 결핍된 형식적인 몇 사람의

74)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606~607쪽.

75)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617쪽.

76) 이러한 경향은 金奎光(金星淑)의 주장에도 나타난다. “진체 민족이 똑같이 해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일의 임무를 갖기 때문에, 현 조선혁명의 주체는 어느 한 계급 혹은 어느 한 정당이 될 수 없다. 동시에 광대한 중소자산계급·민족상공업자·지주 등도 반일의 혁명성을 상당히 갖고 있고 전민족 해방투쟁에서 상당히 주요한 세력을 구성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金奎光, 〈朝鮮民族反日革命 總力量問題〉, 《朝鮮民族戰線》5·6, 1938).



망상이라고 혹평하였다.<sup>77)</sup> 이것은 광복전선이 임시정부의 여당기능을 가진 것에 비해, 민족전선이 임시정부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민족전선의 조직은 선전부·정치부·경제부로 나누어졌다. 물론 민족전선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 단체들의 연합체이기는 하지만, 財政權을 장악하고 있는 김원봉이 대표하고 그 아래에 세 개의 부서를 두었다. 선전부는 조선혁명자연맹 소속의 유자명을 대표로 약 50명, 정치부는 조선민족해방동맹 소속의 韓斌(일명 王志延)을 대표로 약 40명, 경제부는 민족혁명당의 李春岩을 대표로 약 10명의 인원으로 각각 구성되었다.<sup>78)</sup> 민족전선은 투쟁강령으로 소수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전 민족이 연합할 것과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일본에 대해 직접 항전을 전개할 것, 중국 및 전세계 피압박민족과 연합하여 반파시스트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혁명의 세계적 연대성을 가질 것, 그리고 국내외 혁명역량을 연계할 것 등을 채택했다. 이러한 투쟁강령에 따라 민족전선은 중국군과 함께 일본군에 항전할 군사조직으로 朝鮮義勇隊를 결성하였다.

조선의용대의 당초 목적은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여 중국항전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크게 모자라서 우선 정치선전공작의 대오로 조직되었고, 적의 중국 공격과 한·중 양 민족에 대한 이간책을 분쇄하는 것, 조선동포와 일본군인을 생취하는 것, 중국항전에 참가하여 조선민족의 해방공작을 삼는 것 등을 활동방침으로 정했다.<sup>79)</sup> 조선의용대의 공작내용은 대적선전공작·대적전투·정보수집과 포로교육·대원확충·중국군민과의 합작 등이었다.<sup>80)</sup> 그런데 그들이 만주의 동북항일연군의 한인군대를 모델로 삼고 있었음이 주목된다.<sup>81)</sup>

조선의용대의 조직내용은 중일전쟁 1주년 기념일인 1938년 7월 7일에 중국정부에 보내졌다. 조선의용대는 중국정부의 지지를 받아 같은 해 10월 10

77) 胡春惠,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단국대출판부, 1978), 115쪽.

78) 金正明, 《朝鮮獨立運動》II, 615쪽.

79) 金若山, 〈第二年的開始〉(《朝鮮義勇隊通訊》7기; 국가보훈처,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8), 276쪽.

80) 金喜坤, 〈조선의용대의 독립운동전략〉(《韓國近現代史研究》11, 1999), 15~27쪽.

81) 韋明, 〈英勇戰鬪中的東北朝鮮革命軍〉(《朝鮮義勇隊》39기; 국가보훈처,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8), 485~486쪽.

일에 합락 직전에 놓인 漢口에서 조직되었다. 조선의용대는 동포와 파시스트 압제하의 민중을 연합하여 일제를 타도하고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완성하는데 그 임무와 목표를 두었다.<sup>82)</sup> 조선의용대는 성립 초기에 약 120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졌고, 인원이 가장 많았을 때는 약 340명에 이르렀다. 최초의 편제는 두 개의 區隊로 이루어졌고, 제1구대는 朴孝三의 지휘하에 호남·강서일대에서 활동하고, 제2구대는 李益鳳의 지휘하에 安徽·洛陽 일대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본부는 김원봉이 지휘하여 한구에 있다가 桂林을 거쳐 重慶으로 옮겨졌다.<sup>83)</sup> 조선의용대의 성격은 투쟁강령에 따라 조직된 전투조직이었고, 중국 국민당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특수성 때문에 중국 군사위원회 정치부의 戰地工作隊에 예속되어 활동하는 국제지원군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sup>84)</sup>

민족전선은 기관지로 《朝鮮民族戰線》을 발간했다. 창간호는 1938년 4월 1일에 발간되었는데, 매월 10일과 25일에 발간기로 했다. 그리고 편집인은 김규광·유자명·韓一來(본명 千炳林) 등이었고, 발간처는 朝鮮民族戰線社였다. 이 기관지는 창간사에서 “금일 만약 중국의 항전이 실패하면 조선민족의 해방은 영원히 無望하며 따라서 조선민족의 노력은 중화민족의 최후승리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고 하여 항일전쟁에 있어 한중 양국의 결속을 촉구했다.<sup>85)</sup>

민족전선은 1938년 중반에 들면서 분열현상을 보였다. 그것은 1938년 5월에 호북성 江陵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표회의에서 최창익이 김원봉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崔昌益은 민족혁명당을 통해 조선공산당의 재건을 꿈꾸면서 민족통일전선에 대해서는 연맹조직론을 고수했으며 중국과의 연합은 중국공산당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김원봉은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민족통일전선은 단일당의 형태여야 하며 중국국민당과 연합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두 세력의 갈등 때문에 최창

82) 胡春惠, 앞의 책, 138쪽.

83) 胡春惠, 위의 책, 138~139쪽.

84) 胡春惠, 위의 책, 141~142쪽.

이러한 성격은 1940년 9월 17일 중경에서 성립한 한국광복군의 경우와 같다.

85)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620쪽.

익은 같은 해 7월에 金學武와 함께 조선의용대를 편성하기 위해 중국 각지에서 모인 중앙군관학교 星子分校 특별훈련반 졸업생 50명으로 朝鮮青年戰時服務團을 결성하고 민족혁명당을 이탈했다가, 자금난으로 곧 민족혁명당으로 복귀한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창익·허정숙 등은 그 해 10월에 전위동맹을 탈퇴하고 延安으로 떠났다.<sup>86)</sup> 그리하여 한빈이 전위동맹의 주축이 되어 공산주의 청년들을 지도하였다.

민족전선은 중일전쟁 직후에 성립하여 김구가 이끄는 광복전선과 더불어 양대체계를 이루었다. 민족전선이 가진 역사적 의미는 민족전선이 좌파세력을 통일하고 나아가 우파의 광복전선과 광범한 연합전선론을 제기함으로써 이후 전국연합전선협회 구성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그 반면에 내부통제에 실패하여 조직이탈을 막지 못함으로써 대동단결로 나아가는 방향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여기에서 우파 광복전선과의 타협과 통합을 모색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 (3) 7당·5당 통일회의와 전국연합전선협회

양대 연합체인 광복전선과 민족전선은 중일전쟁의 와중에 통일점을 찾고자 나서고, 마침 중국 국민당정부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통합을 시도하게 된다.<sup>87)</sup>

蔣介石은 1938년 11월에 김구를, 이듬해 1월에 김원봉을 중경으로 초청하여 두 세력의 합작을 권유하였고, 이에 호응한 두 사람이 1939년 5월에 〈동지·동포 제군에게 보내는 공개통신〉을 발표하였다.<sup>88)</sup> 그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지난날의 활동에 대한 반성과 현 정세분석이고, 둘째는 현 단계의 정치강령이며, 셋째는 전민족적 통일기구의 조직방법에 대한 의견

86) 이정식·한홍구 엮음, 《항전별곡》(거름, 1986), 67~71쪽.

87) 전선협회가 결성되기 이전에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양대세력의 통합시도가 있기는 했었다. 그것은 1937년 11월에 김원봉이 민족전선을 결성하던 과정에서 김구의 광복전선에게 합류할 것을 권유했다가 거절당한 일이었다. 당시 김구는 김원봉 세력이 중국공산당에 접근해 있고 인민전선파적인 경향이 농후하다고 하여 합류에 반대했다(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625쪽).

88) 內務省 警報局, 《社會運動の狀況》11, 1047쪽.

이었다.<sup>89)</sup> 두 사람은 서두에서 과거의 투쟁이 통일된 단결력을 보이지 못하고 아울러 민족혁명의 전략적 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는 두 사람 모두가 조선민족의 해방이라는 대업을 완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그들은 10개 항목의 정치강령을 밝혔는데, 주요한 내용은 자주독립국가의 건설·민주공화제 건설·국가적 위기에 기업의 국유화·농민에 대한 토지 분배와 매매금지·노동시간 감소와 보험제도 실시·기본권 보장·의무교육 등이었다.

끝으로 두 사람은 중국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독립운동단체의 통일체 조직방법에 대하여 ‘연맹조직론’이 아니라 ‘단일당조직론’을 주장했다. 두 사람이 합의점을 마련함에 따라 한국혁명운동통일7단체회의(이하 7당통일회의)가 1939년 8월 27일 四川省 綦江에서 열렸다. 광복전선의 3당(한국국민당·재건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과 민족전선의 4당(조선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동맹·조선혁명자연맹·조선청년전위동맹) 등 7당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 김구·김원봉은 〈공개장〉에서처럼 연맹조직론의 단점을 들추면서 단일당 조직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족전선에 소속된 조선민족해방동맹과 조선청년전위동맹이 연맹조직론을 주장하면서 민족주의와 결합할 수 없음을 밝히고 결국 통일회의를 탈퇴함으로써 유회되고 말았다. 나머지 5당은 조직방식에 일치하고 있었으므로 공동으로 5당 통일조직을 먼저 완성하고, 다시 기타 소단체를 포괄하기로 수순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마저 곧 중단되고 말았는데, 당시 중국 국민당정부는 결렬원인을 통일당의 당의·정책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파악하였다.<sup>90)</sup> 이 외에도 논쟁의 초점은 협동전선의 조직방식 및 기본이념에 대한 차이와 임시정부의 위상에 관한 것이었다.<sup>91)</sup>

즉 7당통일회의가 결렬된 뒤, 5당회의에 의해 한 순간 전국연합전선협회가 결성된 것 같다. 1939년 9월 22일에 결성되었다고 전해지는 이 조직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민족혁명당이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해체되고 말았던 것으로

89)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637~640쪽.

90) 〈綦江韓國7黨統一會議經過報告書〉(《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89), 20~22쪽.

91)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국제환경》(한울, 2000), 271쪽.

보인다.<sup>92)</sup> 이것은 1920년대 후반기 유일당운동과 1932년의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그리고 양대 연합체의 결성과 이를 통합하려는 일련의 민족협동전선운동의 흐름을 또 한번 주저앉게 만든 일이었다.

#### 4) 양대 정당체제의 재현

##### (1) 한국독립당

1940년 5월에 민족주의 정당들이 통합하여 ‘韓國獨立黨’을 결성했다. 한국국민당·(재건)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 등 우파 3당의 합당추진은 진선협회 이전인 광복전선 시기부터 논의되던 일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완결되지 못한 단계에서 좌파세력과 단일당을 추진하면서 진선협회를 결성하기도 했으나, 곧 좌절되자 결국은 다시 우파 3당만의 통합을 추진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한국국민당에 비해 나머지 두 당의 정치노선이 약간 진보적이기는 했으나 큰 차이점이 없어 이론적 장애물이 없었다.

3당통합의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보다 진선협회의 결렬이었다. 광복전선과 민족전선의 통합체인 진선협회의 결렬은 민족주의 3당으로 하여금 그들만의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진선협회가 결렬된 직후인 1939년 11월에 임시정부 국무회의와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거쳐 그 해 말까지 3당통합을 실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독립운동방략>을 발표했다.<sup>93)</sup> 3당통합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그 다음 해인 1940년 4월에 시작되었다. 4월 1일 중경 아래에 있는 綦江에서 3당 대표회의가 열려 광복전선의 3당을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5월 8일에 3당은 <해체선언서>를 발표하고,<sup>94)</sup> 다음날인 9일에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것이 중경의 한국독립당이다.

통합한 한국독립당의 간부는 역시 3당의 간부들로 이루어졌다. 집행위원장에 김구, 집행위원에 홍진·조소앙·趙時元·이청천·金學奎·유동열·安勳

92) 한상도, 위의 책, 279쪽.

93) 三均學會, 《素昂先生全集》(횃불사, 1979), 136쪽.

94)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667~668쪽.

(趙擎韓)·송병조·엄항섭·金朋濬·楊墨·조성환·차이석·李復源 등이었다. 그리고 검찰위원장에 이동녕, 검찰위원에 이시영·공진원·金毅漢 등이었다.<sup>95)</sup> 이들은 김구·조완구·박찬익 등의 보수파와 홍진·조소앙 등의 진보파로 구성되었는데, 후자는 전자에 비해 민족혁명당 등 다른 정당·단체와의 합작문제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다.<sup>96)</sup>

3당 해체선언은 한국독립당이 임시정부 우파진영 정당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는 정신 아래, “3·1운동의 생명을 계승한 민족운동의 중심적 대표당임을 성명함”<sup>97)</sup>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당의 이념도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 진영에서 널리 수용되어 있던 삼균주의를 근간으로 이루어졌다. 黨義에 삼균주의 이론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혁명적 수단으로 일본침략세력을 박멸하고 국토·주권을 완전히 광복하며 정치·경제·교육의 평등한 기초 위에 신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것과 안으로 균등생활을 확보하고 밖으로 世界一家의 노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골자였다. 당강의 주요내용은 완전한 광복을 통한 대한민국의 건설, 보통 선거제 실시를 통한 정치적 균등, 토지와 대생산기판의 국유화를 통한 경제적 균등, 의무교육을 통한 교육적 균등, 그리고 광복군 편성과 의무병역 실시 등이었다. 또한 당책의 주요내용은 민족의 혁명의식 환기, 국내외의 민족혁명역량 집중, 광복군 편성,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전투의 확대, 임시정부의 옹호, 중국의 항일동맹군으로서의 구체적 활동 등이었다.<sup>98)</sup>

3당이 통합한 1940년의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 그 자체였다. 당의 간부가 임시정부의 국무위원과 임시의정원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당의 정책이 곧 정부의 그것이었다. 따라서 당의 구체적인 활동이 임시정부의 운영과 한국광복군의 결성으로 나타났고, 그제서야 당·정·군 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민족전선이 이 보다 2년 앞선 1938년 10월에 조선의용대를 조직했다. 이에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장교양성과 무장대의 편성 및

95)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2, 70쪽.

金 九, 《白凡逸志》(光明出版社, 1947), 345쪽.

96)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2, 66쪽.

97) 金正明, 《朝鮮獨立運動》II, 668쪽.

98)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2, 405~406쪽.

유격대의 조직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陝西省 西安에 군사특파단을 파견하였다.<sup>99)</sup> 이어서 1940년 4월에 3당통합을 위한 대표회의에서 중국영토 안에서 한국광복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중국정부에 승인을 요구하는 안을 결의했다.<sup>100)</sup> 다음 달인 5월에 장개석의 승인으로 준비는 진행되어 9월 17일에 重慶에서 광복군총사령부성립진례를 개최했다.

한국독립당은 한국광복군을 한국독립당의 ‘당군’이 아니라 한국의 ‘국군’임을 강조했다.<sup>101)</sup> 그리고 이들은 중국 각지에 있는 모든 한국인 무장부대를 규합하여 통일적인 지휘 아래 공동으로 항일의 행렬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일의 목표대상은 西安에 있던 나월환의 한국청년전지복무대만이 아니라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1940년 말에 이미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되었으나, 후자의 경우는 그 성립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고 동시에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무장세력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므로 오히려 광복군과 대결하는 구도를 보였다.<sup>102)</sup>

광복군을 조직한 한국독립당은 다시 1941년에 들어 발전단계와 <건국강령>을 마련하였다. 5월에 제1차 전당대표회의를 통해 復國・建國・治國의 발전단계와 정책을 제시한 뒤, 이어서 정당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정리되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이론을 정부의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고 수용하여 1941년 11월에 <건국강령>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과정은 당과 정부의 기능이 제자리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sup>103)</sup>

## (2) 조선민족혁명당

1939년 초부터 몰아친 제 정당・단체의 단일당 조직을 위한 노력이 실패하자 민족혁명당은 상당한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장개석의 적극적인 요구가

9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 884쪽.

100)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II, 740쪽.

101) 韓詩俊, 《韓國光復軍》(일조각, 1993), 88쪽.

102) 如松, <論朝鮮義勇隊在革命運動中的地位>(《朝鮮義勇隊》 37기-2주년특집호; 국가보훈처,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 8), 444쪽.

103)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 2, 156쪽.

수용되면서 추진되던 진선협회가 주저앉음에 따라 민족전선이 와해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광복전선이 우파만의 3당통합을 이룬 것과는 정반대로 민족전선을 형성하던 4당 가운데 2개 당이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다. 이것은 곧 김원봉의 민족전선 장악력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민족혁명당이 비록 진선협회에서 탈퇴했지만 그 이전만큼 민족전선의 구성단체들에게 지도력을 미칠 수 없었다. 그러한 구체적인 증상이 그 해 말부터 다음 해인 1940년 말까지 조선의용대의 분열인데, 3분의 2가 넘는 병력이 화북지역으로 이동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의용대의 분열이란 결국 김원봉의 민족혁명당과 조선청년전위동맹의 괴리를 의미한다.<sup>104)</sup> 조선의용대는 1939년 말에 세 개의 지대로 개편되었다. 이 가운데 申岳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민족해방동맹원으로 이루어진 제1지대 50명이 1940년 3월에 洛陽으로 북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해 말에 2지대도 북상하였으며, 민족혁명당 본부의 제3지대도 1941년 3월 상순에 낙양에 도착하였다. 중경에서 파견된 제3지대는 앞서 이동한 부대들을 김원봉이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 보낸 핵심부대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황하를 건너 간 조선의용대 병력은 결국 중국국민당 작전지역을 뚫고 팔로군 지역으로 이동하였다.<sup>105)</sup> 그러므로 김원봉이 장악하고 있던 조선의용대는 사실상 주력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한편 최창익과 달리 민족혁명당에 남아 있던 한빈은 김원봉으로부터 무기정권 처분을 받아 10여 명을 이끌고 1940년 여름에 민족혁명당을 탈당했다. 그는 김성숙·박건웅·李貞浩와 함께 그 해 말 조선청년전위동맹과 조선민족해방동맹을 합류하여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을 결성하였다.<sup>106)</sup> 이로써 민족혁명당은 크게 약화되었고,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4) 조선의용대의 분열원인은 김원봉의 민족좌파적인 사상성향과 전위동맹의 공산주의성향, 파벌적 갈등, 중국공산당과 군의 발전에 따른 충돌 및 활동근거지의 확보가능성 등인 것으로 일제 관헌은 분석했다(《特高月報》, 1942년 3월호, 211쪽).

105) 엽인호, 《朝鮮義勇軍 研究》(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994), 87~95쪽.

106) 엽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나남출판, 2001), 102쪽.



## 5) 임시정부로의 합류

## (1) 한국독립당

중경시대 독립운동정당은 1942년 10월에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합류하면서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940년 통합 한국독립당이 성립되면서 임시정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했지만, 이 때부터는 강력한 야당을 대응세력으로 두는 여당이 된 것이다. 한국독립당이 출범한 1940년 5월부터 1943년 5월까지 3년 동안은 김구가 집행위원장을 맡는 소위 ‘김구체제’였다.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합류하면서 조소앙·홍진 등의 진보적인 인물이 대두하게 되었는데, 1943년 5월 8일에 개최된 제3차 전당대표대회에서 조소앙이 중앙집행위원장이 됨으로써 제2기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조소앙이 위원장을 맡기는 했으나 김구가 계속하여 財政權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구의 세력은 지속되었다. 그리고 1945년 7월 제4차 전당대표대회에서는 위원장에 김구, 부위원장에 조소앙을 선출하여 소위 ‘김구·조소앙체제’를 이루었다.

당·정 관계도 민족혁명당이 합류하면서 당연히 크게 바뀌었다. 한국독립당과 임시정부의 관계는 1943년 1월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무력은 광복군에, 정치·외교는 정부로 집중하여 독립운동을 일원화한다고 정리되었다.<sup>107)</sup> 민족혁명당의 합류 이전에는 한국독립당의 간부가 임시정부의 직책들을 겸직하여, 당은 바로 정부 그 자체였지만, 이제는 그 성격이 바뀌어 야당에 대응되는 개념의 여당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sup>108)</sup>

이 과정에서 한국독립당은 분열의 양상도 보였다. 그것은 국무위원 배분문제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1943년 10월에 유동열이 이탈하여 조선민족혁명통일동맹을 조직했고, 이어서 1944년에 들면서 의정원 의장 홍진과 부의장 최

107)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1973), 420쪽.

108) 이러한 모습은 국무위원이나 의정원 의원의 수치를 통해 나타났다. 그 예로 민족혁명당 참가 직후의 국무위원은 11명인데, 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이 각각 9석과 2석을 차지했고 의정원 의원수도 57석 가운데 25석과 13석을 각각 차지했던 사실을 들 수 있다(胡春惠, 앞의 책, 133쪽).

동오가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맡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탈당하여 ‘신한민주당’을 결성하는 등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sup>109)</sup> 한국독립당의 이념은 앞에서 본 것처럼 삼균주의를 근간으로 삼았다. 그것은 대내적으로 민족내부에 정치·경제·교육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모순을 제거하고 대외적으로 세계인류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을 실현함으로써 평화를 파괴하는 화근을 제거하는 것이었다.<sup>110)</sup>

한국독립당의 구성원 가운데 박찬익·조완구 등의 보수파는 사회주의에 대해 거부하는 자세를 보였다. 비록 당강에서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를 선언하여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나타내기는 했어도, 이들의 기본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이들이 무산계급에 의한 계급혁명을 반대한 논거는 식민지 상태에 있는 국가에게 민족모순이 계급모순에 우선한다는 것, 국가와 민족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혁명이 이를 부인함으로써 민족혁명을 파괴한다는 것, 무산계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속한 국가와 민족의 상황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 등이었다. 따라서 민족연합을 결성하는데 있어서도 이들 세력을 배제하고 민족혁명을 우선시하는 인사들만의 연합을 주장했던 것이다.

한국독립당의 조직변천상의 특징은 상층조직만으로 유지되었다는 것, 한국교민만을 조직기반으로 하고 대중조직을 지향하지 못했던 것, 다른 정당·단체와의 전선연합에서 극히 배타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 등이었다.<sup>111)</sup> 아울러 한국독립당이 가진 역사적 의미는 임시정부의 바탕이 되고 이를 강화하여 장차 민족혁명당을 비롯한 독립운동을 위한 정당과 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는 기초를 마련한 데 있다.

109) 유동열 등의 탈당자 17명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당을 위하여 당을 需要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익을 위하여 당을 수요하는 것이며, 통일을 위하여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익을 위하여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2, 161쪽). 유동열은 당을 이탈하여 조직을 선언했던 조선민족혁명통일동맹을 취소하고 신한민주당을 조직했다(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2, 188~189쪽).

110)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2, 141~142쪽.

111) 노경채, 앞의 책(1996), 234쪽.

## (2) 조선민족혁명당

민족혁명당은 1939년 말에서 1940년 말까지 한빈·이정호 등이 탈당하고 조선의용대가 화북지역으로 북상함에 따라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1941년을 전후하여 여러 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바꾸어 임시정부만을 유일한 지원대상으로 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때문에 민족혁명당은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여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이틀 뒤인 1941년 12월 10일에 개최된 제6차 전당대표대회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참여를 결의하고 한국독립당과의 통일협상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대회선언에서 “종래에는 임시정부에 대해 不關主義를 취해 왔으나 내외의 정세가 변하여 지난 5월 제5기 제7차 중앙의회에서 종래의 불관주의를 포기하고 임시정부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sup>112)</sup>

1942년 10월 25일에 개최된 제34차 의정원회의에서 부족한 23명의 의원을 보선하는 과정에 민족혁명당의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sup>113)</sup> 그리고 9명이었던 국무위원수를 11명으로 늘렸는데, 민족혁명당의 金奎植과 張建相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sup>114)</sup> 이어서 1943년 10월에 열린 제35차 의정원회의에서는 의원 48명 가운데 24석을 차지한 한국독립당을 이어, 민족혁명당이 12석을, 그리고 조선민족해방동맹 등 다른 세력이 나머지를 차지했다.<sup>115)</sup> 민족혁명당은 약세를 만회하기 위해 단일당을 향한 통일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통일의 조건에 있어 심한 차이를 보이자, 민족혁명당을 탈당했던 세력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43년 2월에 있는 제7차 전당대표대회에서 민족혁명당과 한국독립당통일동지회·조선민족혁명당해외전권위원회·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의 4당통일을 결의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임시정부의 확대·강화를 비롯한 지부 확충 등의 중요사업을 결정했다.<sup>116)</sup> 이와 아울러

112)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 2, 211쪽.

113) 重慶《大公報》, 民國 31年(1942) 10월 26일(趙中孚·張存武·胡春惠編, 《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 4, 臺北:國史館, 1987), 462쪽.

114) 胡春惠, 앞의 책, 120쪽.

115) 胡春惠, 위의 책, 122쪽.

1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資料集》 7, 208쪽.

러 민족혁명당은 임시정부의 일원으로서 한국독립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1945년 6월 11일 한국독립당에 임시정부 재정의 공개, 비밀외교 정지, 미국 의존 금지, 광복군 인사의 양당 사전 협의, 광복군 제반사항에 대한 총사령·참모장의 사전 협의 등을 요구했다.<sup>117)</sup>

민족혁명당의 조직은 역시 한국독립당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제였다. 전당 대표대회가 최고의 권력기구였고, 그 아래에 중앙집행위원회가 있고, 또 그 아래에 각부가 있었다. 조직과 간부를 보면 1944년의 경우, 주석에 김규식, 총서기 김원봉, 비서처 주임 申基彦, 조직부장 金仁哲, 선전부장 孫斗煥, 재정부장 成玄園, 통계부장 申榮三, 미주 총지부장 金剛, 미주지부 총서기 李慶善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한국독립당의 경우와 다른 점은 주석이 큰 힘을 갖지 못하는 반면에 모든 권한과 대외사무를 총서기가 담당했던 점이었다.<sup>118)</sup>

민족혁명당은 비교적 공산주의에 접근한 이념을 갖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조선민족해방동맹 등의 공산당계통과 행동을 같이 하였고 투쟁강령에서도 반제국주의, 봉건잔여세력의 타도, 토지혁명, 노동시간 단축 등을 강조하고 한국독립당이 취한 자유경제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민족혁명당은 1942년 12월 제6차 전당대표대회에서 정강을 채택했다. 그 내용은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 수립, 국민헌법 제정과 보통선거제 실시, 토지혁명 단행, 부녀권리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보험, 반파시스트 조선인 기업가 보호육성, 기본권 보장 등이었다.<sup>119)</sup> 이를 통해 민족혁명당이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소자산 계급을 기초로 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3)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연원은 1929년 10월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에 이르는

117)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 83쪽.

이 요구 가운데 미국에 附庸하지 말라는 것은 국내로의 침투를 위해 서안에 있던 미국공군으로부터 한국광복군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론이었다. 민족혁명당이 전쟁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데서 나온 주장으로 보인다.

118) 胡春惠, 앞의 책, 209쪽.

119)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 2, 209~210쪽.

다. 유호동맹원 가운데 일부가 민족혁명당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중국공산당원으로 활동하였다.<sup>120)</sup> 민족혁명당에 가담했던 세력이 1936년에 이를 이탈하여 김성숙과 박건웅을 중심으로 조선민족해방동맹을 조직했다. 김성숙 등은 김원봉의 독주로 이루어지는 민족혁명당의 운영에 불만을 갖고 이를 이탈하여 동맹을 조직했는데, 그 구성원들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은 인물들로 이루어졌다.<sup>121)</sup>

이 동맹은 1937년에 조직된 좌파의 연합조직인 민족전선에 합류했다. 이어서 이 동맹은 1939년 9월 7당통일회의에서 조직방법론의 차이를 내세워 조선청년전위동맹과 함께 이탈하였고, 1940년 말에는 한빈과 이정호 그리고 조선청년전위동맹과 합류하여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을 조직했다. 그 뒤 한빈과 조선청년전위동맹원으로 구성된 조선의용대 1·2지대가 화북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자, 1941년 12월 1일에 임시정부의 지지를 선언하고 이에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김성숙은 1942년에 내무차장, 1943년에 국무위원이 되었다. 당시의 주요구성원은 김성숙을 비롯하여 박건웅, 신익희의 사위였던 金載浩(일명 胡建)와 그의 아내 申貞琬 등이었다.<sup>122)</sup>

이 동맹의 성립이 갖고 있는 의의는 중국국민당 지구 내에 있던 공산주의자를 조직적으로 통일했던 점과 국제정보다는 민족혁명을 우선하여 임시정부를 강화시켰던 점이다. 한편 화북지역의 조선독립동맹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데에 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중국에서의 한국 무정부주의운동은 1924년에 조직된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sup>123)</sup> 그 뒤 1930년 4월 20일에 柳子明·張道

120) 金正柱, 《朝鮮統治史料》 10(東京: 韓國史料研究所, 1975), 868쪽.

121) 김성숙은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대다수 중국공산당원이 된 상태인데, “중국공산당에 들지 않은 채 조선의 공산운동이나 조선의 혁명에 몸 바치려는 동지를 규합”하여 조직했으며, 이것은 공산주의보다 조국의 해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李庭植·金學俊,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民音社, 1988, 100쪽).

122) 李庭植·金學俊, 위의 책, 115쪽.

정정화, 《녹두꽃: 여자 독립군 정정화의 낮은 목소리》(未完, 1987), 162쪽.

123) 李庭植·金學俊, 위의 책, 274쪽.

善·鄭海里·柳基石 등이 남화한인청년동맹을 조직하여 결성했다.<sup>124)</sup> 이어서 1931년 11월에는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과 연합하여 흑색공포단을 결성하고 “현사회 대부분의 권력을 부정하고 세계 전인류가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수 있는 신사회의 수립”<sup>125)</sup>을 강령으로 내걸고, 1933년 3월에 六三亭 의거를 일으키는 등 많은 활약을 보였다.<sup>126)</sup>

유자명을 비롯한 무정부주의자들은 1937년에 남화한인청년동맹을 이어 조선혁명자연맹을 조직했다. 그리고 이들은 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동맹과 함께 민족전선을 결성했다. 또 1939년에는 진선협회에 가입하였고, 1940년 말에는 무정부주의 청년지도자인 나월환이 이끄는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한국광복군 제5지대로 개편되었다. 조선혁명자연맹은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으로 명칭을 바꾸고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그리하여 1942년 10월에 있는 제34차 의정원회의에서 유자명과 柳林이 의원이 되었고, 이 가운데 유림은 1945년 4월 제38차 의정원회의에서 다시 국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들은 독립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항일투쟁을 전개했지만 주도세력이 되지 못했다. 이념과 투쟁방법의 한계성 때문인 듯하다.<sup>127)</sup> 그러나 무정부주의 세력이 민족전선에 참여한 일시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한국독립당이나 임시정부와 관계를 긴밀하게 가지는 특성을 나타냈다.

##### (5) 신한민주당

新韓民主黨은 1945년 2월 7일에 한국독립당에 불만을 갖고 있던 인물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그 주요인물은 한국독립당에 합류했던 조선혁명당 출신의 유동열과 최동오, 재건 한국독립당 출신의 홍진,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던 소장파의 安原生, 그리고 민족혁명당에 불만을 갖고 이탈한 김봉준·신기

124) 金正柱, 《朝鮮統治史料》 10, 801쪽.

125) 金正柱, 《朝鮮統治史料》 10, 871쪽.

126) 六三亭의거는 白貞基와 李康勳이 유자명의 지도를 받아 상해의 중국요리점인 육삼정에서 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말한다.

127) 신일철, 〈한국무정부주의운동〉(《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534쪽.

언·신영삼 등으로 특히 민족혁명당 이탈자가 많았다.<sup>128)</sup>

신한민주당의 조직은 3명으로 구성된 주석단 아래에 4명의 상무위원을 두고 그 아래에 4부를 둔 체제였다. 주석단의 구성원은 의정원 의장 홍진과 참모총장인 유동열 그리고 김봉준이었고, 상임위원이 4개 부의 부장을 맡았는데, 신기언이 비서부장, 金元叙가 조직부장, 안원생이 선전부장, 유진동이 재무부장을 맡았다. 그리고 집행위원은 손두환·이광재·신영삼 등이었다.<sup>129)</sup>

신한민주당의 강령은 한민족의 역량을 동원하여 일제를 전복하고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과 자유와 평등의 원칙 하에 민주주의 신세계를 건설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리고 기본정책으로는 조국광복 후에 국민대표대회를 소집하여 공화국의 헌법과 국호 등을 제정하고 일제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었다.<sup>130)</sup> 이를 통해 신한민주당이 임시정부에 대한 한국독립당이나 민족혁명당의 기득권을 부정하고자 했던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한민주당은 조직된 지 반년 만에 독립이 됨으로써 특별한 활동이나 세력의 확장을 이루지 못하였다.

## 6)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정당의 특성

1930~1940년대에 임시정부는 주변의 여러 정당조직에 의해 유지되거나 견제되는 현상을 보였다. 더러는 임시정부를 사수해 나가는 정당이었고, 또 더러는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있었다.

1920년대 후반의 유일당운동을 계승한 정당조직들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하나는 이당치국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당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독립운동도 전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독립운동정당’이라 일컫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민족단일대당으로 조직된다면 임시정부는 대권을 그 기관에 넘긴다고 약헌에 못박기까지 하였다. 또 하나는 민족협동전선·민족통일운동·민족통일전선운동·좌우합작 등으로 불리는 통일운동이었다.

128)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2, 189쪽.

129) 위와 같음.

130)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2, 188쪽.

1930~1940년대의 정당들을 정리하면, 몇 단계로 나뉜다. 1930년 한국독립당 결성을 전후하여 의열단도 정당으로 변신하였고, 신한독립당·조선혁명당이 자리잡았다. 유일당운동이 깨지면서 중단된 통일운동은 다시 1932년 이후 추진되다가, 1935년 민족혁명당이 결성됨으로써 일단 결실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것은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유지세력이 불참한, 불완전한 것이었다. 게다가 바로 이탈세력이 생겨 통일운동은 일단 허물어졌다. 그 결과 김구 중심의 한국국민당과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이라는 양대 정당시기를 맞았다

양대 정당은 1937년 중일전쟁을 맞으면서 강력한 연합체를 만들어 갔다. 광복전선과 민족전선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두 거대 연합체는 다시 통합노력에 들어갔고, 1939년에 7당·5당 통일회의를 거치면서 일순간 진선협회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일단 완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렇게 되자, 우파만의 통합체인 (중경)한국독립당이 1940년에 결성되어 임시정부의 여당이 되었다. 당(한국독립당)·정(임시정부)·군(한국광복군)의 완성된 체제를 갖춘 것이다. 민족혁명당과 양대 정당체제가 다시 형성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 상황이 급박해지고 중국 국민당정부가 통합을 요구함에 따라 그 동안 임시정부를 부인하던 민족혁명당이 1942년에 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 주변 군소 정당은 이 보다 앞서 임시정부에 합류함으로써 1942년 이후 임시정부는 중국관내 독립운동세력이 명실상부하게 집결한 구심체가 되었다.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벌인 독립운동정당은 우선 단체 성격 자체에서 발전적인 성향을 보였다. 여러 성격의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존재하다가 1930년 이후에는 정당조직이 대표성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정당은 임시정부의 철저한 유지세력과 반대세력으로 구성되었는데, 의견의 차이를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통일운동이 전개되었다. 1942년부터 모든 정당들이 임시정부에 합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192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된 정당결성과 통일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처럼 통합된 모습으로 광복을 맞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 2. 만주지역 독립군의 무장투쟁

1930~1940년대 초반 만주지역(중국동북)에서 한민족이 전개한 항일무장투쟁 등 여러 형태의 민족해방운동(독립운동)은 1931년 9월 일본제국주의의 만주 침략이 본격화하면서 여러 주체세력에 의해 다양하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30~1940년대 초 在滿韓人들의 일본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일련의 저항과 투쟁은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사와 한국근대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근·현대사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 만주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은 우리 민족 단독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국민당 계열의 중국의용군과 항일대중, 중국공산당 만주지부조직 등 중국측 지원세력과 연계되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이곳에서 전개된 1930~1940년대 초 한인들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연구는 중국(연변)이나 북한은 물론 한국에서도 적지 않게 진행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만주지역에서 재만한인들이 전개한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치 못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1930년대 이후 우리민족이 치열하게 전개한 만주지역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은 별로 없었거나 30년대 초반을 고비로 쇠퇴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1930년대 재만한인들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여러 지역의 연구경향은 연구자들의 입장이나 사관의 차이, 이념적 제약 등에 따라 연구대상이 되는 단체나 인물·시기,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활동내용, 투쟁방법론 등의 분석과 평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연변지역과 한국·일본 학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한다.

1930~1940년대 초의 무장투쟁은 크게 보아 세 계열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남만주에서 國民府와 朝鮮革命黨 산하의 무장조직으로 성립된 조선혁명군,<sup>1)</sup> 북만주에서 韓族自治聯合會와 한국독립당의 산하무력으로 창

건된 한국독립군,<sup>2)</sup> 그리고 중국공산당 滿洲省委員會 산하 무장조직으로 편성·발전된 동북인민혁명군(후일의 東北抗日聯軍) 내<sup>3)</sup> 한인 세력이 바로 그것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공산당 조직의 구성원으로 동북인민혁명군(동북항일연군)에 가담하여 일제와 투쟁한 한인들의 활동을 독립운동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발간된 중국의 대표적 단행본은 동북항일연군이 실질적으로 중국과 한국(조선) 양민족의 연합부대였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sup>4)</sup> 또 최근 한국에서 출판된 개설서와 시대사료 서적에도 이들의 활동을 우리 민족해방운동사로 인정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sup>5)</sup>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대에 개

- 1) 조선혁명군과 조선혁명당·국민부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 아래의 성과를 들 수 있다.

黃龍國, 〈‘조선혁명군’ 역사에 대하여〉(《國史館論叢》 15, 국사편찬위원회, 1990).  
張世胤, 〈조선혁명군 연구—몇 가지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0).

——, 〈在滿 조선혁명당의 성립과 주요구성원의 성격〉(《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1996).

——, 〈조선혁명군정부 연구〉(《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1997).

——, 〈國民府 研究—성립 및 憲章, 자치활동을 중심으로〉(《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1998).

——, 〈在滿 조선혁명당의 민족해방운동 연구〉(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7).

慶倫鎬, 〈조선혁명당의 성격 연구〉(《釜大史學》 19, 1995).

曹文奇, 《鴨綠江邊的抗日名將梁世鳳》(瀋陽:遼寧人民出版社, 1990).

——, 《同仇敵愾—遼東, 吉南地區朝鮮族抗日鬭爭史》(撫順:撫順市社會科學院新賓滿族研究所, 1998).

辛珠柏,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1945)》(아세아문화사, 1999).

- 2) 한국독립당 및 한국독립군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

박 환, 〈在滿 한국독립당에 대한 一考察〉(《韓國史研究》 59, 1987).

黃龍國, 〈조선독립군의 무장항쟁(1931~1937)〉(《한국무장독립운동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988).

장세운,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연구〉(《한국독립운동연구》 3, 1989).

- 3) 李德一, 《東北抗日聯軍 研究》(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98).

- 4) 《東北抗日聯軍鬭爭史》編寫組, 《東北抗日聯軍鬭爭史》(北京:人民出版社, 1991, ‘出版說明’) 참조.

- 5)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은 책이 있다.

망원한국사연구실, 《한국근대민중운동사》(돌베개, 1989).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편, 《한국사특강》(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별적으로 가입하여 일제와 투쟁한 한인들의 투쟁사를 우리 민족운동사의 한 부분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조국광복회와 동북항일연군의 실상 및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일부 논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즉 일부 연구자들이 동북항일연군의 민족연합적 성격을 부정하면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다.<sup>6)</sup> 그러나 필자는 동북항일연군 역시 한민족 민족해방운동의 한 범주로 파악해야하며, 조국광복회 역시 1930년대 만주지역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주요 결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비중으로 서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동북항일연군내 한인들의 투쟁과 조국광복회를 일정하게 우리 독립군 활동의 한 범주로 수용코자 한다. 따라서 1930년대 이후 만주지역 독립군의 무장투쟁을 위의 세 계열 무장세력 및 관련조직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기로 한다.

## 1) 조선혁명군의 성립과 항일무장투쟁의 전개

### (1) 조선혁명군의 성립과 초기 활동

#### 가. 조선혁명군의 성립

1920년대 후반에 추진되었던 민족유일당 조직운동과 만주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던 정의부·참의부·신민부 등 민족운동 단체의 통합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그러나 남만주지방에는 국민부가 성립함으로써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역사비평사, 1992).

강만길 외, 《한국사》 16(한길사, 1994).

강만길, 《고쳐쓴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9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사전》 총론편(독립기념관, 1996).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엮음, 《한국독립운동사강의》(한울아카데미, 1998).

강만길, 《통일지향 우리 민족해방운동사》(역사비평사, 2000).

6) 李德一은 〈民生團사건이 동북항일연군 2군에 미친 영향〉(《한국사연구》 91, 1995); 〈동북항일연군 창설배경에 관한 연구〉(《崇實史學》 9, 1996); 《동북항일연군 연구》(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98) 등 일련의 연구를 통해 동북항일연군은 어디까지나 중국인 주도의 '계급연합부대'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여러 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써 이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국민부는 종전의 정의부를 주축으로 하여 신민부 民政派 계열과 참의부 沈龍俊 계열의 인사들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단체로서 1929년 4월에 성립하였다.

국민부는 이 해 6월 본부를 吉林에서 興京(1929년 이후 신빈으로 개칭)으로 옮겼다. 이 무렵 국민부의 중앙집행위원장은 玄益哲이었는데, 그 아래 民事·경제·외교·군사·교육·법무·교통 등의 7개 위원회가 있었다. 군사위원회(위원장 李雄, 본명 李俊植)에는 군사부와 사령부를 설치하고 각각 병무·훈련·경리·군수·인사과와 부관·참모·작전·훈련·경리·인사 등의 여러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또 엄정한 군법의 시행을 위해 軍法局을 두어 군법의 처리를 전담케 하였다.<sup>7)</sup>

조선혁명군 창건시의 규모와 편제, 인적 구성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본 관헌의 정보기록을 토대로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즉 1929년 4월 이후 정의부를 주축으로 하여 국민부가 조직됨에 따라 정의부 소속 독립군 부대를 주축으로 하여 조선혁명군이 새롭게 개편되었던 것이다. 같은 해 5월 말 종래 정의부에 소속되었던 6개 단위부대를 개편하고 참의부와 신민부에 있었던 일부 병력을 통합하여 새로운 부대로 재편한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7) 金承學 編, 《韓國獨立史》(독립문화사, 1966), 389쪽.

8) 〈昭和 6年 5月末 朝鮮總督府 警務局 調, 國民府ノ狀況〉(日本山口縣文書館 소장 林家史料), 6~7쪽.

같은 해 7월 경 조선혁명군 편성과 담당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68, 790~791쪽; 〈昭和 4년 9월 4일 朝保秘 第1659號 朝鮮革命軍新組織に關する件〉, 1~2쪽).

제1대 대장 李東勳, 寬甸 동·서 지방

제2대 대장 張喆鎬, 通化 동·남 지방

제3대 대장 柳光屹, 輯安 동·서 지방

제4대 대장 李允煥, 桓仁·撫順·本溪·興京지방

제5대 대장 梁世鳳, 집안 서부 일부 및 통화 남부 지방

제6대 대장 金文學, 柳河·海原 지방

제7대 대장 趙雄杰, 樺甸·撫松·磐石 지방

제8대 대장 權永祚, 吉林·額穆·五常·安圖 지방

제9대 대장 安鵬, 길림·길림 서부·懷德 지방

제10대 대장 金京根, 長白·臨江 지방

창건 초기 조선혁명군 각 부대 및 전체의 병력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실히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무렵 1대의 규모를 30명 정도로 파악하는 일제측 자료가 있기 때문에<sup>9)</sup> 초기 조선혁명군의 전체 숫자는 약 300명 정도로 추측된다. 담당구역을 보면 남만지역은 물론五常縣 등 일부 북만지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세력범위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 북간도(연변)와 북만주 지역을 포함한 남만주의 주요 지역이 망라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창기 국민부와 조선혁명군의 準自治 및 작전구역이 주로 남만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혁명군은 출범 직후부터 대원을 모집하고 각 단체에서 통합된 병력을 재편성하여 새로운 진용을 갖추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참의부에 소속되었던 부대는 별도로 편성되었다.<sup>10)</sup>

한편 재만한인들의 상당한 기대 속에 출범한 국민부는 1929년 9월 하순 제1회 중앙의회를 열어 장래의 방침을 결정하고 3부통일회의에서 제정한 강령 및 헌장의 일부를 개정했으며, 중앙간부를 선거하였다. 이로써 국민부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은 혁명(독립운동)과 자치를 분리하여 혁명사업을 ‘민족유일당조직동맹’에 맡기고, 국민부는 자치행정만 전담키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중앙기관 중 군사부를 폐지하고 조선혁명군을 민족유일당조직동맹에 속하게 한다는 것이었다.<sup>11)</sup> 그런데 같은 해 12월 20일 민족유일당조직동맹의 발전적 형태로 ‘조선혁명당’이 창립되었다. 이에 조선혁명군도 이 당에 소속하게 되었다.

조선혁명당은 비록 독립운동가들의 합의에 의한 ‘민족유일당’은 아니었지만, 남만주 일대의 유력한 정당으로서 ‘以黨治國’의 원칙에 입각한 혁명운동사업(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완성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다. 조선혁명당은 남만주 한인 사회의 자치행정기관인 국민부, 그리고 무장조직으로서 군사 임무를 전담하는 조선혁명군과 표리일체의 기관으로서 추후 국민부와 조선

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0(1976), 483쪽.

10) 《조선일보》, 1929년 8월 30일.

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5, 725쪽.

혁명군을 영도하였다.

#### 나. 투쟁목표와 이념

조선혁명군은 조선혁명당의 지휘통제를 받는 당군이었다. 이 독립군 부대는 조선혁명당의 결의에 따라 1929년 12월 20일 조직의 내용과 편제를 크게 개편하였다. 이 때 군사위원회에서 총사령에 李辰卓, 부사령에 梁世奉, 참모장에 이웅이 선출되었다. 또 종전의 10개 부대가 7개 부대로 개편되는 한편 담당구역도 재조정되었는데, 주목되는 변화는 길림·액목·오상 등 북방구역이 제외되고 東滿 지방이 새로 추가된 점이었다.<sup>12)</sup>

그 이유는 그곳이 본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또 북만주의 葦河·오상 일대에서 한족총연합회와 生育社 등 기초 지역 출신 민족주의계 인사들이 그곳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연유도 있었다. 동만 지역이 추가된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동만지역은 일제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던 지역이었으며, 1920년대 후반 이후 공산주의운동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조선혁명군이나 국민부의 활동이 만만한 지역은 아니었다.

이 무렵 조선혁명군은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각 지역에 분산배치되어 있었다. 이는 재만한인들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다수의 병력이 집중되면 충분한 보급지원을 할 수 없던 원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포사회의 보호와 독립전쟁의 수행, 의무금 징수 등 다른 필요성에 따라 각 지방에 분산 배치되기도 했다.

조선혁명군 창립 초기의 투쟁목표와 이념 등은 창립시 발표된 선언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sup>13)</sup> 우리는 이 선언문을 통해 조선혁명군 등 만주 독립

1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1973), 592~593쪽.

13) 그 선언서의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姜德相·梶村秀樹 編, 《現代史資料—朝鮮 5》 29(東京:みすず書房, 1972), 636~637쪽.

〈昭和 5年 吉林地方朝鮮人事情に關する件〉(일본외무성·육해군성 문서, 국회도서관 소장 복사제책본 제2299권), 10009~10010쪽.

군의 임무가 친일파 숙청과 교민보호, 국내 진입작전 전개에 의한 일제 기관 파괴, 일제 관련 및 악덕부호 응징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악질부호’를 응징해왔다고 선언한 점이다. 이는 만주 독립군이 단순히 항일투쟁만을 전개했던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민족해방투쟁에 협조하지 않는 지주나 부호들도 처벌하는 등 계급투쟁 성격을 띠는 활동도 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조선혁명군의 경우 활동범위 내에 거주하는 가난한 한인 농민들을 구제하는 活貧사업도 수행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주목된다.<sup>14)</sup>

또 이를 통해 조선혁명군이 1920년대에 부단히 계속되었던 독립군의 항일 무장투쟁을 계승한 정통 무장조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철저한 무장폭력투쟁 노선을 견지하면서 제1의 투쟁목표를 우리 민족의 독립국가 건설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진입작전과 함께 국내 대중과의 연대에 의한 총궐기 방략을 주요 투쟁방략으로 삼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14) 조선혁명군(1934년 말 이후 조선혁명군정부)의 활동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反封建闘爭 또는 계급투쟁적 성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이다. 즉 조선혁명군에서는 한인 농민중 극빈자들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어 구제하는 등 일종의 활빈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징수하는 형식으로 부를 재분배하거나, 민중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악질적 부호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조선혁명군 대원들의 대부분이 궁핍한 농민 등 하층계급으로 구성되었던 사정과 관련된 것이다(〈新派秘 第342號 昭和12年 6月 19日 在新京服部昇治 朝鮮總督府 警務局長殿 朝鮮革命軍の狀況に關する件〉795・797쪽 및 〈滿洲に於ける中國共產黨と共產匪〉, 《思想情勢視察報告集》6, 京都: 東洋文化社, 1973, 87쪽). 또 국민부나 조선혁명당에서 민족운동에 종사하던 주요 지도자들 역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사실은 이 조직을 이끌었던 주요 지도자 후손들의 증언으로도 증명된다. 예를 들면 국민부 위원장을 지낸 梁基瑕는 집 한칸없이 여기저기 유랑하였고, 입을 옷이 없어 남의 옷을 빌어입는 경우도 비밀비재하였다고 한다(손녀 梁寬玉씨 -46세- 증언, 1997년 1월 22일 서울 자택에서 청취). 또 신빈 등지에 거주하며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鄭承國翁 역시 비슷한 증언을 하였다(1991년 11월 21일 중국 瀋陽에서 청취). 왜냐하면 남만지역은 연변지역과 달리 韓人들에게 토지소유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은 소작농민의 처지와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때문에 기존의 일부 연구(黃龍國)처럼 국민부와 조선혁명당·군의 성격을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개념으로 평가하는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때 발표된 조선혁명당의 선언서는 ‘조선’의 절대독립 완성과 함께 노동민주정권의 확립, 대기업의 국유화, 대토지의 몰수와 농민에 대한 분배 등을 내세우며 다분히 좌경화된 내용을 밝혔다. 때문에 조선혁명당이<sup>15)</sup> 한인 대중의 광범한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30년 8월 경 국민부와 조선혁명당·군 내부에서 독립운동 및 자치의 방법론 등을 둘러싼 노선투쟁과 이념대립이 폭발하기 전까지 조선혁명군의 초기 활동은 鮮民府 등 일제 주구기관 및 친일파 처단, 국민부 의무금 징수 및 군자금 모집, 독립군 모병, 반공활동 등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활동은 국민부와 조선혁명군의 근거지인 남만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군자금 모집과 관련해서는 평안북도나 함경남도 등 국내에 대원을 밀파해서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실 조선혁명군의 성립 초기에는 일본 군경과의 직접 대결이나 국내진입 작전과 같은 독립전쟁 형태의 투쟁 비중이 크지 않았다. 이는 아직 조직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고 국내외적으로도 여건이 성숙치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시기 국민부와 조선혁명군 계열의 활동 가운데 항일무장투쟁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sup>16)</sup> 잘못된 것이다.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에 걸쳐 만주지역에 공산주의운동이 점차 확산되면서 한인 주도의 공산주의운동이 점차 활발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민족주의계열의 민족해방투쟁을 압도할 정도로 그 세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민족주의자들 가운데도 공산주의사상에 동조하고 전향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사실 국민부와 조선혁명당·군 역시 창건과정부터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참여했고, 민족해방운동 및 한인교포 사회의 진로와 방법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하였다. 이는 공산주의자와 이에 동조하는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비판세력이 무시

1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0, 478쪽.

16) 黃龍國, 앞의 글(1990), 233쪽.



못할 정도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민족주의자(국민부와 조선혁명당·군 지지파)와 공산주의자 등 반대세력(국민부 반대파) 사이에 당·정·군의 진로와 운동방향을 둘러싸고 일대 충돌이 일어났다.

이러한 내부갈등으로 1930년 11월 경 조선혁명군 사령관이 공석이 되고 당시 5중대장으로 있던 李鍾洛 등의 소부대가 북만주 지부조직에서 이탈하여 ‘조선혁명군 吉江指揮部(나중에 동방혁명군, 世火軍으로 개명)’를 조직하는 등 일대 격변이 일어났다.<sup>17)</sup> 특히 북만주 일대를 관장하고 있던 이종락의 이탈은 국민부와 조선혁명당 세력의 북만 장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부와 조선혁명당·군은 진용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10월 하순 조선혁명당 군사위원장 현익철이 총사령을 겸임하고 부대를 재정비 강화하였다. 이러한 내부투쟁 과정을 거쳐 조선혁명군은 조선혁명당과 국민부를 옹호하던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1934년 경까지는 대체로 반공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 (2) 중국의용군과의 연합항전과 변천

### 가. 한중연합항전

중국 동북에서 활동하던 민족운동가들은 한국이 일제에 병합된 뒤 지속적으로 중국 동북의 군벌과 국민당 정권에 한중연합항전을 호소했다. 실제로 1931년 6월 경 국민부 吉黑특별위원회 위원장 金履大 등은 중국 길림성 당국자와 접촉하고 공산당의 소탕과 조선혁명 지원, 일제 驅逐 및 주구기관과 주구배 파괴·박멸 등을 밀약한 바 있었다.<sup>18)</sup> 또 비슷한 시기 조선혁명당 중앙집행위원장겸 군 총사령 현익철은 길림에 가서 〈東北韓僑情勢一般〉과 〈中韓민족 합작의견서〉를 제출하고 한중연합투쟁을 제의하였다.<sup>19)</sup>

하지만 그해 7월 萬寶山 사건이 발발하고 8월 말 현익철이 瀋陽에서 일제에 체포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어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당

1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0, 602~603쪽.

1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0, 591쪽.

19) 金學奎, 〈三十年來韓國革命運動在中國東北〉(《光復》 1-4, 1941년 6월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년 영인본), 28쪽.

시 중국인이거나 중국 관헌들이 일제의 직접적 침략책동이 없는 한 일본과 충돌하여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던 이유도 컸다. 그러나 1931년 9월 18일 일제가 만주를 전면 침공한 ‘9·18사변(만주사변)’이 일어난 뒤부터 한중합작문제는 큰 진전이 있었다.

조선혁명당과 군의 주요간부들은 1932년 1월 19일 新賓縣에서 당면 대책 회의를 개최하다가 일본 경찰과 중국 관헌의 습격을 받고 대거 체포되는 불상사를 겪었다. 이 때 조선혁명당 중앙집행위원장 李浩源, 군 사령관 金保安(일명 金寬雄, 본명 金俊澤), 부사령관 張世湧(본명 張元濟), 국민부 공안부집행위원장 李鍾建(본명 李鍾淳), 朴致化·李奎星 등 핵심간부 10여 명이 체포되었다.<sup>20)</sup> 또 이후 3월 초까지 계속된 일본 경찰의 검거로 국민부와 조선혁명당·군의 관계자들은 모두 9개 현에서 80여 명이 검거되는 커다란 타격을 받고 말았다.<sup>21)</sup>

그러나 그러한 위기를 겪은 뒤에도 조선혁명당·군·국민부는 高而虛와 梁世奉·梁基瑕(호는 荷山) 등 피신한 간부들에 의해 곧 재건되었다. 이 ‘신빈사변’ 이후 국민부 중앙집행위원장은 양기하, 당의 위원장은 고이허, 군사령관은 양세봉이 분담하였다.<sup>22)</sup> 조선혁명군은 이후 신빈·통화·환인 등 지방부대에서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400여 명의 편제를 갖추고 사령부를 신빈현 왕청문에 두는 한편, 남만주 각지의 유력한 중국인사들과 연락을 취하며 연대를 모색하였다.

특히 9·18사변 이후 일제가 중국 동북을 점령하고 1932년 3월 1일 괴뢰국가인 ‘滿洲國’을 세우자 중국 동북 각지에서는 구 동북군벌계의 중국의용군은 물론 마적, 大刀會·紅槍會 등 종교집단 계통의 각종 항일부대까지 대거 봉기

20) 金學奎, 위와 같음.

〈中國九一八事變後朝鮮革命黨在東北工作經過狀況〉(《震光》 6호, 1934년 9월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년 영인본), 15쪽.

〈李浩源 등 가출옥 관계서류〉(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수원대 박환 교수 제공).

2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0, 606·613~616쪽.

22) 金學奎, 앞의 글(1941), 29쪽.

《外事警察報》 121, 69쪽(李命英, 《權力の 歷史》, 성균관대출판부, 1983, 88쪽에서 재인용).

하는 국면을 맞이하였다. 양세봉을 비롯한 조선혁명군 간부들은 이러한 기회를 맞이하여 중국의용군과 공동투쟁의 방략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

1932년 3월 초 조선혁명군 사령관 양세봉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중국인 王彤軒과 梁錫福 등 대도회 세력이 이끄는 의용군과 연대하여 공동투쟁키로 합의했다. 그리하여 같은 달 6일 조선혁명군은 이들과 함께 遼寧農民自衛團(일설에는 요녕민중자위단)이라는 한중연합의용군을 조직하여 남만의 유하현 四鋪炕에서 선포식을 거행하고 연합군의 봉기를 내외에 천명하였다.<sup>23)</sup> 이 때 사령관은 왕동현, 부사령관은 양세봉이 맡았는데, 전체 병력은 2,000여 명이나 되었다. 이 달 11일 조선혁명군은 요녕농민자위단 부대와 함께 근거지인 왕청문에서 한중연합 항일투쟁의 첫 출정을 단행하였다. 이후 조선혁명군은 신빈현 南陡嶺에서 신빈에 주둔하고 있던 괴뢰 만주국 공안대와 격전을 치른 뒤 신빈의 西永陵街를 점령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빈현의 木奇·黑牛·上夾河 등 여러 고을을 점령하고 큰 전과를 거두었다.<sup>24)</sup> 이 같은 전투는 조선혁명군이 중국항일의용군과 연합항전을 개시하는 서전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는 조선혁명군이 각 지방에서 분산활동하고 있던 병력을 집결시켜 체제를 재편성하고 한중연합군을 편성하여 본격적 항일무장투쟁의 길로 나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조선혁명군이 요녕농민자위단의 일원으로 투쟁하고 있을 때 北京에서 결성된 ‘동북항일민중구국회’에서는 만주의 항일투쟁을 촉진하기 위해 환인현에 주둔하고 있던 구 동북군부대 지휘관 唐聚五 등 동북정권 관련자들에게 밀사를 파견하여 봉기를 촉구하였다. 특히 9·18사변 직후 관내로 피신했던 중국국민당의 동북군 수뇌 張學良은 항일의지가 굳은 당취오를 방어군(요녕 육군 보병 제1단) 단장으로 임명하고 적극 후원하였다. 이리하여 국민당 특파원 王育文·李春濶 및 王鳳閣 등 유력자들과 동변도 10개현 대표 30여 명이 3월 21일 환인현에 모여 ‘遼寧民衆救國會’를 조직하게 되었다.<sup>25)</sup> 이 조직 아

23) 曹文奇, 앞의 책(1990), 202쪽.

24) 金學奎, 앞의 글(1941), 29쪽.

25) 譚譯·王駒·邵宇春, 〈9·18사변 후 동북의용군과 한국독립군의 연합항일〉(《國史館論叢》 44, 1993), 201쪽.

래에는 정치 및 군사의 두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군사위원회 아래 ‘요녕민중자위군’ 총사령부를 두었고, 당취오가 군사위원회 위원장 및 총사령을 겸직하였다. 이 때 신빈 東大營에 주둔하고 있던 구 동북군의 영장 이춘윤이 군사위원회 위원겸 제6로군 총사령이 되었다.<sup>26)</sup>

조선혁명군이 참여해서 같이 싸우고 있던 요녕농민자위단 사령관 왕동헌은 추후 이 소식을 듣고 이 조직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조선혁명군은 왕동헌 등의 부대와 함께 요녕민중자위군의 제11로군으로 편성되었다. 조선혁명군은 이 연합부대에 참가했지만, 독립군으로서의 독자적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협정을 요구하였다. 즉 4월 29일 참모장 김학규를 환인에 파견하여 요녕민중자위군 총수 당취오 등과 한·중 양 민족의 연대투쟁 문제를 협상케 했던 것이다.<sup>27)</sup>

이 협정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제5항으로서, 조선혁명군이 장차 한국내로 진격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의 수립은 조선혁명군이 중국의용군과 같이 일제와 싸우는 한편, 지속적으로 국내침투작전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실제로 1932년 한해 동안 조선혁명군은 16차에 걸쳐 101명의 대원을 국내로 침투시켜 군사금의 모집과 일제 기관의 습격, 친일파 처벌 등의 투쟁

張洪軍, 《九·一入全史》3(瀋陽: 遼海出版社, 2001), 155쪽.

26) 曹文奇, 앞의 책(1990), 112쪽.

金學奎, 앞의 글(1941), 29쪽.

張洪軍, 위의 책, 181쪽.

27)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東邊道(압록강 건너편과 남만주 남쪽 일대) 일대(즉 당취오 관할지)에서 조선혁명군의 활동을 정식으로 승인할 것.
- ② 당취오군 관할 내에 예속하는 각급 관공서와 민중이 조선혁명군의 활동에 관한 일체에 대하여 적극 원조해 줄 것을 당취오군 사령부에서 지시할 것.
- ③ 조선혁명군의 군량 및 장비는 중국 당국에서 공급할 것.
- ④ 일본군을 향하여 작전할 때 쌍방이 호응원조함으로써 작전의 임무를 완성할 것.
- ⑤ 조선혁명군이 일단 압록강을 건너 한국 본토작전을 전개할 때 중국군은 그 전력을 기울여 한국독립전쟁을 원조할 것(金學奎, 〈白波自敘傳〉,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2, 1988, 586~587쪽).

을 벌였다.<sup>28)</sup> 이 수치는 일제 당국에 포착된 경우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32년 3월 결사대원 李先龍을 국내로 파견하여 군자금 모집을 한 경우였다. 이선룡은 양세봉의 특명을 받고 국내로 잠입하여 東一銀行 장호원 지점을 습격했다. 그는 13,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빼앗았으며 충청·경기·강원 일대의 치안을 교란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는 일인 경찰과 교전하여 중상을 입히는 등 크게 활약했고, 비록 4월 5일 체포되고 말았으나 그가 일으킨 파문은 매우 컸다.<sup>29)</sup>

조선혁명군은 요녕민중자위군의 일원으로 투쟁하면서 자주적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작전을 수행하였다. 그 뒤 이 부대는 요녕민중자위군의 특무대와 선전대대로 편성되었고, 총사령관 양세봉은 특무대 사령으로, 金光玉은 선전대대 대장으로 활동하였다. 이 독립군부대가 이렇게 편성된 것은 중국군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우수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무대는 8개 산하부대로 편제되었다. 이후 조선혁명군은 1932년 10월까지 다른 요녕민중자위군 부대와 함께 공동으로 거의 200여 차례의 대소전투를 치르며 크게 용맹을 떨쳤다.<sup>30)</sup> 조선혁명군은 이 무렵 요녕민중자위군 사령부이자 임시항일정부인 ‘요녕성정부’ 소재지인 通化(江甸子)에 속성군관학교를 설치하여 400여 명의 장교 및 병사들을 양성하였다. 이 때 조선혁명군은 중앙군(현역, 정규군)과 지방군(예비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중앙군의 규모는 300명 가량이었다.<sup>31)</sup>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1932년 한해 동안 조선혁명군이 중국의용군과 함께 전개한 주요 전투를 간단히 <표 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대

28)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の治安狀況》(京城, 1933), 213쪽.

29) 《조선일보》, 1932년 3월 31일·4월 13일.  
《동아일보》, 4월 1·15일.

30) 金學奎, 앞의 글(1941), 29쪽.  
——, 앞의 글(1988), 587쪽.

31) 桂基華, 〈3府・國民府・朝鮮革命軍의 독립운동 회고〉(《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140쪽.  
張洪軍, 앞의 책, 185쪽.

활약으로 남만일대에서 조선혁명군의 명성은 크게 높아졌다. 또 300여 명의 조선혁명군은 1932년 9월 양석복이 거느리는 대도회군과 함께 대도시인撫順공락전에 참가하여 일·만군과 격전을 치렀다.<sup>32)</sup> 물론 이밖에 상세히 알려지지 않은 전투도 많다. 우리는 이를 통해 조선혁명군이 중국의용군과 함께 매우 다양한 항일투쟁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1932년 4월부터 8월까지 조선혁명군이 행한 주요 연합전투 및 단독전투

시 기	지 점	조선혁명군 부대	요녕민중자위군 부대	전 과
未詳 4~5월	신빈현 경내 신빈현 老城	대부대 崔允龜·趙化善部隊	李春潤 부대	克縣城을 여러번 공격 80여 명 敵 살상
"	신빈현 永陵街	"	"	2일간 적과 교전
6월	신빈현성 부근	양세봉부대	"	新賓縣城을 3차례 奪占
"	청원현 경내	최윤구 부대	"	일·만군과 10여 차례 교전
"	輯安·臨江縣	金光玉 部隊	孫秀岩 부대	일·만군과 30여 차례 교전
"	桓仁縣 雅河	文英燦 部隊	5로군	일·만군의 공격을 수차 격퇴
7월 상순	신빈현 石人溝	양세봉 부대	이춘운 부대	일·만군 40여 명 살상
7월 중순	撫松縣 老溝台	未詳	불참	일·만군 거점을 습격
7월 하순	통화현 快大茂	최윤구·조화선부대	불참	일·만군 80여 명 섬멸
8월	淸原縣 馬山衛子	조화선부대	불참	일·만군 36명 섬멸

\* 新賓滿族自治縣民委朝鮮族志編纂組 編, 《新賓朝鮮族志》(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4), 27쪽.

조선혁명군이 중국의용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기간인, 1932년 8월 경 조선혁명당·군의 본거지인 신빈 또는 통화에 국민부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사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정부 수립’ 구상이야말로 조선혁명군 계열 인사들의 독자성과 자

32) 계기화, 위의 글, 410~411쪽.

張洪軍, 위의 책, 185쪽.

존심을 상징한다.<sup>33)</sup> 왜냐하면 그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만주 무장투쟁 세력이야말로 진정으로 민족해방운동(독립운동)의 정통성과 주류적 위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존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시정부를 존중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반임시정부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독립정부 수립계획은 1932년 10월 일본군이 신빈·통화·환인 지역에 대거 출동하고 공동투쟁하던 중국의용군이 패퇴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하였다. 일제측 기록에 따르면 조선혁명군 사령관 양세봉은 중국의용군 총수 당취오와 협상하여 장차 의용군의 지반이 공고해지면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10만여 명의 병력과 무기를 대여하고 적극적 원조를 시행키로 하는 밀약을 체결했다고 한다.<sup>34)</sup> 물론 이 정보의 사실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는 조선혁명군의 원대한 독립전쟁 전략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 나. 조선혁명군정부의 성립과 활동

남만주의 동변도 지방에서 수많은 중국인 대중이 봉기하는 등 ‘反滿抗日運動(괴뢰 만주국의 성립을 인정치 않고 만주국 관헌에 저항하며, 일제의 침략에 반대하여 일어난 여러 형태의 저항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일제는 1932년 10월부터 일본군과 만주국군 3만여 명을 동원하여 이곳 항일세력에 대한 대대적 탄압작전을 벌였다. 그 결과 통화·신빈·환인현 등의 주요 지역은 10월에 모두 일·만군에 점령되었고, 요녕민중자위군은 큰 타격을 받고 패퇴하게 되었다.<sup>35)</sup> 특히 이 해 11월 당취오와 양석복 등이 이끌던 요녕농민

33) 1932년 8월 5일 신빈현 葦子谷에서 부근의 한인 농민대표와 조선혁명당 국민부 조선혁명군의 주요 영도자들이 모여 비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때 이들은 ① 국민부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정부 조직, ② 독립정부의 군대편성, ③ 각원 행정기관 정비, ④ 재만 조선인 단체의 통일 및 중국 국민당정부와 연락, ⑤ 조선 현재의 사회·정치기구 교란·파괴, ⑥ 재정방침 및 징병제도의 확립과 임원선임 등의 주요방침을 결정했다(〈在滿朝鮮人の不逞行動及取締狀況〉, 《日本外務省警察史》在滿大使館 第1, 국회도서관 소장 일본 외무성문서 제책본 제2268권, 2614~2616쪽).

3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0, 607~608쪽.

35) 1932년 10월 13일 신빈, 15일 통화, 20일 환인현이 일본군에 점령되었다(張洪軍, 앞의 책, 188쪽).

자위군은 일·만군의 공격으로 통화에서 濛江縣으로 패퇴하여 거의 궤멸되었고, 당취오와 양석복 등은 關內로 도피하고 말았다. 다만 왕봉각과 이춘윤 등이 일부 부대를 지휘하며 항전을 계속하였다.<sup>36)</sup> 또 국민부 위원장이던 양기하가 관전현에서 일본 경찰과 싸우다가 1933년 2월 10일 전사하고 말았으며,<sup>37)</sup> 조선혁명군도 종전의 근거지인 왕청문으로 사령부를 다시 옮겼다.

조선혁명당·군은 일제의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1933년 1월 신빈현 依木樹에서 주요간부 회의를 열어 진용을 재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였다. 이 때 조선혁명군은 약 8개월간 편제되었던 요녕민중자위군의 특수대라는 명칭을 버리고 원래의 명칭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 양기하의 후임 국민부 위원장에 金東山(본명 金鎭邦)이 새로 선임되었고, 조선혁명당 집행위원장 고이허, 군 사령관 양세봉은 그대로 유임되었다.<sup>38)</sup> 이 때 조선혁명군은 총사령부 아래 5개 路 사령부로 개편되었다.<sup>39)</sup> 그러나 군의 지도기관인 조선혁명당의 당강과 정책 등은 초기와 별로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대의 투쟁목표와 이념 역시 별다른 변동은 없었다.

1932년 2월 제정된 조선혁명당의 당강에는 “혁명적 수단으로써 원수 일본 침략세력을 소멸하고 5천년래 독립자주의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며, 정치·경제·교육의 평등을 기초로 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립하고, 전체국민의 생활평등을 확보하며 세계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진일보하도록 촉진한다<sup>40)</sup>”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趙素昂의 三均主義 이념이 반영된 점이 주목

36) 金學奎, 앞의 글(1941), 30쪽. 당취오는 1932년 요녕성정부 대리주석으로 임명되었다(張洪軍, 앞의 책, 185쪽).

37) 黃龍國, 앞의 글(1990), 237쪽.

한편 梁基瑕의 처와 후손들은 1932년 1월 16일(음력, 양력으로는 2월) 양기하가 전사한 것으로 알고, 매년 음력 1월 15일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양기하의 손녀 梁寬玉씨 및 손녀사위 金振洙씨 증언, 2001년 9월 9일 서울 사무실에서 청취).

38) 曹文奇, 앞의 책(1990), 153쪽.

39) 金學奎, 앞의 글(1941), 30쪽.

40) <新派秘 第342號 昭和 12年 6月 19日 在新京服部昇治 朝鮮總督府 警務局長殿 朝鮮革命軍の狀況に關する件>(日本:山口縣文書館 소장 《林家史料》), 771~772쪽.



된다. 때문에 조선혁명당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 시기에 야기된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농민대중에 대한 정치훈련과 강습을 강화하고 농민조합이나 청년회·부녀회·소년회·경호대 등을 조직하여 당의 외곽단체로 삼았으며, 국민부와 혁명군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게 했다.<sup>41)</sup> 이러한 바탕 위에서 조선혁명군은 활발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당시 조선혁명군의 5개 부대는 담당 작전구역과 임무가 약간 달랐다. 제1·5로군은 압록강 연안의 여러 지방을 담당하고 국내로 진격하여 일제의 시설을 파괴하는 등 진입작전이 주임무였다. 한편 3·4로군은 심양 및 길림과 연결되는 철도연변을 중심으로 한 항일투쟁을 전담했으며, 2로군은 사령부 일대를 경비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sup>42)</sup> 이에 따라 조선혁명군은 왕봉각 및 鄧鐵梅 등 중국의용군과 연합작전을 강화하고 소부대를 위주로 하는 유격전을 진행하며, 강전자군관학교에서 훈련받은 청년들을 편입시켜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총병력이 400여 명에 달하고 각종 무기가 500여 자루나 되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sup>43)</sup>

조선혁명군은 1933년에도 요녕민중자위군의 잔존부대와 함께 남만주 일대에서 여러 차례의 연합전투를 치렀다. 특히 7월 8일 양세봉은 일부 부대를 거느리고 왕봉각 산하의 부대와 연합하여 신빈현성을 공략하여 한때 점거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조선혁명군은 끊임없이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하여 일제에 타격을 주었는데, 이 해의 국내진격전은 10여 차례에 걸쳐 142명의 대원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된다.<sup>44)</sup> 특히 1932년 말부터 이듬해 2월에 걸쳐서 평안도 일대에 진입한 邊洛奎 부대의 활약은 매우 주목된다. 조선혁명군 제3총대장 변낙규는 1932년 말 양세봉의 명령을 받은 뒤 부하 20여 명을 데리고 국내로 진입하였다. 이후 그는 군자금 및 항일투쟁 동지의 모집을 위해 활동하다가 이듬해 2월 평남 덕천에서 일제 당국에 체포되고 말았다.<sup>45)</sup>

41) 金學奎, 앞의 글(1941), 30쪽.

42) 金學奎, 위의 글(1941), 30~31쪽.

43) 金陽 主編, 《항일투쟁 반세기》(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5), 91쪽.

44) 姜德相·梶村秀樹 編, 《現代史資料-朝鮮 6》30(1976), 341쪽.

또한 국내유격대장 徐元俊의 활약도 특기할만 하다. 그는 1933년 5월 국내로 침투하여 평양의 은행을 습격하고 군자금 1,600원을 빼앗은 뒤 황해도 봉산까지 진출했다. 그는 2주일간이나 각지에 출몰하며 추격하는 일인 경찰관을 사살하는 등 용맹을 떨쳤으나, 결국 일제 당국에 체포되어 순국하고 말았다.<sup>46)</sup>

1934년 경에도 조선혁명군은 중첩되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며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그러나 일·만 군경의 계속되는 ‘토벌’과 회유공작, 소위 ‘匪民’ 분리정책의 실시 등으로 인한 많은 손실과 존립기반의 상실 등으로 조선혁명군의 활동은 점차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종래 조선혁명군은 교포사회를 기반으로 軍區制를 실시하여 병력을 충원하고 군자금 징수와 보급품을 확보하였지만, 이 같은 연계관계가 차츰 차단되어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조선혁명당에서는 그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5월 초 조선혁명군 참모장 金學奎를 관내에 파견하여 중국 국민당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sup>47)</sup> 더구나 이 해 9월 20일 일제의 비밀공작으로 총사령 양세봉이 피살된 뒤부터 조선혁명군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사실 양세봉은 남만주 일대 교포사회의 큰 기대를 받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한 인물이었다.<sup>48)</sup>

이러한 상황에서 교포사회를 기반으로 한 준자치(행정) 기관으로서의 국민부와 지도기관으로서의 조선혁명당의 기능은 크게 약화된 반면, 무장투쟁의 중추조직인 군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국민부의 주요 지도자들은 1934년 11월 11일 軍民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 국민부와 조선혁명군을 통합하여 ‘조선혁명군정부’를 조직하고 항

45)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の治安狀況》, 218쪽.

46) 朝鮮總督府 警務局, 위의 책, 219쪽.

《조선일보》, 1933년 6월 13일.

47) 金學奎, 앞의 글(1988), 590쪽.

48) 양세봉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丁原鉅, 〈梁世奉: 조선혁명군 총사령의 연구〉(《國史館論叢》 8, 1989).

장세윤,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 연구〉(《趙東杰선생 정년기념논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나남출판, 1997).

일투쟁과 주민자치의 효율을 도모하기로 결의했다. 이 때 〈조선혁명군정부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이 선언서는 당시를 제국주의 열강들의 ‘상품시장’ 재분할을 둘러싼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때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일본제국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소련-일본간의 전쟁과 제2차 제국주의 전쟁이 필연적으로 발발할 것이라는 매우 정확한 정세인식을 담고 있었다. 때문에 조선혁명군정부는 중국혁명운동과 협동전선을 구축하고 다른 중국항일군과도 협조할 것이며 좌우합작 실현으로서 ‘조선민족혁명당’의 완성이라는 전략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1936년에 국제전쟁의 위기가 온다고 보고 조선혁명군정부야말로 유일한 ‘조선혁명전쟁(곧 독립전쟁)’ 수행세력이라는 자신에 찬 내용을 공표하였다.<sup>49)</sup> 조선혁명군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실제로 1935년 관내에서 연합조직으로 민족혁명당이 성립했을 때, 김학규와 崔東昨 등 일부 인사가 참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한민족과 민족해방운동 진영의 앞날을 낙관하고 있었으며, 반드시 일제가 패망할 것이라는 신념과 자부심을 갖고 독립전쟁에 임하고 있었다는 귀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혁명군정부의 조직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성립 직후인 1935년 경의 조직을 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sup>50)</sup>

49) 〈新派秘 第342號 昭和 12年 6월 19일 在新京服部昇治 朝鮮總督府 警務局長殿 朝鮮革命軍の狀況に關する件〉(日本：山口縣文서관 소장 《林家史料》), 816~8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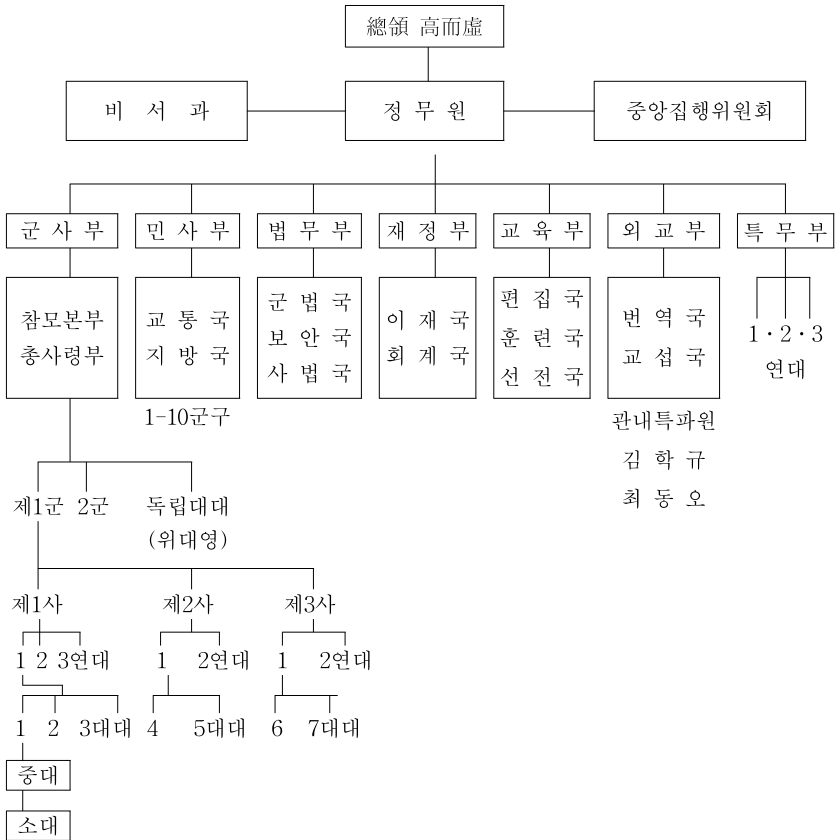
50) 滿洲國軍政部 顧問部, 《滿洲共產匪の研究》1(1937), 411~412쪽.

이명영, 《권력의 역사》, 93~95쪽.

〈新派秘 第342號 昭和 12年 6월 19日 在新京服部昇治 朝鮮總督府 警務局長殿 朝鮮革命軍の狀況に關する件〉(日本：山口縣文書館 소장 《林家史料》), 772·822~823쪽.

〈표 2〉

## 조선혁명군정부 조직표



당시 군정부에서는 10개의 군구를 두고 있었는데, 1936년의 경우 각 군구에서 200원 가량의 군자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물론 교포들 대부분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거나 하는 특수한 경우는 의무금이 경감되거나 면제되었고, 재산정도에 따라 징수액을 조정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조직 참여자들의 출신지역은 대부분(2/3정도)이 평안북도였다.<sup>51)</sup> 여기에 한인 대부분이 중국인의 소작농으로

51) 〈新派秘 第342號 昭和 12년 6월 19일 在新京服部昇治 朝鮮總督府 警務局長殿

생활하는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 등으로 인해 이들은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고, 굳건한 동지애로 결합하여 끈질긴 투쟁을 벌일 수 있었다.

조선혁명군의 지휘관과 사병들은 거의 20~30대의 청장년들이었고 기관총과 소총 등으로 무장하였는데, 무기가 부족하여 대원의 70% 정도만 소총을 휴대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부대는 일본군과 비슷한 계급구분과 직제, 훈련을 하고 만주국군과 유사한 정규복장을 착용했다. 또 〈군기 21조〉를 제정하여 민폐를 엄금하고 교민을 보호하는 등 매우 엄격한 군율과 훈련을 통해 강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싸웠던 일본 군경들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sup>52)</sup> 이 같은 높은 평판은 그 무렵 조선혁명군과 연대투쟁을 모색하고 있던 중국공산당 만주조직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는 조선혁명군의 활동을 일찍부터 예의 주시하고 이미 1931년 3월 경부터 포섭과 합작의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특히 1936년 겨울에는 조선혁명군의 제1사 韓劍秋 부대를 남만주 유격운동에서 가장 명망 있는 세력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sup>53)</sup>

1935~1936년 경 조선혁명군은 다른 항일부대와 연합하여 동변도 지방은 물론 평안·함경도 지방까지 출몰하여 일제 경찰서 등 경비기관의 습격·파괴, 기타 소규모 전투 등을 벌여 일제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제1사 사령한 검주(본명 崔錫鏞, 황포군관학교 출신)가 이끄는 조선혁명군 부대는 통화현 패대무자에서 1935년 8월 경 일본군 기병대와 접전하여 적 40여 명을 사살하고 최진 기관총 6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후에도 이 부대는 수많은 접전을 치렀는데, 이 과정에서 張明道·金光旭·安松 등 많은 장병들이 전사하는 희생을 치렀다.<sup>54)</sup>

---

朝鮮革命軍の狀況に關する件>(日本：山口縣文書館 소장 《林家史料》), 789·821쪽.

52) <新派秘 第342號 昭和 12년 6월 19일 在新京服部昇治 朝鮮總督府 警務局長殿 朝鮮革命軍の狀況に關する件>(日本：山口縣文書館 소장 《林家史料》), 793~795쪽.

53) <中共滿洲省委給南滿特委指示信>(《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7, 中央·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檔案館 編, 1988), 168쪽.

<中共吉東省下江特別委員擴大會議議決案>(위의 책 51, 1990), 14쪽.

54) 이명영, 앞의 책, 96~97쪽.

조선혁명군정부는 앞에서 밝힌대로 일본이 전쟁을 확대할 것으로 예견하는 등 국제정세가 유리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이 기회를 포착하여 조국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만주에서의 투쟁 이외에 널리 국내에서도 동지를 규합하고, 또 관내의 南京・上海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족운동 세력과의 연계하여 국내외에서 서로 호응하며 일시에 봉기하는 과감한 전술을 구사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하는 기관으로 ‘조선내공작위원회’를 설치하고 1935년 7월과 10월에 柳光浩와 尹永配를 파견하여 농민과 노동자 대중을 포용하는 비밀공작을 추진했다. 이러한 대중동원 방략은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방식과 비슷한 것이었지만, 광범한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전술이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들이 일경에 체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만주 독립운동세력이 무력투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넓은 지역에 걸쳐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조선혁명군(정부)은 교육운동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1930년대 중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중국 동북 강점 이후 재만한인 자제들에 대한 민족교육과 당원양성소 역할을 해오던 신변현 왕청문의 化興中學이 폐교되고 말았다. 이에 조선혁명군을 이념적으로 지도하던 조선혁명당은 1934년 2월에 한인 농민들의 요청으로 개교한 왕청문 보통학교를 이용하여 민족교육 및 조선혁명당의 교육기관으로 활용하였다. 이 학교는 1935년 5월 친일주구배를 양성하는 보조학교라고 지목되어 조선혁명군에 의해 소각되어 버렸지만 그해 8월 다시 문을 열었다. 이 때 일본영사관과 조선인민회 등으로부터 각각 200원의 보조금을 받았다.<sup>55)</sup> 그러나 이 학교는 이후 조선혁명군 제9군구장 金世浩 등과 연계하여 겉으로는 일제의 지원을 받는 척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비밀리에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종전에 화흥중학에서 사용하던 반일 민족교육 교과서에 조선총독부 발행 교과서의 표지만 붙여 재사용하

——, 〈일제의 만주침략과 反滿抗日運動〉(《성대논문집》 18, 1973), 95쪽.

55) 日本外務省 東亞局, 《昭和 11年度 執務報告(極秘資料)》第2冊(1936), 451쪽.

는 방법으로 민족혁명운동과 조선혁명군의 투쟁을 지지·고무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한 때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사립 信成學校의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1936년 3월 일제측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왕청문 보통학교 교장 田泰和(당시 60세)와 교사 桂志浩(당시 28세), 신성학교 교장 韓奉俊(당시 47세)과 교사 金昌成(당시 26세) 등이 구속됨으로써 민족교육은 실패하고 말았다.<sup>56)</sup>

#### 다. 중한항일동맹회의 결성과 해체

1935년 조선혁명군(정부)은 일제의 토벌정책과 초토화작전으로 매우 어려운 투쟁을 벌여야 했다. 그 해 가을에 적의 ‘대토벌’이 개시되자 생존을 위해서 다른 항일부대와 연대하여 싸울 필요가 커졌다. 이에 제1사 한검추 부대는 동변도 지방에서 요녕민중자위군의 명맥을 유지하며 싸우고 있던 대도회 계통의 왕봉각 부대와 같은 해 9월 20일 집안현에서 만나 中韓抗日同盟會를 조직하고 공동투쟁하기로 합의했다.

이 한중연합투쟁 조직은 선언 및 誓詞·政綱·細則과 군사조직 등을 발표하여 체제를 갖추었다. 이 조직의 정치위원회 위원장은 고이허가 맡았고,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왕봉각, 군의 총사령관은 한검추가 담당했다. 전체 병력은 1,150명 정도였는데, 한검추 산하 조선혁명군 부대가 100여 명이었다. 조선혁명군 1사는 教導連으로 편제되었다.<sup>57)</sup>

조선혁명군은 중한항일동맹회를 통해 부족한 무기와 식량·피복 등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참모와 전투원에 중국인을 편입시켰다. 이를 통해 많은 중국인 대중의 간접적 지원을 받게됨으로써 항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동맹회의 성립 직전인 9월 초에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1사 참모장으로 임명된 중국인 葉景山은 蔣介石의 중국 국민당정부에서 파견한 지하공작원이었기 때문에 한중합작 공작을 적극 주선하였다.<sup>58)</sup> 중한

56) 日本外務省 東亞局, 《昭和 11年度 執務報告(極秘資料)》第2冊, 450~453쪽.

57) 滿洲國軍政部 顧問部, 《滿洲共產匪の研究》1, 415~417쪽.

〈滿洲に於ける中國共產黨と共產匪〉(《思想情勢視察報告集 4》, 京都: 東洋文化社, 1973), 85쪽.

58) 金學奎, 앞의 글(1988), 590쪽.

항일동맹회의 정강 2조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동북실지를 회복하며, 조선독립을 완성한다”고<sup>59)</sup> 명기하여 이 조직의 투쟁목적을 밝혔다. 조선혁명군이 자신의 부대규모보다 훨씬 많은 중국인 투쟁세력과 연합하면서 뚜렷이 ‘조선독립’을 양 세력 연합의 목표로 내세운 것은 나름대로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중한항일동맹회 조직은 1년 정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1936년 말에서 이듬해 초까지 왕봉각 부대가 거의 궤멸되고, 1937년 3월 왕봉각이 체포·처형됨으로써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혁명군(정부)은 일·만 군경의 포위공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도,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하여 일제의 치안을 교란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충격을 주었다. 보기를 들면 1936년 6월 張珍奉 등 10여 명의 소부대가 평북 초산에 진공했고, 같은 해 9월에도 압록강 연안의 위원·벽동 파출소를 기습했다. 10월에는 鄭雲俊 등 5명의 대원이 벽동의 한 경찰파출소를 기습공격하여 순사 4명을 사살하는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sup>60)</sup>

### (3) 조선혁명군(정부)의 해체와 동북항일연군 합류

만주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 관동군은 1936년 2월 이후 소위 ‘제3기 치안숙정계획’을 세우고 반만항일세력을 제거하려 하였다. 이 같은 관동군의 계획에 호응해 괴뢰 만주국 軍政部측도 그 해 4월 <치안숙정 3개년계획 요강>을 제정했다. 이후 일·만 당국은 이 공작의 대상으로 남만의 동변도 지역을 지목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변도 治本공작’이라는 항일세력 말살공작을 추진하였다.<sup>61)</sup> 이 때문에 왕봉각 등의 중국인 의용군과 조선혁명

〈新派秘 第342號 昭和 12년 6월 19일 在新京服部昇治 朝鮮總督府 警務局長殿 朝鮮革命軍の狀況に關する件〉(日本：山口縣文서관 소장 《林家史料》), 821쪽.

59) 〈新派秘 第342號 昭和 12년 6월 19일 在新京服部昇治 朝鮮總督府 警務局長殿 朝鮮革命軍の狀況に關する件〉(日本：山口縣文서관 소장 《林家史料》), 807쪽.

60)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思想彙報》 10(1937년 3월), 31쪽.

이명영, 앞의 책, 100쪽.

61) 任城模, 〈1930년대 일본의 만주지배정책 연구〉(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0), 44쪽.



군(정부), 중국공산당 계열의 동북항일연군 등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조선혁명군은 1935년 9월 중한항일동맹회를 조직하여 왕봉각 등과 연대투쟁하였으나, 일제측의 끈질긴 탄압과 이간공작, 주민들과의 분리정책 등으로 날이 갈수록 어려운 조건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조선혁명군은 이미 그 해 1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대표를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사령부에 파견하여 연합작전을 요구했다.<sup>62)</sup> 그 후 조선혁명군은 중국공산당 만주조직에서 영도하는 동북인민혁명군과 연대투쟁하기 시작했다. 보기를 들면 1935년 4월 중순 총사령 金活石이 군정부 직속 위수대대를 거느리고 桓仁縣 북쪽 崗山嶺에서 적군과 교전할 때,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군장 楊靖宇 부대와 적을 협공하여 공동투쟁하였던 것이다.<sup>63)</sup> 또 같은 해 10월 本溪縣에서 일부 부대가 동북인민혁명군과 함께 싸웠다.<sup>64)</sup>

그 뒤 조선혁명군은 왕봉각 등의 의용군과 공동투쟁하는 한편, 동북인민혁명군(1936년 8월까지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과도 공동투쟁하였다. 이 부대는 1936년 2월 하순 통화현 上龍頭에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1사와 연합하여 만주국군 1개 중대와 격전을 치렀다.<sup>65)</sup> 또 같은 해 3월 하순 조선혁명군 4중대장 金允杰이 지휘하는 부대는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사령관 양정우 부대와 같이 환인현 缺石嶺에서 이동중인 일본군경 합동 환인경비대를 기습하여 큰 손실을 입혔다. 4월 초에는 조선혁명군 제2군 참모 崔明이 50여 명의 대원을 거느리고 동북인민혁명군 1군과 왕봉각 휘하부대 등 3자의 회의에 참가하여 연합투쟁방침을 결의하였다.<sup>66)</sup> 이 밖에 관전현 下露河 부근에서 배를 습격하여 1척을 격침시키는 등의 연합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조선혁명군정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동북항일연군과 공동투쟁하기로 정식으로 결정한 것은 1936년 10월이었지만,<sup>67)</sup> 이미 그 이전부터 이처럼 적지 않은 사례의 연대투쟁이 실

62) 〈東北抗日鬭爭の形勢與各抗日部隊的發展及其組織概況〉(《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 44, 1990), 351쪽.

63) 黃龍國, 앞의 글(1990), 241쪽.

64) 吉林省 公安廳 公安史研究室 編譯, 《滿洲國警察史》(長春, 1990), 510쪽.

65) 黃龍國, 앞의 글(1990), 242쪽.

66) 滿洲國 軍政部 顧問部, 《滿洲共產匪の研究》1, 418・447~448쪽.

67) 〈新派秘 第342號 昭和 12년 6월 19일 在新京服部昇治 朝鮮總督府 警務局長殿

현되었다.

조선혁명군정부는 일제와 만주국 군경의 탄압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그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그리하여 1935년 9월 제14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종전의 민간인 출신 總領 고이허 대신 대한제국 무관(장교) 출신의 김동산을 새로운 총령으로 선출하여 군사부문 영도를 강화하였다.<sup>68)</sup> 이를 계기로 조선혁명군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1936년 1월부터 3월까지 군정부의 지방지도원 및 후원자 118명이 일제 당국에 대거 검거되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sup>69)</sup> 이는 군정부의 생존기반에 결정적 타격이었다. 또 같은 해 3월 총령을 지낸 핵심적 이론가 고이허가 체포되는 등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더구나 조선혁명군의 국내 진입작전에 큰 타격을 받은 조선총독부 치안당국은 1937년 초부터 만주국측의 토벌공작에 부응하여 만주국 군경과 협동하여 조선혁명군에 대한 일대 공략을 도모하였다.

1937년 3월 중순 경 조선혁명군은 약 200명의 부대규모를 유지하며 신빈과 환인현의 접경지대에 있는 新開嶺에 튼튼한 산채를 구축하고 국내로 진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sup>70)</sup>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일제의 평북 경찰부는 초산과 위원경찰서에서 차출한 100여 명의 경관을 출동시키고, 만주국의 집안·환인 경찰 및 관동군 정보기관과 협동하여 조선혁명군 본부에 대한 일대 공격에 나섰다. 이들 합동 ‘토벌대’는 군용기까지 동원하여 3월 하순부터 약 10일 간에 걸쳐 조선혁명군 본부를 공격하였다.<sup>71)</sup> 한편 조선혁명군 총사령 김활석은 1,004미터 고지에 위치한 요새지에서 이들 적을 상대로 100여 명의 부하들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완강히 저항하였다. 그러나 조선혁명군은

朝鮮革命軍の狀況に關する件>(日本：山口縣文서관 소장 《林家史料》), 800쪽.

68) <新派秘 第342號 昭和 12年 6월 19일 在新京服部昇治 朝鮮總督府 警務局長殿 朝鮮革命軍の狀況に關する件>(日本：山口縣文서관 소장 《林家史料》), 820~821쪽.

69) 吉林省公安廳 公安史研究室 編譯, 《滿洲國警察史》(長春：1990), 318쪽.

70) 《조선일보》, 1937년 3월 23일.

71) <昭和 12年 3월 26일 平安北道 警察部長→朝鮮總督府 警務局長 報告>(《昭和 12年 2月~3月 國境討匪狀況》(韓國 國家報勳處 寫本所藏).

압도적으로 우세한 장비와 병력을 앞세운 일·만 군경에 중과부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패퇴하고 말았으며, 오랫동안의 근거지였던 산채도 함락되었다. 특히 3월 25일의 전투는 10시간이나 계속되었는데, 이 전투에서 조선혁명군은 9명이 전사하고 산채 3개소가 불타고 말았다.<sup>72)</sup>

이 3월 하순 일제의 대공세로 조선혁명군은 치명적 타격을 받았고, 그 이후의 투쟁도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혁명군 제1사 사령한검추와 교육부장 尹一波(본명 尹明浩, 황포군관학교 출신) 등 51명의 대원은 그해 4월 초순 일제에 투항하고 말았다.<sup>73)</sup> 또 5월 21일에는 조선혁명군정부 총령 김동산도 더 이상의 단독활동이 곤란하여 투항하였다. 김동산의 투항은 사실상 조선혁명군정부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그 뒤 “이에 따라 20여 년의 오랜동안 조선독립을 꿈꾸며 용맹무쌍하게 활동, 치안의 암이라고 일컬었던 조선혁명군도 드디어 재기불능에 빠졌다”라고 하며 그 성과를 매우 강조하였다.<sup>74)</sup>

그러나 조선혁명군의 활동이 이로써 끝난 것은 아니었다. 총사령 김활석이 100여 명의 남은 병력을 이끌고 투쟁을 계속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독자적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곤란한 현실에 직면하여 일부 간부들은 남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국공산당계 동북항일연군에 합류하여 싸울 것을 주장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에 반대하였다. 결국 박대호와 최윤구 등은 1938년 2월 6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양정우가 인솔하는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에 참가하여 투쟁을 계속하게 되었다.<sup>75)</sup> 이 때 이들은 한인 獨立師로 편제되어 조선혁명군의 명맥을 일부나마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김활석은 30여 년이나 면면히 계승된 독립군으로서의 조선혁명군 전

72) 姜德想·梶村秀樹 編, 《現代史資料 朝鮮 6》30, 351쪽.

《每日申報》, 1937년 3월 27일.

《조선일보》, 1937년 3월 30일.

73) 吉林省公安廳 公安史研究室 編譯, 앞의 책, 318쪽.

74) 朝鮮總督府 警務局, 〈第73回諸國議會說明資料〉(1937), 59쪽.

75) 張世胤, 앞의 글(1990), 333쪽.

吉林省公安廳 公安史研究室 編譯, 앞의 책, 335쪽.

통과 명의를 포기할 수 없어 20~3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독자적으로 활동했다. 사실 김활석은 1935년 7월 5일 남경에서 성립한 통일전선체 조직 조선 민족혁명당의 중앙집행위원이었고, 그가 이끈 조선혁명군은 명의상으로는 한 때 이 당의 당군으로 편제되어 있었다.<sup>76)</sup> 따라서 그는 중국관내에 있던 민족해방운동 세력과 협의 없이 장차 조선혁명전쟁(독립전쟁)을 수행할 이 독립군 부대를 해산시킬 수 없었다. 때문에 그는 만주 조선혁명당을 계승한 조선혁명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최후까지 고군분투했지만,<sup>77)</sup> 1938년 9월 6일 결국 제7단장 鄭匡鎬와 함께 만주국 安東公署에 체포되어 항복하고 말았다.<sup>78)</sup> 이로써 ‘조선독립’을 직접 표방한 만주 최후의 민족주의계 독립군인 조선혁명군도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학규와 최동오·柳東說 등 중국관내로 합류한 일부 인사들은 조선혁명당·군의 이념을 계승하며 민족해방운동을 지속하였다.

동북항일연군과 일정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거나 나중에 이 부대에 합류한 조선혁명군의 일부 참가자들은 경우에 따라 중국공산당 만주조직이 항일민족통일전선을 표방하며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 ‘재만한인조국광복회’에도 가입하여 활동했다. 특히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의 주요간부들은 조국광복회가 창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서신을 보내는 한편, 항일투쟁에서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sup>79)</sup> 또 동북항일연군에 한인 독립사의 편

76) 朝鮮總督府 警務局, 《高等警察報》5(1936), 84~85쪽. 재만 조선혁명당이 민족혁명당에 합류할 때 당원은 1,000여 명, 기관총·소총 등 각종 무기 400여 정, 무장대원(조선혁명군) 500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약간 과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77) 1935년 말 재만 조선혁명당은 중국관내 민족운동세력의 만주투쟁세력 지원이 어렵게 되자 민족혁명당 가입사실을 부정하고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金學奎, 앞의 글, 1988, 594쪽).

78) 吉林省公安廳 公安史研究室 編譯, 앞의 책, 318쪽.

79) 이에 대해 “조국광복회 창립이 선포된 직후 조선혁명군정부 참모장으로 있던 윤일파는 우리에게 서한을 보내어 조국광복회 창립을 축하하고 앞으로 반일전선에서 긴밀한 연계를 지을 것을 희망해왔다.”고 회고한 기록이 있다. 이 서신은 조국광복회의 기관지 《3·1월간》 창간호(1936)에 수록되었다(《조선혁명박물관》도록, 평양: 조선외국문출판사, 1963; 신주백, <과거 기억과 현재의 상存-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사>, 《한국민족운동사연구》27, 2001, 315쪽에서 재인용).

제형태로 합류한 조선혁명군의 남은 대원들도 줄기차게 일제의 ‘토벌’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러나 동북항일연군 참모로 싸우던 최윤구가 1938년 12월 전사하는 등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희생되고 말았다.<sup>80)</sup> 그러나 박대호·조화선이 거느리는 조선혁명군 출신 대원들은 1941·1942년 경까지 완강하게 투쟁하는 기개를 보였다. 다만 김명준과 洪春秀 등 극소수의 조선혁명군 대원이 생존하여 1940년 경 소련으로 도피한 뒤,<sup>81)</sup> 국제지원 세력의 도움을 받으며 조국의 해방을 준비하기도 했다. 일제가 패망한 뒤 김명준 등은 북한에 개전하였다.<sup>82)</sup>

또 金應基와 金炳奎 등 일부 지사들은 조선혁명군이 해체된 뒤에도 중국인 孫廣厚가 조직한 항일무장대 ‘滿天紅’ 부대에 조선혁명군 출신 대원을 이끌고 가담하여 1944년 경까지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sup>83)</sup> 이와 같은 1930년대 남만지역 조선혁명군의 활동은 투쟁강도나 그 끈질긴 지속성, 중국측 항일세력과의 연대투쟁 등 생존전략, 그리고 특정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폭넓은 포용성 등 우리에게 귀중한 역사적 교훈을 주고있다고 하겠다.

80) 현재 중국 길림성 樺甸市 柳樹河子에는 최윤구의 전사를 추모하는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즉 1990년 중국공산당 樺甸市위원회와 樺甸市 인민정부는 “동북항일연군 小柳樹河子 전적지”라고 새겨진 조그만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다. 다만 최윤구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지 못하고 崔雄國(최윤구의 중국식 발음 借字)이라고 잘못 각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비석의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다. “1938년 말 양정우가 거느리는 抗聯 1로군 警衛旅와 少年鐵血隊는 紅石砬子 강남 小柳樹河子에서 야간을 틈타 偽靖安軍(만주국군)을 기습하여 적군 100여 명을 섬멸하고 적기 1대를 격추시켰다. 전투중 1로군 참모 崔雄國이 장렬히 희생되었다”(최윤구 집안 崔仁彬씨 현장답사 후 사진 및 자료제공).

81) 辛珠柏, 앞의 책(1999), 417쪽.

82) 김명준은 1910년생으로 평안북도 출신이었다. 원래 농업에 종사했으며, 동북항일연군 제1군 警衛旅 소속으로 소련으로 월경하였다. 1938년 3월 동북항일연군에 가입한 뒤 그 해 8월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다(楊昭全·李鐵環 編, 《東北地區朝鮮人革命鬥爭資料匯編》,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2, 940쪽). 그는 북한으로 귀환한 뒤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3권에 〈광명의 길을 찾아서〉라는 회상기를 남겼다. 해방 이후 행적은 잘 알 수 없다(張世胤, 앞의 책, 1997, 275쪽).

83) 曹文奇, 앞의 책(1998), 318~319쪽.

## 2) 한국독립군의 성립과 항일무장투쟁의 전개

### (1) 한국독립군의 성립 및 중국의용군과 연합항전

#### 가. 한국독립군의 성립

남만주 지역에서 조선혁명당과 국민부·조선혁명군이 삼위일체로 중국 항일투쟁 세력과 연대하여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을 때 북만주와 동만주 일대에서도 한국독립당과 한족자치연합회·한국독립군이 1930년대 초반 활발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30년 7월 북만주 葦河縣에서 창립된 한국독립당은 대부분 대종교 신자 및 유림·기초지방 출신 인사들, 그리고 漢學 수학이나 무관학교를 졸업한 양반·지주 출신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sup>84)</sup> 이에 따라 이 당은 대체로 민족주의 및 반공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사실 이 당의 창건배경에는 북만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족주의 계열 운동세력의 위기의식이 크게 반영되어 있었다. 즉 한국독립당의 전신인 한족총연합회의 주요 지도자 金佐鎭이 1930년 1월 공산주의자에게 피살되고, 한인들이 대다수 거주하는 연변 및 북만지방에서 한인 중심의 공산주의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서 민족주의 세력의 결집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에 남만지역에 국민부와 조선혁명당·군이 성립한 상황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이 당은 창립시 당과 군의 조직체계 확립, 반공대책의 수립 등을 긴급현안으로 판단하고 몇 가지 사항을 결의하여 구체적 활동을 전개하였다.<sup>85)</sup>

한국독립당은 이러한 새 방침에 따라 독립운동 및 자치운동, 교육·산업진

84) 박 환, 앞의 글, 143~145쪽.

85) 이 때 아래의 사항에 결의되었다.

- ① 당의 지부는 縣 지부·區 지부 등 3칭체계를 둘 것.
- ② 軍은 당군으로 편성하되 전 만주를 15구로 나누어 신병을 모집하며 3개월씩 일기로 미리 훈련할 것.
- ③ 당원 및 청소년 훈련을 적극 추진하여 赤色(공산주의)의 오염을 방지할 것.
- ④ 농민 성인에 대한 강습은 농한기나 가을·겨울간 야간을 이용할 것(趙擎韓, 《白岡回顧錄》, 한국종교협의회, 1979, 91쪽).

홍운동, 한인 교민 보호 등의 여러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한 반공투쟁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張作相과 같은 중국 군벌정권의 유력자와 연계하여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토벌’하였다.

이에 따라 이 곳에서 양 계열 사이에 바람직하지 않은 공방전이 벌어져 민족운동의 역량을 허비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930년 8월 초 180여 명의 한인 공산당원들이 海林站에 있던 한국독립당 본부를 습격했다. 반대로 한국독립당의 南大觀·權秀貞(본명 이종형, 후에 변질) 등은 길림성 당국의 허가를 받아 ‘探共隊’를 조직하고, 이듬해 6월 경 동·북만 일대에서 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였다.<sup>86)</sup>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고한 한인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어 북만지역 한인 대중의 원성을 사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반격의 명분을 제공하는 등 스스로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사례도 있었다.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 침략이 단행되자 항일투쟁의 좋은 기회가 온 것으로 판단한 한국독립당은 10월 5일 길림성(현재는 흑룡강성) 오상현 大石河子에서 긴급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급박한 시국정세와 향후의 투쟁노선을 논의하였다. 이 때 일제의 침략이 만주에 그치지 않고 중국관내 등 다른 지역까지 미치는 것은 물론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독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중국군과 공동작전을 펴 이들의 지원을 받으며 투쟁하면서 세계연합군의 교전단체로 참가하여 국내로 상륙작전을 전개하면 전후 강화회의에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전략이 세워지게 되었다.<sup>87)</sup> 이 회의에서 중요한 3가지 안건이 의결되었다.<sup>88)</sup>

86) 〈昭和 6년 7월 2일 在間島岡田總領事發信幣原外務大臣宛報告要旨〉(《일본 외무성·육해군성 문서》, 국회도서관 소장 복사제책본 제321권), 7125~7129쪽

87) 趙擎韓, 앞의 책(1979), 94쪽.

88)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군구에 총동원령을 내려 정비된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
- ② 당내 모든 공작을 군사방면에 집중할 것.
- ③ 특과원을 길림성 항일군사당국에 파견하여 한중합작을 상의할 것(一靑(趙擎

한국독립당은 이 결의에 따라 하얼빈 근교의 中東線 철도 연변을 중심으로 각 군구에 총동원령을 내려 재향군인의 소집과 청장년들의 징집을 실시하는 한편, 당 군사위원장 李靑天(본명 池大亨)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독립군의 편제를 정했다. 11월 중순의 편제를 보면 부사령관에 남대관, 참모관에 申肅, 재무겸 외교관에 安也山, 의용군 훈련대장에 李光雲, 의용군 중대장에 吳光鮮, 별동대 대장에 韓光彬, 헌병대 대장에 裴成雲, 중국구국군 후원회장에 권수정 등이었다.<sup>89)</sup>

창립 초기의 한국독립군은 지휘부 위주로 편성되었고, 실제 병력은 약 150명 정도였다. 연변이나 남만지역과 달리 북만지역은 한인 사회가 드문드문 산재한 데다가 500戶 이상 집단거주하는 한인사회가 거의 없어 그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창기 한국독립군은 중국항일군과 연계관계가 없어 오히려 중국군의 탄압을 받는 등 곤경을 치렀다. 하지만 11월 28일 중국군에 체포된 권수정의 적극 해명에 힘입어 총사령관 이청천과 참모신숙 등은 12월 초순 북만 중국항일 세력의 본거지인 賓縣에 가서 중국항일군과 연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sup>90)</sup> 빈현에는 일제의 침략에 야합하여 성립한 熙洽의 괴뢰정부에 반대하던 誠允이 11월 12일 길림성정부를 세우고 부근 10개 현을 기반으로 적극 항전하고 있었던 것이다.<sup>91)</sup> 이 때 양측에서 논의한 약속사항은 다음과 같다.<sup>92)</sup>

- ① 한·중 양군은 어떤 열악한 환경을 막론하고 장기항전을 맹세한다.
- ② 中東鐵路를 경계로 하여 서부전선은 중국군이 맡고, 동부전선은 한국군이 담당한다.
- ③ 한·중 양군의 전시 후방교련은 한국군의 장교가 부담하고, 한국독립군의

韓), <‘九一八’後韓國獨立軍在中國東北殺敵略史>, 《光復》 2-1, 1942년 1월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년 영인본, 53쪽).

8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1970), 599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0, 619쪽.

90) 趙擎韓, <韓國獨立軍與中國義勇軍聯合抗日記實> (《革命公論》 창간호, 洛陽, 1933 ; 독립기념관 소장 사본), 69쪽.

91) 郭廷以 編, 《中華民國事史日》 3(臺北: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1984), 106쪽.

92) 一靑(趙擎韓), 앞의 글, 53쪽.



소요일제 군수물자는 중국군이 공급한다.

위 협정에서 남만의 조선혁명군처럼 ‘한국(조선) 독립’이나 한국 독립전쟁의 지원과 같은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북만지역은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실상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하기가 매우 어렵고 정착한 한인 교민의 숫자도 적었으며, 한국독립군 자체의 역량이 조선혁명군 세력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는 초창기 한국독립당이 독자적 항일투쟁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는 전략보다는 중국항일군과 연대투쟁하여 ‘교전단체’로 인정받으려는 현실적 방침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sup>93)</sup> 때문에 우리는 소수의 무장조직이 다수의 중국군과 연대투쟁을 모색하여 난관을 타개하려 한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동선 철도의 동쪽을 한국독립군이 맡은 이유는 그곳이 산악지대가 많았으므로 유격전을 수행하기 유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후 한국독립군은 총사령부의 위치를 흑룡강성 依蘭縣으로 정하고 韓永浩 등을 당 중앙에 파견하여 위 내용을 보고했으며, 후방 각 군구의 조직들이 전선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sup>94)</sup> 이에 한국독립당은 동·북만의 각 지역을 縣 단위로 구분하여 趙擎韓·오광선·洪震(한국독립당 위원장) 등 12명의 정집책임자를 파견하고 각자 담당구역에서 새로 모집한 장정을 3·3제로 편성케 했다. 3·3제란 30명을 1개 소대, 3개 소대를 1중대, 3개 중대를 1대대, 3개 대대를 1연대로 편성하는 조직방침을 말한다. 또 한국독립군은 하사 이상 간부들을 소집한 재향군인 가운데서 우선 임명하여 초급훈련을 실시한 뒤, 총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지정구역으로 이동케 하고 추후 무기 등을 지급받아 작전에 임할 것을 결정했다.<sup>95)</sup> 이러한 분투 결과 1931년 말에는 약

93) 사실상 이러한 전략은 한국독립당·군의 취약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앞서도 언급한 바, 한국독립군의 주요 간부로 활약했던 조정환은 후일 자신의 회고록(앞의 책)에서 한국독립군이 만주의 중국의용군은 물론 중국 중앙군과도 공동작전을 펴고, 나아가 세계연합군의 교전단체로 참가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당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94) 趙擎韓, 앞의 글(1942), 53쪽.

300~500여 명의 대원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기와 장비 등은 별로 없어 실제 전투를 수행할 수 없었다.

#### 나. 중국의용군과 연합항전

1932년 1월 일본군은 만주 서북단의 齊齊哈爾과 만주의 서쪽 끝 錦州를 공략하고 또 대병력으로 하얼빈을 침공하였다. 이에 맞서 李杜·丁超·馮占海 등의 항일의용군 부대는 일제히 이 도시에 집결하여 일본군과 격전을 치른 뒤 1월 28일 적을 격퇴시켰다. 이들 부대는 원래 중국 동북정권의 지방주둔군이었기 때문에, 誠允이 영도하는 항일 길림성정부에 가담할 것을 선언하고 이달 31일 吉林自衛軍을 조직·선포하였다.<sup>95)</sup> 그리하여 이 항일세력은 약 1년 동안 괴뢰 만주국군 및 일본군과 격전을 치렀다.

이 해 1월 북만주의 오상·舒蘭 일대에서 조경한·權五鎭 등이 모병·편성한 한국독립군 1개 대대(270여 명 내외)는 본부가 있는 方正縣으로 이동하는 도중 약 2,000명 규모의 길림자위군 9사 謝復成 부대를 만나 이에 합류하였다. 이 부대는 ‘한국독립군 유격여단’으로 명칭을 붙이고 중국군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 공동투쟁하였다. 2월 초 이 합동부대는 한 지방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50여 일간 주둔하였다. 그러나 3월 말 경에는 오상현 一面坡 부근에서 일·만 연합군 대부대의 공격을 받고 패퇴하고 말았다.<sup>97)</sup>

한편 이청천이 이끌던 한국독립군 사령부는 이 해 2월 초 延壽縣에서 길림자위군의 王之維 부대와 연합하여 투쟁했지만, 일본군의 협공을 받은 중국군이 먼저 투항하는 바람에 세불리하여 패퇴하고 말았다. 한국독립군은 소수 인테다가 무기가 별로 없었던 연유가 컸다.<sup>98)</sup> 그러나 3월 하순 풍점해 부대와 함께 싸우던 安鍾鳴 부대는 阿城 공격전에서 크게 활약하여 독립군의 명성을 드높였다. 총사령관 이청천은 독립군 부대가 각지에 분산되고 충분한 장비와 병력이 없어 고전하게 되자 참모장 李宇精(본명 이규보)을 북경과 상

95) 趙擎韓, 앞의 책(1979), 96쪽.

96) 西村成雄, 《中國近代東北地域史研究》(京都: 法律文化社, 1984), 228~229쪽.

郭廷以 編, 앞의 책, 133쪽.

97) 張世胤, 앞의 글(1989), 338쪽.

98) 趙擎韓, 앞의 글(1933), 70쪽.

해 등지로 밀과하여 남경에 있던 중국 국민당정부의 원조를 요청케 했지만,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했다.<sup>99)</sup>

이후 한국독립군은 이청천 이하 400여 명의 병력으로 길림자위군의 考鳳林 부대와 함께 9월에서 11월에 걸쳐 1·2차 雙城堡 공방전을 치르는 등 크게 활약했다. 그러나 11월 하순 적의 대공세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고봉림 등이 투항하는 돌발사태가 일어나자 한국독립군도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sup>100)</sup> 이에 1932년 11월 하순 한국독립당 주요 인물들은 沙河子에서 당 중앙회의를 소집하고 새로운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북만지역에서 활동이 곤란 해졌으므로 군사활동 구역을 동만(북간도 : 연변 4개현)과 東寧·寧安 등으로 전환하고 이 지역에서 봉기한 吉林救國軍과 한중합작을 논의하며 장병을 증모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sup>101)</sup>

1932년 2월 초 연변에서 봉기한 王德林의 길림구국군은 한때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19사단의 간도파견군이 출동한 뒤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같은 해 12월 일본군의 대공세로 거의 궤멸되어 왕덕림은 시베리아로 도피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吳義成이 사령관 대리로서 姚震山·柴世榮 등의 잔존부대를 이끌고 동만의 산악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을 뿐이었다.<sup>102)</sup>

한국독립군은 1933년 1월 요진산 및 시세영 부대와 연합하여 4가지 방책을 수립한 뒤, ‘中韓聯合討日軍’을 편성하고<sup>103)</sup> 이후 6월까지 鏡泊湖전투, 四道河子 및 東京城전투 등을 치르며 동·북만주 일대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에 군수물자와 군비 등은 대부분 중국군측에서 부담하였는데, 한국독립군측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숙과 金尙德을 관내로 파견하여 군사금 지원을 요청하였다.<sup>104)</sup>

99) 위와 같음.

100) 趙擎韓, 위의 글(1933), 74쪽.

101) 趙擎韓, 앞의 글(1942), 55쪽.

102) 〈間島及接壤地方共匪・不逞鮮人の行動情況〉(국회도서관 소장 《일본 외무성·육해군성문서》 복사제책본 329권), 8880쪽.

103) 趙擎韓, 〈韓國獨立軍與中國義勇軍聯合抗日記實〉(《革命公論》 1-4, 1934년 4월), 66~67쪽.

한국독립군은 이 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500여 명의 군세로 2,000여 명의 시세영부대와 연합하여 大甸子嶺에서 철수하는 일본군 수송부대를 매복·기습하여 많은 군수물자를 빼앗는 대승을 거두었다. 군수물자의 노획이라는 측면에서 이 전투는 독립전쟁 사상 최대의 전과라 할 만했다. 1932년 4월 간도에 출동했다가 이듬해 6월 말 철수하는 일본군 75연대 등 보·포·騎·공병 혼성부대와 100여 대의 화물자동차, 500여 대의 우마차로 이루어진 수송부대를 太平嶺이라는 고개에서 저격하여 적을 섬멸했던 것이다.<sup>105)</sup> 이 전투에서 빼앗은 물자는 다음과 같았다.<sup>106)</sup>

박격포 등 각종 포 8문, 각종 기관총 110자루, 소총 580자루, 탄약 300상자, 수류탄 100상자, 권총 200자루, 도검 40자루, 군용지도 2,000여 매, 각종 문서 300여 부, 피복·담요·기타 군장비 2,000여 건, 장갑차 2량, 망원경 25개 및 약품 50상자 등(趙擎韓, 〈韓國獨立軍與中國義勇軍聯合抗日記實〉, 《革命公論》 창간호, 洛陽, 1933; 독립기념관 소장 사본, 71~72쪽).

대전자령 전투에서 대승한 한국독립군은 구국군과 협의하여 노획품을 분배한 후 약 40일간 羅子溝에 주둔하였다. 이 기간을 통해 무장을 강화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부대의 재편성과 전력강화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던 일제 당국은 이 전투 후 한국독립군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계를 강화하였다. 당시 일제의 간도총영사는 “민족과 불령단의 대두(樺甸縣) 지방에 근거하여 조선독립을 표방·행동해온 … 이 청천 일파는 근래 공산파가 반만항일공작에 기울어 민족주의와 공통점이 있자 최근 다시 대두하여 … 동지 200명을 규합, 中韓革命軍 반일철혈단이란 것을 조직하여 액목현 都林河 지방에 근거하여 간도평야 진출의 기회를

104) 위와 같음.

105) 張世胤, 앞의 글(1989), 353~355쪽.

106) 申益熙가 주도하던 한국혁명당 기관지로 추정되는 《革命公論》 4호에 실린 글이다. 이 글에 필자 이름은 없으나, 필자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조경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경한이 나중에 쓴 《백강회고록》의 내용과 줄거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전자령전투의 전과에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우려되기도 하지만, 전투 참가 당사자의 양식을 믿고 그 전과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엇봄”이라는 내용의 비밀보고를 올리며 한국독립군의 동향을 추적하고 있었다.<sup>107)</sup>

한편 이무렵 백두산 근처의 안도현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길림구국군 대리총사령 오의성은 대전자령전투에서 한중연합군이 대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를 이끌고 대전자 부근으로 이동해 왔다. 따라서 그 동안 독자적으로 활동해 온 시세영부대는 오의성 휘하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이 때부터 한국독립군과 중국군 사이에는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미 전리품 분배문제로 시세영 부대와 약간의 분쟁을 치른 뒤였고, 더구나 오의성 휘하에는 중국공산당에서 파견된 周保中 등 상당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존재하여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08)</sup> 특히 이 부대에는 한인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별동대가 따로 편성되어 있었다. 또 후보중이 이 부대의 참모장이 되면서 구국군 각 부대는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다.<sup>109)</sup> 이러한 경향은 동녕현성전투 이후 더욱 심해졌다.

## (2) 한국독립군의 해체와 주도세력의 관내 이동

한국독립군은 오의성 휘하의 시세영·史忠恒 등의 부대, 중국공산당 계통의 琿春·汪清유격대, 한인부대와 연합하여 중·소국경지대의 동녕현성을 공격하였다. 이 연합부대는 1933년 9월 6일 밤 이 성을 포위, 공략하여 거의 점령했으나, 만주국군과 일본군 연합부대가 대포와 장갑차 등 중화기를 동원한 격렬한 반격으로 한중연합군은 결국 패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110)</sup> 한중연합군은 많은 적을 무찔렀지만 결국 패주하게 되었고, 적은 많은 병력을 투입하여 계속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구국군 부대장 사충항이 부상당하는 등 중

107) 〈昭和 9年 5월 17日附 在間島永井總領事發信在滿大使報告摘錄〉중 〈昭和 8年 中間島及接壤地方重要治安事項月別表〉8月條(국회도서관 소장 《日本外務省文書》복사제책본 329권), 8836~8837쪽.

108) 趙擎韓, 앞의 책(1979), 144~146쪽.

109) 劉文信 編, 《東北抗日聯軍 第5軍》(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5), 19~20쪽.

110) 金東和 외 編著, 《연변당사 사건과 인물》(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44~145쪽.  
黑龍江省社會科學院 地方黨史研究所·東北烈士紀念館 編, 《東北抗日烈士傳》2(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1), 72~73쪽.

국군의 피해도 컸고, 한국독립군도 총사령 이청천이 부상당하고 군의관 姜振海 등 수십 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sup>111)</sup>

동녕현성 전투 이후 한국독립군은 이들 부대와 함께 대전자에 주둔하였다. 그런데 이 때 참모장 주보중은 陳翰章 등 다수의 중국공산당원과 함께 구국군 부대의 공산화와 통일전선공작을 진행시키고 있었다.<sup>112)</sup> 또 유격대에는 다수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독립군은 차츰 이들과 대립하게 되었고, 주보중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던 오의성 부대내에서 고립되어 갔다. 여기에 연변지방 한인들의 다수가 좌경화하여 한국독립군의 활동은 더욱 어려워졌다.

같은 해 8월 초 오의성 등은 한국독립군에 대해 구국군에 합류·편성될 것과 무기의 절반 이상을 넘기라는 무리한 요구를 몇 차례나 강요하였다.<sup>113)</sup> 이러한 요구는 대전자령 전투 이후 전리품 분배시 발생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요구는 거부되었다. 더욱이 주보중과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한국독립군 장병들이 1932년 2월 龍井에서 성립한 친일반공단체 民生團과 내통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음해하기까지 했다. 그러한 몇 가지 요인으로 오의성은 산하 부대를 동원하여 한국독립군을 포위하고 무장을 해제하며, 상당수의 장교와 사병들을 무고하게 구금하는 사태를 일으켰다.<sup>114)</sup> 이른바 ‘민생단 사건’은 후일 중국공산당계 유격대와 동북인민혁명군에 적극 가입하여 투쟁하고 있던 다수의 한인들에게 ‘일제의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한·중 양 민족 사이는 물론 서로 믿고 지내던 동지간에도 분열과 의심을 조장했던 중대한 사건이었다.<sup>115)</sup> 이무렵 동만지역에서는 이미 유격대 안에서 소위 ‘反民生團’ 투쟁이 전개되어 무고한 한인들이 다수 희생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여파가 한국독립군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 같은 위기는 시세영 등 일부 간부들의 변호와

111) 趙擎韓, 앞의 책(1979), 212쪽.

112) 黑龍江省社會科學院 地方黨史研究所·東北烈士紀念館 編, 앞의 책, 86쪽.

113) 池憲模, 《靑天將軍의 革命鬭爭史》(삼성출판사, 1949), 150~151쪽.

114) 趙擎韓, 앞의 글(1934), 72~73쪽.

115) 민생단 사건에 대해서는 金成鎬, 《1930년대 延邊 민생단사건 연구》(백산자료원, 1999) 참조.

독립군측의 항의로 가까스로 극복되었으나, 한국독립군이 중국의용군과 결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구국군의 포위를 벗어나기 위해 다수의 장병이 흩어지거나 도주한 데다가, 구국군에 대한 반감이 깊어져 더 이상의 공동투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한국독립군은 8월 12일 경 그곳을 떠나 이후 동녕과 영안현 등 산악지대를 전진했다. 또 이무렵 간부회의를 열고 소규모 유격작전 위주로 적과 싸우며, 열악한 생존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병사들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군사활동을 전개하는 屯田制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sup>116)</sup>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은 실현되기 어려웠다.

한국독립군이 이처럼 악전고투하고 있을 때 관내에 있던 金九와 의열단을 이끌었던 金元鳳 등은 중국 국민당정부의 협조로 한인 청년들을 중국 군관학교에 입학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조국의 독립전쟁에 대비한 정예간부를 양성코자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중앙육군군관학교 洛陽分校에 ‘한국청년군사간부 특별훈련반’을 설치하고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군의 주요 간부들과 청년들을 관내로 이동시켜 교육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때 이청천이 교관겸 책임자로 선정되었다.<sup>117)</sup>

김구는 일찍부터 만주지역 독립군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때문에 윤봉길·이봉창의 의거 이후 중국 국민당정부 요인들의 신임과 지원을 받고 있던 김구로서는 만주 독립군 요원들을 관내로 이동시켜 군사훈련을 시킴으로써 무장투쟁의 기반과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반임시정부 계열에서 통합운동을 추진하고 있던 ‘對日戰線統一同盟’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였다.<sup>118)</sup> 김구의 군사훈련계획은 1933년 10월 초순 이규보·오광선 등을 통해 한국독립군에 전해졌다. 이에 따라 10월 20일 경 마침내 한국독립당 당수 홍진 및 총사령 이청천, 조경한·오광선·公震遠(본명 高震起)·金昌煥 등 한국독립군 주요 간부들과 병사 가운데서 선발된 군관학교 입학지원자 등 40여 명은 중간

116) 趙擎韓, 앞의 글(1934), 74쪽.

117) 趙擎韓, 앞의 책(1979), 210·217쪽.

118) 한상도, <재만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의 관내지역 이동> (《한국독립운동과 국제환경》, 한울아카데미, 2000), 156·170쪽.

거점인 北京을 거쳐 중국관내로 먼저 이동하게 되었다.<sup>119)</sup> 이들 중 홍진·이청천·조경한 등 일부 간부는 관내 이동 초기에는 조선혁명당과 민족혁명당 등 반임시정부 및 反김구 계열에서 활동했으나, 나중에는 결국 통합 한국독립당 및 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 이 때 이동한 34명의 청년들은 중국군관학교 낙양분교 특별훈련반에 입학하여 군사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이 해 12월에 입학하여 1935년 4월 졸업하였다.<sup>120)</sup> 관내지역 이동 직후 이들은 김구 계열과 이청천 계열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했다.<sup>121)</sup> 그러나 이들도 이후 조직된 조선의용대나 광복군에 참여하여 만주독립군의 무장투쟁론을 계승·발전시키며 관내지역 독립운동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사령관 등 주요 성원들이 만주를 떠나게 되자 사실상 한국독립군의 활동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崔岳과 安泰振 등이 거느리는 일부 지대가 密山·虎林 등의 산악지대에서 활동하며 항전을 지속했지만 이들의 활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으며, 큰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다. 이들은 얼마 후에 적과 싸우다 희생되

119) 김 구, 《백범일지》(서문당, 1989), 309쪽.

신 숙, 《나의 一生》(日新社, 1963), 124~125쪽.

한상도, 위의 글, 168쪽.

120) 胡春惠·辛勝夏 譯,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단국대출판부, 1978), 52쪽.

121) 이청천과 김구의 갈등은 1934년 8월 김구가 자파계열의 입교생을 한인특별반에서 퇴교시킴으로써 파국을 초래하고 말았다. 김구는 南京지역의 다수 한인 민족운동가들이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거쳐 유력한 독립운동 정당인 ‘조선 민족혁명당’ 창당을 가시화하고 있는데 대한 반발로 해석할 수 있다(한상도, 앞의 글, 162쪽).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국독립군 세력은 물론 김학규와 최동오 등 조선혁명당·군 출신 인사들도 관내지역으로 이동한 직후 임시정부와 별개로 조직되고 있던 통합정당 ‘민족혁명당’에 가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주 독립군 세력이 관내지역으로 이동한 직후부터 임시정부에 합류했다는 기존의 통설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관내지역에 이동한 뒤 다양한 행태를 보였지만, 그중 다수는 관내 민족운동 세력, 혹은 중국 관민과 연계하여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을 지원·활성화하려는 “운동기반 확충과 기회포착”의 논리를 유지했다고 추측된다(한상도, 앞의 글, 163쪽 및 신주백, 앞의 책, 332~333쪽). 또한 임시정부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거 이후 上海를 떠나 유랑하다가 1939년 重慶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김구 역시 1932년 6월부터 1935년 10월까지 임시정부를 이탈한 상태였기 때문에 김구 개인차원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 군관학교 한인특별반이나 ‘한인특무독립군’ 조직을 곧바로 임시정부 조직과 관련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465~466쪽).



거나 흩어져 버렸고, 일부 인사들은 중국공산당 계열의 유격대나 동북인민혁명군 등에 참가하여 투쟁을 계속했다. 결국 1932~1933년 북만과 동만 일대에서 적지 않은 전과를 거두었던 한국독립군이 해체됨으로써 북만주 지역 민족주의계열 독립군의 활동은 끝나고, 대신 적지 않은 한인들이 중국공산당 만주조직이 영도하는 항일부대에 참가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 3) 동북항일연군내 한인들의 활약과 조국광복회

#### (1) 한인들의 중국공산당 입당과 항일유격대의 성립

중국 동북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은 중국인보다 먼저 한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朴允瑞와 朱靑松 등은 이미 1923년 9월 연길현에 있는 東興중학교를 중심으로 ‘고려공산청년동맹’의 지부를 조직해서 활동했다.<sup>122)</sup> 이들은 코민테른(Comintern, 국제공산당) 산하조직인 코르뷰로(고려국) 내의 한인 조직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다. 또 1926년 5월에는 국내 조선공산당의 해외조직인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북만주 寧古塔에 세워졌다.<sup>123)</sup>

반면 중국공산당은 1927년 10월에야 봉천(현재의 심양)에 ‘중국공산당 만주임시성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그 해 가을에는 이 조직 아래 ‘중국공산당 동변도 특별위원회(동만특위)’를 세우고 1928년 2월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용정에 중국공산당 용정촌 지부를 조직했다.<sup>124)</sup> 그러나 1920년대 후반 만주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은 한인들의 역량이 훨씬 우세했다. 이에 따라 중공당 만주성위원회는 성립 직후부터 한인 농민과의 연계 및 토지소유권 부여, 조선공산당 조직과의 연대강화 등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었다.

한편 1928년 12월 코민테른 제6회 대회 이후 조선공산당은 승인이 취소되었고, 국내 공산당재건운동도 일제의 탄압과 운동역량의 미숙 등으로 실패했

122) 임경석, <20년대 중국동북지역의 조선인 만주 공청그룹>(《이공법교수 정년기념논총》, 지식산업사, 1993), 695쪽.

123)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4(청계연구소, 1986), 284·301쪽.

124) 《조선족략사》 편찬조, 《조선족략사》(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6; 1989년 백산서당 재간본), 99쪽.

다.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은 이처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코민테른과 중공당에서 ‘一國一黨原則’을 내세우고, 또한 1929년 말부터 내부에서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중국혁명’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결국 중국공산당에 합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국일당의 원칙이란 중국영토인 만주에는 중국공산당 조직만 인정될 수 있다는 공산당 조직상의 논리이다.

사실 한인 조선공산당원의 중공당 입당배경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1929년 세계대공황이 만주에도 미침에 따라 많은 농민들이 파산하고 계급별·민족별 대립이 심화되었던 상황, 중국인 지주와 한인 소작농으로 상징되는 모순관계의 심화, 그리고 장학량으로 대표되는 중국 군벌정권체제 하에서 중국공산당과 무관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드러낸 일정한 한계와 파벌대립 등을 지적할 수 있다.

1930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조선공산당 각과 만주총국은 조직을 해체했고, 그 구성원들은 중국공산당 만주조직에 가입하게 되었다. 한인 당원들이 중공당에 가입하기 전에 만주지역 중공당원은 1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직후에는 2,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또 지방조직도 12개에서 55개로 확대되었는데, 당원의 85%가 한인이었다.<sup>125)</sup> 특히 1930년 연변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된 ‘간도 5·30 봉기’와 吉敦봉기 및 추수투쟁 등 일련의 대중투쟁을 계기로 한인들이 대거 입당하고 중공당 만주조직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이 해 4월 경 길림지방 농민협회 회원은 2,000여 명에 달했고 대부분이 한인이었는데, 이들은 중공당 만주성위의 외곽단체 역할을 수행했다.<sup>126)</sup>

1931년 9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9·18사변’이 일어나자 중공당 만주성위는 그 직후 각종 선언을 발표하고 적극 항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조직이 실제로 일제와 싸울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때 중공당 만주성위 산하로 1930년 10월 성립한 동만특별위원회는 항일투쟁이 점차 고양되는 정세에 부응하여 〈일제의 만주점령을 반대하는 긴급결의안〉

125) 김동화, 《중국조선족 독립운동사》(노티나무, 1991), 126쪽.

126) 金陽 主編, 앞의 책, 84쪽.

과 〈농민운동결의안〉 등을 발표하여 한인들이 많은 동만지역을 중심으로 농민운동에 주력하였다.<sup>127)</sup> 그리하여 이들은 1931년 가을의 추수투쟁과 이듬해 봄의 春荒투쟁 등의 대중봉기를 주도하며 절박한 농민들의 생존권 쟁취요구를 반제·반봉건투쟁으로 결합시켜 중공당 만주조직의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1931년 10월 남만주의 伊通에서 창건된 적위대(일명 개잡이대, 打狗隊)는 만주지역에서 중공당이 이끄는 첫 무장조직이었다. 이 적위대의 대장 李紅光을 비롯한 청년 7명은 모두 한인이었다. 남만에서는 이 작은 적위대가 바탕이 되어 1932년 6월 ‘磐石工農反日義勇軍(약칭 반석의용군, 반석유격대)’으로 발전했는데, 역시 대부분의 대원이 한인이었다. 이 유격대는 12월에 구동북군계 漢族 부대와 통합되어 ‘중국 노농홍군 제32군 남만유격대(약칭 남만유격대)’로 개편되었다.<sup>128)</sup> 남만유격대는 1933년 1월 말부터 5월 초까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반석의 근거지를 포위 공격하는 일본군과 만주국군, 일제에 투항한 마적 등을 상대로 60여 차례의 공방전을 치렀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근거지를 개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무렵 이 유격대의 규모는 250여 명이었는데, 주요 간부 다수와 대원의 1/4 가량이 한인이었다.<sup>129)</sup> 때문에 남만유격대는 사실상 한·중 양민족의 연합부대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같은 비율은 남만지역 당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sup>130)</sup>

한편 동만주에서도 적위대를 개편한 연결현 유격대가 1932년 결성되었다. 또 적위대와 평강유격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어랑촌 유격근거지에서 화룡유격대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왕청현에서는 18명으로 이루어진 돌격대를 바탕으로 유격대가 발족했고, 여기에 별동대·안도유격대 등이 편입되어 왕청유격대로 확대되었다. 훈춘에서는 이 해 9월 영북유격대와 영남유격대가 조직

127) 黃龍國 主編, 《조선족혁명투쟁사》(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88), 217쪽.

128) 孫繼英·周興·宋世章, 《東北抗日聯軍 第1軍》(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6), 20~22쪽.

129) 《東北抗日聯軍史料》編寫組 編, 《東北抗日聯軍史料》上(北京: 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7), 87쪽.

孫繼英·周興·宋世章, 앞의 책, 23·40쪽.

130) 김창국, 《남만인민항일투쟁사》(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6), 149쪽.

되었다가, 1933년 두 조직이 통합되어 훈춘유격대로 발전하였다. 1933년 경 동만지방 4개현 유격대의 대원은 360여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90% 가량이 한인이었다.<sup>131)</sup> 이들 4개현 유격대는 중국 노농홍군 제32군 동만유격대로 편제되었다가 이후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로 크게 발전하였다.<sup>132)</sup>

또한 북만주의 경우 1933년 4월 경 許亨植 등이 湯原에서 유격대를 창건했으나, 일제의 탄압 등으로 한 달도 못되어 와해되고 말았다. 그러나 중공당 珠河중심현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동북의용군 계통의 패잔병과 李啓東 등 13명의 한인들을 바탕으로 珠河반일유격대를 창건하였다.<sup>133)</sup> 대장은 한족 趙尙志였는데, 이 유격대는 1934년 6월 말 다른 항일의용군과 항일마적 등을 수용하여 ‘동북반일유격대 哈東지대’로 확대되었다. 이 무장조직이 확대·발전하여 1935년 1월 말 동북인민혁명군 제3군 제1독립사로 개편된다.<sup>134)</sup> 동만이나 남만유격대와와는 달리 북만지역의 유격대 가운데서 한인들의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창설 초기 한인 간부진의 구성이나 이들의 활약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 (2) 동북인민혁명군(동북항일연군)의 성립과 한인들의 활약

1930년대 초 중국공산당은 소위 李立三 노선과 王明 노선으로 불리는 잘못된 방침을 채택하여 당시의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좌경화된 전술을 채택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면 만주지역에서 ‘한인자치’나 ‘간도독립’·‘한인 소비에트’ 등의 독자적 요구와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중국공산당 중앙은 이를 반대하고 관내지방과 마찬가지로 민중자치정권인 소비에트정권과 紅軍을 세우라고 무모하게 지시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항일투쟁이 고양되는 정세하에서 중공당 만주성위원회는 각종 항일부대를 적대하고 모든 지주나 자본가를 타도하여

131) 신주백, <1930년대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사》 16, 한길사, 1994), 277쪽.

132) 강만길, 앞의 책, 101쪽.

133) 劉 風, 《東北抗日聯軍 第3軍》(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6), 15·20쪽.

134) 장세운, <허형식 연구-동북항일연군내 주요 한인 지도자의 항일투쟁 사례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3), 386쪽.

그들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그릇된 방침을 세웠다. 그리하여 자신의 적을 만  
들어 입지를 약화시켰고, 곤란한 정세를 자초하였다.<sup>135)</sup>

그러나 이러한 잘못은 1933년 1월 말부터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은 만주성위원회에 지시한 <만주의 각급 당부 및 전 당원에  
게 주는 편지—만주의 상황과 우리 당의 임무에 대하여>에서 노동계급의 영  
도권 견지를 전제로 한 반제통일전선의 형성을 제기했던 것이다.<sup>136)</sup> 중공당  
만주성위는 이에 따라 좌경오류의 시정, 모든 반일역량을 연합한 반일반제투  
쟁의 전개, 선출된 민중정부 및 인민혁명군의 건립 등을 긴급한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분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에 있던 반일유격대를  
기초로 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의 성격이 강화된 ‘동북인민혁명군’을 건립하  
게 되었다.

하지만 중공당 만주성위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좌경’의 오류는 1935  
년 경까지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다. 특히 동만(연변) 지역에서 전개된 ‘반민생  
단 투쟁’으로 1932년 말부터 1935년 중반까지 이 지역에서 무고한 한인 독립  
운동가 431명이 밀정협의를 받고 희생되는 참변이 있었던 것이다.<sup>137)</sup> 한인들  
은 ‘중국혁명’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통해 ‘조선혁명’, 즉 조선(한국)의 독립과  
민족해방이 이룩된다는 신념으로 반제투쟁에 참가했으나, 이 시기에는 중국  
인들의 배타주의와 중공당 만주성위 내부의 좌편향으로 자신들의 궁극적 이  
상인 ‘조선혁명’을 제기할 수조차 없었다. 그 결과 성립 초기 중공당계 무장  
조직의 핵심을 이루었던 한인 세력은 민생단 사건 이후 현저히 위축되고 영  
도간부의 다수가 漢族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무렵 상당수의 한인  
들이 박해를 피해 도주하거나 변절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중공당 만주성위는 이러한 사정에서도 중앙의 지시에 따라 동북인민혁명  
군을 건립하고 만주 각지에서 봉기한 항일의용군 등과 연합작전을 추진하였  
다. 그 사례가 바로 앞에서 밝힌바 한국독립군도 참여한 1933년 가을의 동녕

135) 김동화, <중국조선족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의 역사적 고찰>(《당대  
중국 조선족연구》,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1993), 15쪽.

136) 《東北抗日聯軍史料》編寫組 編, 앞의 책, 41~57쪽.

137) 김동화, 앞의 글, 16쪽.

현성 전투이다. 이 전투에는 왕청·훈춘유격대원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중국공산당 반석현위원회와 남만유격대는 항일투쟁이 점차 격화되고 유격대의 역량이 성숙함에 따라 1933년 8월 남만유격구와 유격대대표자회의를 열어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독립사를 건립키로 했다. 그리하여 일제의 만주 침략 2주년이 되는 그 해 9월 18일 반석에서 이 부대의 성립을 정식으로 선포했다.<sup>138)</sup> 이 무장세력은 만주에서 가장 먼저 결성된 중공당 계통의 정규군인 셈이었다. 때문에 성립선언과 정강, 사병우대 조례, 각종 선언문 등을 발표하여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문건 가운데 한국(조선) 독립(해방)이나 혁명의 지원을 직접 표방한 내용은 없었다. 사실 1931년 5월 중공당 만주성위원회는 〈만주 한국민족문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한국혁명을 원조해야 한다고 했지만,<sup>139)</sup> 1930년대 초의 좌경화된 분위기하에서 위의 원칙은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1군 독립사는 1934년 11월에 2개 사로 분화·발전하였다.

창건 당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독립사는 300여 명 규모였는데, 師長 겸 정치위원은 한족 양정우였다. 반면 참모장 이흥광과 소년영장 朴浩, 3단 단장 韓浩 등 주요간부가 한인이었다. 이 조직의 1/3 가량은 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군 독립사는 1933년 말에서 이듬해 초까지 많은 전투를 치렀으나, 이 가운데 유하현 三源浦 공략전과 凉水河子·八道江 전투 등이 유명하다. 특히 1935년 2월 13일 새벽 이흥광이 2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평안북도 후창군 동흥읍을 습격한 전투는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킨 국내진입작전으로 유명했다.<sup>140)</sup> 이는 1930년대 만주 항일무장투쟁 세력 최초의 대규모 국내진입작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34년 동만주에서 한인 朱鎮을 사장으로 성립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는 안도현과 왕청현 일대에서 한 해 동안 900여 회의 전투를 치르며 유격근거지를 방어하였다. 이른바 일제의 ‘제3기 치안숙정계획’을 무산시킨 것이다. 2군 독립사는 1,200여 명의 병력과 980여 정의 총을 갖고 있었

138) 孫繼英·周興·宋世章, 앞의 책, 46~47쪽.

139) 楊昭全·李鐵環 編, 앞의 책, 733쪽.

140) 《조선일보》, 1935년 2월 15일.

는데, 그 병력의 2/3가 한인이었다. 따라서 사실상 이 항일부대는 조선혁명군이나 한국독립군과 같은 민족주의계 독립군과 이념을 약간 달리할 뿐, 일제 타도라는 목표와 그를 위한 역할의 수행은 비슷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중공당 반석현위원회는 1934년 3월 경 신빈일대에서 강고한 세력을 형성하며 완강히 일제와 싸우고 있던 조선혁명군과 국민부에 사람을 파견하여 병사들을 중심으로 한 연대공작을 진행하라고 1군에 지시했고,<sup>141)</sup> 이후 양 부대는 일정한 연대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북만주의 密山에서는 1934년 3월 40여 명의 밀산 반일유격대가 조직되었는데, 역시 한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 유격대는 그 해 9월 중국의용군과 연합하여 동북항일동맹군 제4군으로 편성되었다. 또 1932~1933년 경 탕원현에서 발족한 탕원유격대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여러 차례 전투를 거치며 그 대원이 6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이 유격대는 1936년 초 주변의 자위단·경찰 등을 흡수하여 동북인민혁명군 제6군으로 편제되었다.<sup>142)</sup>

이상에서 서술한 것처럼 남만지방을 활동기반으로 하는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과 동만지방을 근거로 하는 2군은 한인이 주력을 이루었고, 사실상 이 시기 중공당계 산하부대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1930년대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재만 한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많은 어려움을 수반했다. 더욱이 1933년에서 1935년 사이에 일제는 자체의 무력과 괴뢰 만주군 군경·관헌을 동원하여 혹심한 탄압을 자행했다. 이에 따라 동북인민혁명군은 적의 포위공격을 돌파하기 위해 남만과 북만의 평야지대로 진출하여 유격전을 벌이는 전술을 모색하게 되었다.

1935년 8월 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민당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쫓겨가고 있던 도중에 소위 <8·1선언>을 발표하고 내전중지와 거국적 국방정부의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듬해 12월 장학량(蔣介石)을 규금하는 ‘西安事變’이 발생하여 관내에서 제2차 국공합작이 성사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8·1선언>은 항일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었는

141) 〈中共磐石中心縣委員會給人民革命軍第1軍獨立師全體黨・團同志的信〉(《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 36), 195쪽.

142) 강만길, 앞의 책, 101쪽.

데, 각 당파와 민족, 모든 계층을 망라한 항일연합군의 조직을 명시했다.<sup>143)</sup> 이 선언에 따라 중국공산당 만주조직은 1936년 1월 회의를 소집하고 각 항일부대를 ‘東北抗日聯軍’으로 재편성기로 결정했다. 이리하여 종래의 동북인 민혁명군과 여러 항일부대가 결집되고 중국공산당 만주조직이 영도하는 동북항일연군이 제1군부터 11군까지 결성된다.

이후 만주지역 무장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즉 중공당 만주조직은 항일투쟁을 위해 각계 각층과 연대하는 것은 물론, 재만한인들의 조국광복운동 직접원조와 자치구 건설, 한인을 위한 항일전쟁의 원조를 결의하였던 것이다.<sup>144)</sup> 이에 따라 한인으로만 조직된 독립부대의 창설도 고려되었지만, 한인 간부들 스스로 활동상의 어려움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종전처럼 중국인과 함께 혼합부대를 편성·유지키로 하였다. 동북항일연군 가운데 한인이 많았던 1군과 2군, 특히 2군은 한·중 양 민족의 연합을 실현한 ‘독립군’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는 일본 관련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3개師와 교도대, 기타 연계세력을 합쳐 2,000여 명으로 추정되던 동북항일연군 제2군의 경우 절반 가량이 한인이었고, 특히 金日成이 이끄는 제3사 병력의 대부분이 한인이었다는 점으로 뒷받침된다.<sup>145)</sup>

그러나 일제의 ‘토벌’이 강화되자 동북항일연군 1군과 2군은 1936년 7월 통합되어 양정우를 총사령으로 하는 제1로군으로 재편성되었다. 이 때 제2군 1·2·3사는 각각 4·5·6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가운데 한인이 많은 6사(사장 김일성)와 4사는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백두산 일대로 진격하여 유격구를 건설하였다. 그 뒤부터 長白縣 등 백두산 일대는 1940년 경까지 재만한인 항일무장투쟁의 주요 중심지가 되었고, 항일민족통일전선 조직을 표방하며 조직된 ‘在滿韓人祖國光復會’ 건설 및 국내진입작전의 근거지가 되

143) 日本國際問題研究所中國部會 編, 《中國共產黨史資料集》7(京都: 勁草書房, 1973), 521~526쪽.

144) 김동화, 앞의 글, 19쪽.

145) 강만길, 앞의 책, 103쪽.

李鴻文 著, 양필승 옮김, 《만주현대사》(대륙연구소출판부, 1992), 120~121쪽. 吉林省檔案館 編譯, 《東北抗日運動概況(1938~1942)》(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86, 41~42쪽).



었다.<sup>146)</sup> 특히 6사는 1937년 6월 80여 명의 병력으로 함경남도 혜산군 普天堡를 기습하여 일제 통치기관을 파괴하는 등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전투 이후 동북항일연군내 한인 부대의 활약이 국내 대중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sup>147)</sup>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조국광복회의 조직이 일제에 탄로되어 붕괴되는 손실을 초래했고, 일제 군경의 집요한 추격을 촉진하는 역기능을 가져오기도 했다.

1936·1937년 경 동북항일연군은 동·남·북만 등 각지에서 큰 세력을 이루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물론 재만한인들도 여기에 대거 참여하여 많은 활약하였다. 이무렵의 주요 한인간부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sup>148)</sup>

146) 1930년대 중반 중국 동북에서 추진된 ‘항일민족통일전선’ 조직으로서의 ‘조국광복회’는 추진주체도 다양했고, 그 명칭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즉 東滿과 南滿·北滿, 혹은 조선 북부지방 등지에서 (反滿)항일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한인 지도자들은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여러 경로와 조직, 인물을 통해 광범한 항일투쟁 세력을 결집하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우선 명칭에서도 ‘재만(동만)조선인조국광복회’(동만, 중국공산당 문서), ‘재만한인조국광복회’(남만), ‘재만조선민족광복회’(북만), ‘한인조국광복회’(국내), 기타 한인민족광복회, 조국광복회, 조선조국광복회 등의用例를 찾아볼 수 있다(周保中, 《東北抗日遊擊日記》, 北京:人民出版社, 1991, 136·139·142쪽; 中央·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檔案館 編, 〈中共吉東省委寶清巡視員給崔希亨同志的信—關於目前形勢及在滿朝鮮人祖國光復會群眾運動, 工作等問題〉,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 28, 1989, 259~261쪽; 內務省警保局 保安課, 《特高月報》1939년 8월호, 110~111쪽). 또 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회장으로 추대된 인물에 대해서도 몇 가지 다른 기록이 있는 실정이다. 남만 지역에서는 주지하듯이 吳成崙(가명 全光)·嚴洙明(본명 嚴弼順)·李相俊(가명 李東光) 등이 발기인으로 나서 이 조직을 주도하였다(《思想彙報》14호, 63~64쪽). 그러나 동만지역에서는 金東鳴(김일성의 가명)·이동백·呂運亨 등이 발기인으로 되어있고, 김일성이 회장에 추대되었다는 설도 있다(장덕순 외, 《조국광복회운동사》, 지양사, 1989, 109쪽). 또 북만 지역에서 활동하던 김책은 1942년에 ‘북만조국광복회’ 회장의 이름으로 선전물을 살포하기도 했다(〈대담: 중국 연변, 민족해방운동사 연구의 고민과 과제〉, 《역사비평》1993년 겨울호, 273쪽).

147) 강만길, 앞의 책, 104쪽.

148)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 연구(1925~1940)》(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6), 392쪽.

〈표 3〉 1936·1937년 경 동북항일연군내 주요 한인 간부 현황

부 대		결성날짜	주요 한인 직책과 명단
제1로군	1군	1936. 7	참모장 安光勳, 1사 참모장 李敏煥, 2사 참모장 李希敏·李興紹, 정치부 주임 全光(본명 오성륜), 8단장 玄基昌 3사 정치부 주임 柳萬熙
	2군	1936. 3	정치부 주임 전광, 4사 사장 安鳳學, 참모장 朴得範, 1단장 崔賢, 정치위원 林水山, 제6사 사장 김일성, 7단장 金周賢, 정치위원 洪範·金在範, 독립려 1단장 崔春國
제2로군	4군	1936. 4	정치부 주임 黃玉淸, 정치주임 康山, 2사 부사 장검 4단장 李學福, 정치부 주임 崔榮華, 참모장 崔庸健, 4사 정치부 주임 朴德山
	5군	1936. 2	2사 4단 정치위원 金光俠, 5단 정치위원 朴東和, 3사 8단 정치위원 姜信泰, 경위려 1단 정치위원 姜信一
	7군	1936.11	대리군장 최용건, 군장 이학복, 군·당 위원회: 집행위원 金鐵宇·특별위원 金品三, 1사 정치위원 李侑平, 3단장 金昌海, 2사 참모장 金鐸, 4사장 金世昌
	8군	1937. 7	1사 정치위원 및 3사 정치부 주임 金根
제3로군	3군	1936. 8	군장 許亨植, 정치부 주임 金策
	9군	1937. 1	정치부 주임 허형식
	11군	1937.10	정치부 주임 金正國

1938년 경 동북항일연군의 규모는 1,850명 정도였다. 여기에는 중국공산당 계통 직속부대 외에도 다수의 각종 항일부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상당수의 대원이 희생되었고, 일제의 탄압과 회유공작이 극심해짐에 따라 차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의지가 굳지 못한 일부 참가자들이 변절하거나 도주·투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여 항일연군 제1로군은 警衛旅와 3개 方面軍으로 편제를 바꾸어 무장투쟁을 계속했다. 이 가운데 4사와 5사가 통합되어 편성된 제3방면군은 60% 정도의 대원이 한인이었고, 역시 종래의 제6사가 개편된 제2방면군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한인이었다.<sup>149)</sup> 이 부대는 남만주와 백두산 일대에서 유

149) 강만길, 앞의 책, 104쪽.

격전을 전개하며 적에게 큰 타격을 가하였다.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이 1937년 초·중반 일제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고, 결국 1938년 2월 동북항일연군에 편입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인이 다수를 이루는 이 시기의 항일연군 제2·3방면군은 사실상 독립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일본 관동군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에 한인 영도간부가 많고 특히 한인들을 대상으로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등 민족주의성향이 농후하다고 평가하였다.<sup>150)</sup>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물론 중국인들도 가끔 이 부대를 ‘조선인민혁명군’이나 ‘조선혁명군’으로 부르기도 하였다.<sup>151)</sup>

### (3) 조국광복회의 결성과 ‘항일민족통일전선’의 확산

코민테른은 1935년의 7차대회에서 식민지 피압박민족 민족해방운동의 지와 식민지 및 종속국 인민의 해방을 결의했고, 반파시즘 통일전선의 결성을 채택했다. 이러한 방침은 중국공산당의 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공산당은 한민족의 독립쟁취를 지원하기 위해 항일연합군을 조직하는 것은 물론, 독립운동을 이끌어 갈 중추기관으로서 ‘항일민족혁명당’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up>152)</sup> 이에 따라 1936년 초부터 만주에서 동북항일연군이 조직되고 조국광복회라는 독립운동 조직이 통일전선 조직체를 표방하며 결성되었다.

한인이 다수를 차지했던 동북항일연군 제2군은 한·중 국경지대와 남만주 일대에서 활발한 투쟁을 벌여 조국광복회가 창건될 기초를 닦았다. 이에 중국공산당 만주조직(동만특별위원회)과 제2군의 주요 간부들은 한인의 자치문제와 항일민족통일전선 조직, 그 산하 대중조직의 결성문제, 그리고 민족별 무장부대와 중공당 하부조직의 편성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일

150) 吉林省檔案館 編譯, 앞의 책, 86쪽.

151) 于 偉, 〈三年來東北義勇軍鬭爭的總檢閱〉(《東方雜誌》32-6, 1935년 3월), 58쪽. 《重慶大公報》, 1939년 8월 3일.

秋憲樹 編, 《資料 韓國獨立運動》4(下)(연세대출판부, 1975), 1594~1596쪽.

152) 〈中共吉林省委致饒河中心縣委給四軍四團的信—關於建立七軍, 對敵鬭爭的方式及城市工作策略問題的指示〉(《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甲 28, 1936), 10쪽.

련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즉 항일민족통일전선 방침의 구체적인 정립과정으로서 北湖頭 회의(1936. 2. 5~6), 迷魂陣 회의(1936년 3월 상순), 東崗 회의(1936년 5월 초)의 결정에 따라<sup>153)</sup>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였던 것이다.<sup>154)</sup> 나중에 남만지역에서 1936년 6월 10일 오성륜(전광)·嚴洙明·李相俊(이동광) 등 세 사람의 발기인 명의로 발표된 〈재만한인조국광복회선언〉은 “전민족의 계급·성별·지위·당파·연령·종교 등의 차별을 불문하고 백의 동포는 반드시 일치단결 꺾기하여 원수인 왜놈들과 싸워 조국을 광복시킬 것”을 밝히며 광범한 항일민중의 참여를 촉구하였다.<sup>155)</sup>

조국광복회는 먼저 남만주 지역에서 동북항일연군 제2군 3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36년 7월 진행된 河里會議 결과 중국공산당 남만특별위원회와

153) 이러한 일련의 회의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신주백, 앞의 책(1999), 433~453쪽.

북한측 자료에 따르면 조국광복회는 15일간이나 계속된 동강회의 결과 1936년 5월 5일 창립되었다고 한다. 이 때 발표된 조국광복회 〈창립선언문〉에는 김동명·이동백·呂運亨 세 사람의 이름이 공동 발기인으로 기재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이동백 등 주위 관계자의 권유에 따라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너무 젊은 나이에 회장으로 추대되는 것이 어색해서 金東鳴이란 가명을 썼다고 주장한다.

154) 현재 조국광복회의 결성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즉 1936년 5월 초(5일) 결성되었다고 보는 시각과 1936년 6월 10일 결성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1936년 3월 경 벌써 東滿지역 항일투쟁 세력 사이에 ‘재만조선인조국광복회’의 명칭이 거론되고, 운동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북만지역에서조차 1936년 5월에 이미 “한국독립과 동포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인민통일전선’을 high하는 선전문건이 뿌려지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滿洲國 軍政部 顧問部, 앞의 책, 126·729~730쪽). 따라서 전자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주도로 1936년 5월 5일 이 조직이 결성된 것으로 널리 선전되고 있다(장덕순 외, 앞의 책, 100~109쪽). 한편 이명영·허동찬·서대숙 등 6월 10일 결성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오성륜과 엄수명·이상준이 발기인으로 표기된 〈재만한인조국광복회 선언〉 문건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백동현은 각 지역마다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의 차이에 따른 다양성은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자료를 검토해볼 때 조국광복회는 동북항일연군 제2군에서 주도한 것이 틀림없으며, 1936년 5월 초 東崗會議 결과 동만에서 먼저 결성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백동현, 〈한인조국광복회운동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49, 1997, 225~226쪽). 필자 역시 5월 초 동만지역에서 먼저 결성된 것이 틀림없다고 본다.

155)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檢事局 思想部, 《思想彙報》 14(1938), 60~61쪽.

동만특별위원회는 南滿省委員會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동북항일연군 제1군과 2군을 합쳐 제1로군을 결성했으며, 제2군의 3사를 제6사로 개편하고 식민지 조선에서 가까운 백두산 일대에서 활동하도록 하였다.<sup>156)</sup> 따라서 제1로군 6사는 사실상 한민족의 해방을 위한 독립군적 성격과 역할이 부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만주 독립군의 오랜 이론적 기반이자 투쟁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해외독립운동 기지건설론’ 및 ‘독립전쟁론’과 일맥 상통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sup>157)</sup> 동북항일연군 6사는 유격근거지를 세우는 한편 漢族을 대상으로는 항일구국회, 한인을 대상으로는 (조선)조국광복회라는 명칭의 대중조직건립을 추진하였다.<sup>158)</sup>

이렇게 성립한 조국광복회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일제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한인의 인민정부를 수립할 것, 한인의 참다운 자치를 실현할 것,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울수 있는 혁명적 군대를 조직할 것” 등을 주장하는 10대 강령을 발표하고 군사활동뿐만 아니라 국내 민중과도 연계된 정치활동에도 적극 노력하였다.<sup>159)</sup> 조국광복회는 창설 직후 조직확대

156) 辛珠柏, 앞의 책(1999), 451~453쪽. 신주백은 1936년 7월 개최된 河里會議결과 조국광복회가 실제로 공식 결성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157) 백동현, 앞의 글, 247쪽.

158) 徐學新·王德貴 編寫, 《吉林文史資料》21輯(東北抗日聯軍 第一軍簡史)(長春: 政協吉林省委員會 文史資料研究委員會, 1987), 98~99쪽.

159) 장덕순 외, 앞의 책, 109~110쪽.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만 조선혁명당의 강령은 물론 중국관내의 南京에서 1935년 7월 성립한 민족혁명당 강령과 매우 유사하며, 1941년 11월에 발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과 비교해도 비슷한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한국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일본 强盜의 통치를 顛覆하고 진정한 한국의 독립적 인민정부를 수립할 것.
- ② 韓·中 민족의 친밀한 연합으로 일본 및 走狗 滿洲國을 전복하고 중·한 인민이 자기가 선거한 혁명정부를 설립하여 중국 영토에 거주하는 韓人의 진정한 자치를 실행할 것.
- ③ 일본 군대·헌병·경찰 및 그 走狗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일본군대를 우리 애국지사로 豹變·원조하며 전인민의 무장으로 한국인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싸우는 군대를 조직할 것.
- ④ 일본의 모든 기업·은행·철도·해상의 선박·농장·수리기관·매국적 친일분자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독립운동 경비에 소비하며, 일부 빈곤한 동포를 구제할 것.
- ⑤ 일본 및 그 走狗들의 인민에 대한 채권, 각종 세금, 전매제도를 취소하고 동

사업을 전개하여 압록강 건너편 장백현 일대와 국내의 함경남도 북부 및 평안북도 북부지방, 그리고 함흥·흥남·원산 등의 도시에도 여러 지부조직을 갖추었다.

또 국내로 파견된 權永壁·李梯淳 등은 朴達·朴金喆 등 국내 공산주의자들과 연계하여 1937년 1월 조국광복회 국내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을 조직하였다. 이 조선민족해방동맹은 조국광복회 강령을 수용하고 짧은 기간에 함경남도 갑산군 등지에 각종의 반일청년동맹·반일그룹·반일부인그룹·반일회·농민조합·결사대·야학회 등 35개의 하부 비밀조직을 형성하는 놀라운 발전을 보았다.<sup>160)</sup> 또 조국광복회에는 남만일대에서 명성을 떨치던 조선

---

시에 대중생활을 개선하며 민족적 공·농·상업을 障害없이 발전시킬 것.

- ⑥ 언론·출판·사상·집회·결사의 자유를 戰取하고, 왜놈의 봉건사상을 장려하는 白地恐怖의 실현에 반대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
- ⑦ 양반·상민 및 기타 불평등의 排除, 남녀·민족·종교·교육 등의 차별을 하지 않으며, 일률적 평등과 婦女的 사회상의 대우를 提議하고 여자의 인격을 존중할 것.
- ⑧ 노예·동화교육에 반대하고 우리말과 글을 학습하며 의무적 免費教育을 실행할 것.
- ⑨ 8시간 노동제 실행, 노동조건 개선, 임금의 인상, 노동법안의 확정, 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 노동자의 보험법을 실행하여 실업하고 있는 노동대중을 구제할 것.
- ⑩ 한국민족에 대하여 평등하게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하게 연락하며,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해 선의·중립을 표시하는 국가 및 민족과 동지적 친선을 유지할 것(姜德相 編, 《現代史資料—朝鮮》3, 東京: みすず書房, 1976, 265~266쪽).

현재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原案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위의 내용이 당시 발표된 내용과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해방 직후에 崔昌益이 쓴 《조선민족해방운동과 김일성장군》, 桂奉瑒가 1952년에 쓴 《조선역사》3(개정판, 164~165쪽) 등에 모두 위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1981년에 간행한 《조선전사》19(현대편), 100~101쪽에도 ‘한국민족’ 대신 ‘조선민족’으로 표현된 것 외에는 위의 내용 거의 그대로 실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60) 辛珠柏, 앞의 책(1999), 471쪽.

조선민족해방동맹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준식, 〈항일무장투쟁과 당건설운동—조선민족해방동맹을 중심으로—〉(《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1991), 427~479쪽. 이 숫자는 일제측에 탐지된 하부조직만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관련 조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혁명군의 일부 대원들도 참가하였다. 그리고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의 천도교 세력과도 제휴하였으며, 朴寅鎮 등 지방 천도교지도자를 핵심세력으로 수용하는 데 성공했다.<sup>161)</sup> 뿐만 아니라 천도교 중앙교단과도 연계를 시도하는 등 폭넓은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여 광범위한 항일대중을 망라하였다.<sup>162)</sup> 이로써 남만주와 한반도 북부지역이 연계된 항일민족통일전선 조직이 성립한 것이다.

그러나 항일연군 제1로군 6사의 보천보 진입전투를 계기로 일제는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자행하여 항일연군 및 조국광복회 관계자 739명을 검거하였다.<sup>163)</sup> 이 때문에 항일연군과 조국광복회에 관계된 인사들이 대거 체포되고 산하조직의 대부분이 와해되고 말았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1939년 6월 북만주 지역에서도 “조선민족광복회”란 이름으로 조국광복회 조직 결성이 추진되기도 했다.<sup>164)</sup>

이후에도 항일연군 제2·3방면군은 함경북도 무산 진입전투(1939년 5월), 일본군과 만주국군 100여 명을 섬멸한 안도현 大沙河 전투(같은 해 8월), 악명높던 ‘마에다(前田) 토벌대’ 120여 명을 궤멸시킨 화룡현 紅旗河 전투(1940

161) 이 사실은 다음의 기록으로 뒷받침된다. ‘천도 상급령수 모씨 우리 광복회 대표를 친히 방문’이라는 題下에 “... 대중적 지반을 가지고 있는 천도교 ××위원 모씨는 굵어넘치는 애국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대표 김사령 일성동지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 전기 모씨는 개인적으로 우리 광복회 정강과 일체의 주장에 대하여 찬동을 표시하고 아울러 천도교 청년당원 ... 을 조선독립전선에 출동시킬 의향을 명시하고 장차 우리 광복회와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취할 것을 굳게 약속하였다고 한다”(《3·1월간》창간호, 1936; 리웅필, 〈우리 당 출판물의 혁명적 전통〉, 《력사과학》1967년 4호, 45쪽에서 재인용). 이 밖에 박인진에 대해 우호적이며 상세한 내용의 회고도 있다.

162) 천도교 세력의 조국광복회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成周鉉, 〈1930년대 천도교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관한 연구〉(《한국민족운동사연구》25, 2000), 168~218쪽, 1936년 11월 경 백두산 부근의 밀영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난 박인진은 그해 12월 24일 서울로 가서 최린을 만나 조국광복회 결성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최린은 “김일성 등의 주의를 천도교의 주위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다(심국보, 〈천도교와 조국광복회—박인진 도정의 항일활동을 중심으로〉, 《新人間》545, 1995, 35쪽).

163) 체포된 주요인사들에 대한 판결문 내용은 〈惠山事件 判決書〉(金正柱 編, 《朝鮮統治史料》6, 東京: 韓國史料研究所, 1970), 543~841쪽.

164) 吉林省檔案館 編譯, 앞의 책, 103~104쪽.

년 3월) 등을 전개하여 최후까지 적에 큰 손실을 주었다. 하지만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에 대한 일본 군경 및 만주국군의 토벌도 강화되어 마침내 1940년 2월 1로군 사령관 양정우가 전사하고 만주지역의 잔존 항일연군도 거의 소멸되고 말았다. 그 뒤 만주지방에서 조직적 군사활동이 어려워진 잔존 동북항일연군은 1940년 겨울부터 동·북만을 거쳐 소련(연해주)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소련측의 도움을 받아 南野營과 북야영으로 불리우는 거점조직을 세웠으나, 1942년 7월 동북항일연군 교도려로 편제되었다. 교도려는 소련군 산하 국제홍군 제88특별여단이라고도 했다. 이 무렵 이들의 전체 대원은 600여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인은 140·180여 명이 있었다.<sup>165)</sup>

대부분의 동북항일연군 잔존 세력은 1940년대 초반 소련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김책과 허형식·朴吉松 등은 소련으로 들어오라는 상부의 지시도 거부한 채 북만주 지방에서 1942~1943년까지 완강하게 투쟁을 계속하였다.<sup>166)</sup> 소련으로 철수한 동북항일연군내 한인 대원들은 만주에 소부대를 파견하여 정찰활동을 전개하고 철도와 도로를 파괴하는 등 소규모 전투도 간헐적으로 벌였다. 이들은 해방 직전까지 꾸준히 소규모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조국광복회 재건활동을 전개하여 일제 당국을 놀라게 하였다. 실제로 1943년 봄 姜渭龍 등 동북항일연군 교도려 소속 부대원 16명은 소부대 활동을 전개하면서 조국광복회 조직활동을 전개하였다.<sup>167)</sup> 이 때 결성된 開山屯지역 조국광복회 조직은 1944년 말 강위만(강위룡의 형)·김동길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체포됨으로써 붕괴되고 말았다.<sup>168)</sup> 또 중국공산당 조직과 별개로 추진

165) 와다 하루끼, 이종석 옮김,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창작과 비평사, 1992), 271·272·277쪽.

강만길, 앞의 책, 104쪽.

기광서는 100~190여 명으로 파악했는데, 1945년 8월 25일 경에는 103명이었다고 한다(기광서, 〈1940년대 전반 소련군 88독립보병여단 내 김일성 그룹의 동향〉, 《역사와 현실》 28, 1998, 266·280쪽).

구체적 대원명단과 이력은 楊昭全·李鐵環 編, 앞의 책, 936·972쪽.

166) 당시 허형식의 입장과 정치노선에 대해서는 장세윤, 〈동북항일연군과 허형식〉(《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역사비평사, 2000), 206~259쪽.

167) 辛珠柏, 앞의 책(1999), 465~466쪽.

168) 리광인,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결전》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4, 북경 : 민족출판사, 1991), 289~290쪽.



된 ‘東滿省委員會 撫松支部’사건은 이 시기 재만한인들의 끈질긴 조국독립운동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유격대원이었던 琴學貴의 지시를 받고 김일성을 동만성위원회 서기로 오인한 李光山(1892년생)은 한인 金光洙, 중국인 王鳳山 등과 소위 ‘동만성위 무송지부’를 조직하여 조선독립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42년 5월 말까지 61명(한인 59명, 중국인 2명)이 체포되어 실패하고 말았다.<sup>169)</sup> 그러나 이런 사례를 통해 무장투쟁 세력이 끊임없이 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중조직인 조국광복회 관련 하부조직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무장투쟁세력과 연계하여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였던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1945년 8월 초 소련의 대일선전포고로 소·일전쟁이 발발하자 교도려의 일부 한인들은 작전에 참가하였다.<sup>170)</sup> 그러나 다수의 한인 대원들은 직접 독립전쟁(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해 9월 경 소련군을 따라 귀국하였다.

#### 4) 1930년대 만주지역 독립군 무장투쟁의 의의

1930~1940년대 초반 재만한인들의 항일무장투쟁은 다른 시기나 다른 지역의 민족해방운동(독립운동)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과 의의가 있다. 그 이유는 운동당사자들이 올바른 정세인식과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전망, 장기적 안목과 체계있는 조직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치열하게 일제 및 만주국 관련 등과 직접 싸웠기 때문이다. 특히 무장투쟁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169) 吉林省檔案館 編譯, 앞의 책, 328~332쪽.

170) 교도려 소속 일부 한국인들의 참전 사실은 일본인의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증명된다.

“(1945년) 8월 8일 오후 11시 50분 조선인 一團 약 80명이 소련군과 함께 쾌속정을 타고 두만강을 건너 土里에 來襲했다. 이곳은 소련 영토를 指呼之間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먼저 土里의 경찰관 주재소가 습격받았다. 소련군은 土里駐在所의 경찰관과 교전하여 경계중인 金澤巡查 외에 警官 2명을 사살하고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東京: 巖南堂書店, 1964, 29쪽).

뒤따르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강대한 제국주의 세력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실현이 어려운 투쟁방법론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장투쟁은 일제에 대해 무력투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광범한 대중의 참여유도와 지지기반의 구축, 이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정치행위와 정치운동이라는 다양한 성격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총체적 민중운동의 성격과 특징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며, 여러 형태의 민족해방운동방법론 가운데서도 비교적 세련된 형태의 민족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1930~1940년대 초 만주지역 무장투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시기 무장투쟁은 1931년 9월 일본의 만주침략이 격화되면서 본격화되었고, 각지에서 봉기한 중국측 무장투쟁 세력과 연대하거나 또는 중국인이 주도하는 조직(중국공산당)에 개별적으로 한인들이 참가하여 투쟁하는 특징을 보였다. 즉 한·중 양 민족의 연대에 의한 공동투쟁이 일정하게 실현된 것이다. 이 경우 시행착오도 있었고 갈등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지만, 재만한인들은 중국국민당이나 공산당·코민테른 등과 같은 국제지원 세력과 연대투쟁을 취함으로써 장기간 투쟁을 지속할 수 있었고 큰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 한국독립당이나 한국독립군 주도세력은 공산주의계열 투쟁세력과 융화되지 못하고 1930년대 초 중국관내로 이동하고 말았으나,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세력은 1930년대 중반부터 이념을 달리하는 중국공산당 만주조직과도 일정한 연대를 이룸으로써 항일투쟁을 위한 공동전선을 형성하였다. 또 중국공산당계열의 동북항일연군(특히 한인의 비중이 큰 1·2군)도 1930년대 후반부터 ‘조선독립’의 원조와 자치구 건설, 국내 유격전쟁수행 등의 임무가 부과되면서 ‘독립군’으로서의 성격과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조선혁명군 등 다른 투쟁세력과 제휴하였다. 즉 이 시기에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민족해방운동의 좌·우파는 당시에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효과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연대와 협작을 실현했다. 따라서 조선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내 한인 세력은 초기의 대립을 극복하고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구체화함으로써 광

범위한 투쟁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

셋째 이 시기 만주 독립운동 세력은 효과적인 대일투쟁과 재만한인들의 생존도모를 위해 당·정·군의 세 조직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나눔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 조선혁명당과 국민부·조선혁명군, 한국독립당과 한족총(자치)연합회·한국독립군, 중국공산당 만주조직과 유격근거지(소비에트·인민정부)·유격대(동북인민혁명군·동북항일연군) 등으로 성립한 조직체들은 서로 밀접한 혼연일체를 유지하며 비교적 오랜 기간 민족해방투쟁을 견지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분화와 기능분담은 민족운동 세력들로 하여금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가능케 했으며, 또한 광범한 대중의 지원과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튼튼히 뒷받침했다.

이 때 성립한 정당조직들은 구체적 강령과 정책을 수립하고 해방 후 독립국가 건설을 구상하는 등 1920년대의 민족해방운동 단체들보다 진보된 모습을 보였다. 이 조직들은 나름대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준통치단체를 통해 상당기간 한인들을 대일항쟁에 결집·동원시키고 이념을 선도했다. 또 자체의 자위무장을 구비한 뒤 일정한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끈질기게 일본제국주의 세력과 싸울 수 있었다.

넷째 이 시기 만주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세력들은 중국 관내와 일정한 연계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동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대규모 국내진입작전 및 대중조직을 결성하여 일제 중추부를 타격하고 국내에 거점을 갖추려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물론 이는 민족해방운동의 좌·우파를 막론하고 국내진격을 통한 독립전쟁의 실현, 즉 1910년대 이래 해외 망명지사들이 줄곧 가져온 이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적극 실천한 사실을 의미한다.

조선혁명군의 수습 차례 국내진입전투와 조선혁명군정부의 ‘조선내공작위원회’ 운영,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의 동흥진입전투와 항일연군 제2군의 ‘조국광복회’ 결성, 보천보전투 등은 바로 그러한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1930·1940년대 초 만주 무장투쟁 세력들이 무력항쟁만을 고집하지 않고 국내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항일조직을 결성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동시에 봉기하여 일제를 타도하려는 다양한 전술을 시도했다

는 사실을 가리킨다.

끝으로 이 시기 만주지역 무장투쟁세력의 투쟁형태를 고찰해 보면 대규모 정규전보다는 소규모 부대로 각지를 이동하며 적을 타격하는 유격전(비정규전) 방식을 주로 채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만한인 사회나 중국측 항일의용군 세력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원인이 컸고, 또한 자체 운동역량이 미흡한 탓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히 대중을 바탕으로 한 투쟁방식을 고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적의 탄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특징을 보이면서 주로 1930년대에 만주지역에서 투쟁한 독립군 등의 무장투쟁은 어떤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까.

첫째 이 시기 무장투쟁은 1910년대와 20년대 각종 민족해방운동의 역량이 축적·계승·발전되고 그 성과가 바탕이 되어 많은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에, 만주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총결산이라는 의미가 크다. 수많은 독립(민족)운동 조직들이 세 계열의 운동조직으로 정비되면서 진일보한 이념과 다양한 방법론을 갖추고 많은 대중들을 포용하였으며, 중국측 반제·반봉건 투쟁세력 및 조직과 연대함으로써 비교적 장기간의 생존과 항쟁이 가능했던 것이다. 조선혁명군이나 동북항일연군내 한인들의 경우처럼 10여 년의 오랜 기간을 온갖 악조건을 무릅쓰며 싸웠던 무장투쟁 세력도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 물론 재만한인들의 이러한 고난에 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 초를 고비로 만주지역 무장투쟁은 쇠퇴하고 말았지만, 일제와 그 추종 세력에 주었던 충격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둘째 재만한인들의 투쟁역량은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일·만군과 관현 등을 살상하고 일제의 만주(중국동북) 통치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강대한 일본 군경과 만주국 관현 등을 부분적으로 만주지역에 묶어둠으로써 일제의 중국관내 침략을 일정하게 견제하는 실질적 전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만주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이 우리 나라 근대사(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중국근현대사의 한 범주로 인정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이 시기 재만한인들의 중국인과의 연대투쟁을 확대 해석하면 일제의 침략에 시달리던 동아시아 피압박민족 반제연합투쟁의 한 사례이며,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전후 격화되던 세계 피압박민족 반과시즘투쟁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민족해방투쟁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 시야에서 볼 때도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넷째 한국독립당·군이나 조선혁명당·군에서 활동하던 일부 인사들이 중국관내로 이동하여 크게 활동했기 때문에 관내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에 공헌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이청천·조경한·김학규·유동열·최동오 등 상당수 인사들은 관내로 진출하여 통일전선조직을 표방하며 형성된 ‘민족혁명당’에 참가했고, 이들이 후일 임시정부나 광복군에 합류하여 만주 독립군의 이념과 인맥, 무장투쟁론 등이 일부 계승되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투쟁하던 일부 한인들도 조국독립이란 사명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여전히 ‘민족주의적 성향’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1940년대 전반기 연해주로 피신하여 재기를 도모하였는데, 이들이 해방 후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북한으로 진주한 뒤 북한정권의 핵심부를 이루었다. 따라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무장투쟁은 한국현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1930년대 이후 재만한인들의 투쟁은 중국 동북의 상당수 중국인 대중을 각성시켜 항일투쟁을 고양시켰으며, 국내진입작전 역시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시달리던 대중들을 자극하여 한반도 북부의 민족해방운동을 격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이 시기 재만한인들의 투쟁은 해방 후 중국 동북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이 중국국민당을 물리치고 그곳을 장악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인 대중의 중국공산당 등 관련단체 참가, 항일유격대 및 근거지, 準자치조직의 경험과 치열한 무장투쟁의 경험 등이 중국공산당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던 것이다. 또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해방 후 연변지역에 수립된 ‘연변조선족자치주’ 탄생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곧 항일무장투쟁과

정에서 중국공산당이 제기한 ‘민족자치’의 원칙과 그 실현이 한인들의 ‘혁명전통(항일투쟁과 중국공산당 참여)’과 결합되면서 일정한 자치조직의 성립을 가늠케 했던 것이다.

1930~1940년대 초 만주지역 독립군의 무장투쟁은 1910~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을 심화·발전시킨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精華 및 최고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일부 독립군 참가자들과 동북항일연군 잔여세력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며 1940년대 초반까지 완강하게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대중조직과도 연대함으로써 주목되는 업적을 남겼다. 만주지역의 한인 독립군들의 최후 항쟁과 대중조직의 결성은 자유와 민주·정의·평등과 같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일련의 투쟁이었다. 때문에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민족 나름의 특수성을 갖는 민족해방운동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민족에게 은연중 피져있는 ‘패배주의’와 ‘허무주의’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이는 우리의 자존심과 정체성의 상징이며, 동시에 우리민족이 8·15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유력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張世胤〉

### 3. 미주·일본지역의 독립운동

#### 1) 미주지역의 독립운동

##### (1) 1930년대 하와이 한인사회의 통일운동과 독립운동

가. 1930년 전후 하와이 한인사회의 동향과 독립운동 단체 결성

일제하 한국 민족은 민족적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아울러 한국 민족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민족 내부의 단결과 역량결집에도 부단히 노력하였다. 일제시기 독립이라는 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러야 할 선결과제는 바로 민족 내부의 통합이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하와이 한인사회는 외견상 두드러진 독립운동은 전개하지 못했지만, ‘광복’을 위해 민족 내부의 역량을 축적하고 결집시키는데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의 통일운동은 하와이뿐만 아니라 북미지역과 중국 관내 지역의 민족진영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기에, 1930년대 하와이 한인사회의 통일운동은 단순히 하와이 한인사회의 지역적인 특성 속에서만 고찰할 것이 아니다.<sup>1)</sup> 이 시기 활발히 전개되었던 한민족 전체의 통일전선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3·1운동으로 뜨거워진 독립운동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자, 1920년대 미주 한인사회는 분열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하와이 국민회가 교민단으로 전환하여 국민회 중앙총회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미주 한인사회는 북미와 하와이로 분리되었고 하와이 내부 또한 여러 세력이 분열하고 있었다. 1920년대 하와이의 한인사회는 동지회와 교민단을 장악하고 있던 李承晩측 세력과 朴容萬을 지지하는 大朝鮮獨立團의 세력이 중심을 이루었다. 두 세력은 1910년대부터 쌓아온 좋지 않은 악감정으로 서로 화합하기 힘든 상대였다. 이밖에 하와이에는 두 세력에 비해 미약하였지만 점차 두 세력의 중개자 역할을 할 만큼 영향력이 증대하는 중립측 세력이 있었다.

#### 가) 대한민족통일촉진회의 결성

1920년대의 하와이 한인사회가 점차 분열상태로 확대되자 여기에 대응한 통일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1920년대에 일어난 대표적인 통일운동의 움직임은 1928년 2월 16일 29명의 한인들이 모여 결성한 대한민족통일촉성회(이하 ‘촉성회’로 약함)이다.<sup>2)</sup> 1928년 3월 이 단체는 166명이 연명한 <한국민족

1) 1930년대 미주지역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홍선표, <1930년대 재미한인의 통일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1996).

——, <이승만의 통일운동: -1930년 하와이 동지미포대표회를 전후로-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1997).

——, <1930년대 후반 하와이 한인의 통일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1998).

통일촉성선언서>을 대내외에 발표하고 한민족이 통일해서 독립된 국가건설을 해야 한다는 3대 강령을 제정하였다.<sup>3)</sup> 촉성회 조직은 서무부(부장 최창덕)·선전부(부장 민찬호)·의사부(부장 이복기)와 집행위원으로 구성하였다.<sup>4)</sup> 집행위원의 인적 구성을 보면 대조선독립단 4인, 교민단 6인, 중립측 10인으로 되어 있어, 하와이 한인사회의 주요 세력들이 촉성회에 골고루 참여하여 한민족의 대동단결을 도모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촉성회는 1928년 5월 21일 호놀룰루(Honolulu)에서 개최한 제1차 대회 이후 뚜렷한 활동도 없이 해산되었다. 주요 원인은 먼저 지나치게 명분론에 치우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운동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던 점과 1928년 10월 박용만의 갑작스런 죽음을 계기로 촉성회에 참가한 대조선독립단 단원들이 구심점을 잃고 크게 위축된 점을 들 수 있다. 촉성회 결성은 1930년대 이후 한인협회를 결성하고 이승만이 통일운동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 나) 한인협회의 결성

1930년이 되자 하와이 한인사회는 1929년 11월 3일 국내에서 일어난 광주 학생운동의 소식이 북미를 비롯한 하와이에 전파되면서 통일운동에 대한 열기가 되살아났다. 이 때문에 하와이에서는 국내 독립운동을 응원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한인들이 서로 결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sup>5)</sup> 이런 열기로 1930년 1월 13일 호놀룰루에서 과거 촉성회에 참여했던 대조선독립단과 중립측 인사들이 통일된 힘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韓人協會를 발기하였다. 발기자들은 “임시정부로 집중시키는 것이 곧 독립의 정신이요 민족통일의 경로”임을 주장하는 취지서와 모든 민족운동을 임정으로 집중·통일하는 3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1930년 2월 6일 발표된 한인협회 조직은 위원제로서, 집행위원장 趙鏞夏, 재무 김윤배, 서기 김진호가 담당하였다.<sup>6)</sup> 한인협회는 처음 회원이 40여 명

2) 《新韓民報》, 1928년 3월 15일, 하와이 〈한민족 통일을 위하여〉.

3) 《新韓民報》, 1928년 5월 24일, 〈한민족통일촉성회 선언서를 讀하고〉.

4) 《新韓民報》, 1928년 5월 3일, 하와이 〈합성시대를 다시 만난 한족통일독립당 촉성회〉.

5) 《태평양주보》, 1931년 5월 9일, 사설.



으로 출발하여 두 달도 채 못되어 80여 명으로 확대하였다.<sup>7)</sup> 한인협회는 결성 이후 《韓人協會公報》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모색했으나 회를 주도하던 조용하가 하와이를 떠나 일본으로 가면서 회의 구심점을 잃은데다 이승만이 새로운 통일운동을 주도하면서 해소되었다.

#### 다) 한인자치회의 결성

한인협회 결성으로 나타난 1930년대 하와이 한인사회의 통일운동 바람은 1930년 3월 9일 가와이(Kawai)島 거류 한인 150여 명이 韓人自治會를 결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한인자치회의 主旨는 ‘自治互助’·‘革命應援’·‘教育獎勵’에 두었고, 전 민족의 통일을 촉진하는 것과 대일항전을 위한 혁명군을 신속히 양성하는데 한인협회와 그 뜻을 같이하였다.<sup>8)</sup> 자치회의 조직은 회장 이흥기, 부회장 김상호, 서기 한태경, 재무 정호영, 총무 조치삼 등이다. 이후 한인자치회는 이승만이 전개한 통일운동의 派爭을 계기로 1931년 4월 가와이 한인단합회로 회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 나. 이승만의 통일운동

##### 가) 동지회 부흥운동과 합동운동

이승만은 1929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북미 대륙을 여행하고 하와이로 돌아온 뒤 한인사회의 통일운동에 뛰어 들었다. 당시 이승만은 북미여행을 통해 그 동안 경영상 어려움에 빠진 동지식산회사에 대한 한인들의 재정지원을 기대했으나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sup>9)</sup> 이런 가운데 하와이내에서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일고 있던 민족운동의 열기가 고조되고, 한인협회와 한인자치회의 결성으로 통일운동 분위기가 확산하자 이승만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6) 위와 같음. 또한 임시위원은 최두옥·조광원·이원순·신국겸·정운서·박상하·이상호·강영효·박종수·정원명·김리제였고, 그의 현순과 이정근도 한인협회 결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7) 《新韓民報》, 1930년 4월 3일.

8) 《韓人協會公報》 제5호, 1930년 3월 20일, 〈가와도소식〉.

9) 정두옥, 〈재미한인독립운동실기〉(《한국학연구》 3(별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1), 77~78쪽.

이승만은 국내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고조된 민족운동의 불을 다시 일으키려는 명분 아래 그 동안 침체된 동지회를 부흥시키는 동시에 동지회 중심의 통일운동에 착수하였다. 동지회는 이승만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만든 私的 機關이었지만 하와이내 주요 활동은 임시정부의 합법기관인 교민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실 동지회 회원이나 교민단 단원의 구분은 당시로서는 무의미할 정도로 두 세력 모두 이승만의 관할하에 있었다. 하지만 당시 동지회는 1930년 7월까지 단독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기관지인 《태평양잡지(Korean Pacific Magazine)》도 오랫동안 휴간되다 1930년 2월부터 발행을 재개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승만이 기존의 교민단을 제쳐놓고 동지회 중심의 부흥계획을 세운 것은 개인적인 정치활동 추진에 동지회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1930년 3월부터 김현구를 비롯한 교민단 핵심인물들에 대해 민중합동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면서 동지회 중심의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또 그는 대조선독립단에 대해 서로 주의와 주장이 동일하니 正義의 입장에 선다면 서로 합해질 수 있음을 주장하여 이상호·김윤배·이원순 등 5~6인의 독립단 인물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sup>10)</sup> 이러한 노력으로 동지회는 날로 부흥되고 회원도 자연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동지회가 부흥되기 시작하자 이승만은 1930년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 同志美布代表會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동지회 중심의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sup>11)</sup> 이 대회는 1924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호놀룰루에서 하와이한인대표회<sup>12)</sup>를 개최한 이래 동지회 최대의 행사였다. 연

10) 《태평양잡지》(1930년 5월호), 〈하와이 한인합동〉.

11) 홍선표, 앞의 글(1997)에는 7월 21일까지 대회를 개최한 것 기록했으나, 〈동지미포대표회회록〉(《雲南李承晩文書(東文篇)》 12, 298쪽)을 보면 7월 24일 정식으로 폐회한 것으로 되어 있다.

12) 1924년 11월 23일에 개최했다고 기록한 〈布哇ニ於ケル朝鮮人不逞革命同志會ノ件〉(地檢秘 昭和 13년 6월 9일, 제932호) 등 일본측 기록은 사실과 다르다. 이 대회 결과 동지회는 1924년 11월 22일 3대 ‘정강’과 4개의 ‘조례’를 반포하여 향후 활동방침으로 삼았다. 홍선표의 위의 글(1997), 11~12쪽에 1930년에 이 ‘정강’과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한다. 그리고 1924년 대회에서 이승만이 동지회의 종신총재로 추대되었다고 하는 김원용의 글(《재미한인오십년사》, 203쪽)은 사실과 다르다.

800여 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은 첫째 동지회 현장의 통과, 둘째 구미위원부와 임시정부와의 법통관계 정리, 셋째 구미위원부의 활동을 후원, 넷째 동지회 정강의 불변, 다섯째 동지회를 독립운동의 유일한 정치단체로 인정하는 것 등이다.<sup>13)</sup>

또 이번 대회를 기해 동지회는 중앙이사부를 설치하여 조직을 강화하였다. 중앙이사부는 이사장에 이용직, 재무 겸 상무원에 김원용을 선임하고 이밖에 7인의 이사원을 선임하였다. 선임된 인적 구성을 보면, 동지회 대표·미주 대표·교민단 대표·독립단 대표·중립측 대표 등에서 골고루 안배하고 있었다. 이는 동지회 중앙이사부가 외형상 북미와 하와이를 대표하는 최고기구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동지미포대표회를 계기로 동지회는 체제정비와 함께 민족운동의 유일한 정치단체로 자리잡게 되고 동지회 중심의 통일운동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 나) 분쟁과 분열

동지미포대표회의 외형적인 성공과 달리 실제 내용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대회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해야 할 동지회가 특별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고, 중앙이사부의 조직도 발표되지 않고 미루어오다 대회가 종결된 지 두 달이 지난 9월 26일에야 겨우 그 결과를 공포하였다.<sup>14)</sup>

이런 내막은 그 동안 이승만이 추진한 동지회 부흥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한 불만들이 이번 대회에서 표출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이승만은 이미 동지미포대표회 이전에 한인기독교회 문제를 둘러싸고 이용직과 마찰을 빚고 있었고, 교민단 해체를 의심하고 있던 김현구와도 갈등을 지속하고 있

1924년 11월 22일로 발표된 <하와이한인대표회선포문>을 보면 이승만이 사실상 종신총재 역할을 했을 지 몰라도 이를 규정화 하진 않았다. 그러나 1930년 7월 동지미포대표대회에서 총재의 임기를 무기한으로 두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무기한’을 삭제하고 대신 ‘독제제’로 고치는 것으로 수정하면서 사실상 이승만의 종신 총재직과 함께 독재체제를 확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雲南李承晩文書》(東文篇) 12, <동지미포대표회회록>, 237~250쪽).

13) 《태평양잡지》(1930년 9월호), <공포서>.

14) 《태평양잡지》(1930년 9월호), <공문>.

었다. 또 동지회 ‘3대정강’<sup>15)</sup>이 보다 전투적인 독립운동을 구상하고 추진하려 했던 하와이 한인들과 일부 대조선독립단원들에게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너무 미약하다는 반감을 사고 있었다. 그리고 동지회 부흥운동으로 교민단이 해체될 지 모른다고 우려한 교민단원들의 이승만에 대한 불신도 가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만들은 대회 진행도중 청년운동사업문제로 교민단 단장 손덕인에 의해 폭발하였다. 손덕인은 청년운동은 이미 교민단에서 추진하려는 것인데 동지회에서 하겠다는 것은 교민단의 존재를 무력하게 만드는 처사임을 비판한 뒤 스스로 동지회 이사원에서 사직하였다.<sup>16)</sup> 교민단의 불만분출은 단순히 청년운동사업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번 미포대표회에서 그 동안 유명무실 했던 동지회가 유일한 정치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된 사실은 교민단측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교민단은 임시정부의 합법적인 기관인데 비해 동지회는 사설단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교민단은 본격적인 분쟁이 전개될 때 이승만의 반정부적 행위를 집중 거론하는 등 임시정부와 이승만과의 범통관계 해명에 초점을 맞추어 그를 공격하였다.

이러한 내부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음을 감지한 이승만은 모든 사태의 원인을 김현구에게 있다고 보고 그를 설득시키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의 교민단 서기 겸 재무 직임을 사직시키려 하였다. 이승만의 의도는 단순히 김현구만 제거한다면 불화가 교민단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김현구의 사직권고에 대해 교민단측에서 강력히 비판하면서 분쟁은 이승만을 지지하는 동지회와 교민단 사이의 단체분쟁으로 확대되었다.<sup>17)</sup>

15) 3대 ‘정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 독립선언서에 공포한바 공약3장을 실시할지니, 3·1정신을 발휘하여 끝까지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여 비폭력인 회생적 행동으로 우리 대업을 성취하자.
- ② 조직적 행동이 성공의 요소이니 우리는 개인행동을 일절 버리고 단체범위 안에서 질서를 존중하며 지휘를 복종하자.
- ③ 경제자유가 민족의 생명이니 자작자금을 함께 도모하자.

16) <The Case of Korean National Association> (독립기념관소장자료), p. 5.

17) 이러한 분쟁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두 단체의 분쟁은 교민단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법정소송으로 나아갔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재판의 결과 1931년 4월 16일 교민단측 승소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분쟁과 소송으로 교민단과 동지회는 서로 깊은 불화만 남긴 채 하와이 한인사회는 더욱 분열하고 말았다.

이번 분쟁으로 하와이 한인들은 통일이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선 반드시 한인들이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통일의식을 심어준 것은 나름의 의의가 있었다. 그러한 영향은 1930년대 후반 하와이 한인들이 또다시 통일운동을 전개하는데 하나의 발판으로 작용하였다.

#### 다. 1930년대 전반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이승만의 통일운동 실패로 이후 하와이 한인사회의 인심은 극도로 분열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후원 열기로 한인단체들의 독립운동은 새롭게 추진되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어려운 살림을 해결하기 위해 金九가 시도한 書信호소가 하와이를 비롯한 미주내 한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sup>18)</sup> 1931년 4월 9일 가와이지역 한인들은 한인단합회를 조직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적극 후원하였다.<sup>19)</sup> 이사원으로 玄楯·김상호·정원현·정준영·정호영이 담당하였고 4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인단합회는 설

홍선표, 앞의 글(1997).

金度亨, 〈1930년대 초반 하와이 한인사회의 동향〉(《한국근현대사연구》 9, 1998).

18)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돌베개, 1997), 319~321쪽.

19) 단합회는 이전의 한인자치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단합회가 1939년 4월 29일 하와이애국단에 합류했다고 기록한 도진순 주해, 위의 책, 320쪽. 40번 주석은 잘못된 것이다. 단합회는 1941년 4월에 결성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참가하여 활동을 계속하였고, 워싱턴사무소 개설에 반대하면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탈퇴하였다. 그러나 이 탈퇴를 계기로 단합회는 1944년 5월 21일 가와이 군사후원회로 재편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재편된 가와이 군사후원회는 위원장 박근실, 부위원장 이경서, 총서기 겸 총재무 유경상, 서기 고운환이고 조직 직후 800달러를 임정에 송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회원은 50여 명 정도이고 회원구성은 소속단체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國民報》, 1944년 7월 12일, 〈가와이 군사후원회〉·9월 20일, 〈보고〉; 《독립》, 1944년 8월 23일, 〈가와이 동포군사후원회 조직〉 등 참조).

립 이후 임시정부에 600달러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尹奉吉의거 이후에 또 다시 300달러를 송금하였다.<sup>20)</sup>

1931년 9월에 일어난 일제의 만주침략 소식은 침체되었던 하와이 한인사회에 독립운동 열기를 고조시켰다. 그리하여 당시 동지회와 교민단 어느 쪽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 서있던 임성우·김경옥·김예준·김성옥·현도명·김태정·김형기·김기순 등은 비밀리 김구의 특무공작을 후원하여 李奉昌·윤봉길 의거활동을 직접 후원하였다. 그리고 김구의 韓人愛國團을 계속 후원하고자 1934년 4월 10일 하와이에국단을 결성하여 조직적인 후원을 전개하였다.<sup>21)</sup>

1932년 5월 22일 오아후(Oahu)섬 와히아와지역 한인들은 미감리교회에서 40여 명의 동지가 모인 가운데 임시정부후원회를 조직하였다.<sup>22)</sup> 조직목적은 윤봉길의거를 계기로 물질적·정신적으로 임시정부를 더욱 후원하는데 두었으며 《시사근문》이라는 소식지도 발행하였다.<sup>23)</sup>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후원활동이 적극 전개되는 가운데 분쟁의 직접 당사자인 동지회와 교민단도 침체된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임정후원과 함께 선전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동지회는 1931년 7월 만보산사건과 9월 일제의 만주침략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자 같은해 12월 14일 임시정부를 공고케 할 것과 구미위원부 중심의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자금모금운동의 추진을 결의하였다.

동지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통해 전개되었다. 이승만은 1931년 11월 21일 하와이를 떠나 1935년 1월 24일 다시 돌아올 때까지,

20) 《新韓民報》, 1932년 6월 2일, 〈가와이 후원회〉.

김원용, 앞의 책, 216쪽.

21) 《한국독립당하와이총지부자치규정》중 〈예국단약사〉 참조. 그런데 김원용, 앞의 책, 215~216쪽에 1932년 2월 14일 하와이에국단이 정식 발족되었다고 기록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밖에 주요 활동인물은 조병요·안창호·이대진·최찬영·유진석·이봉수·김예운·박이조·임영택·안영호·양성학·김현구·김원용 등이다. 하와이에국단은 중경에 한국독립당이 설립됨에 따라 1940년 5월 9일 한국독립당 하와이총지부로 변경하였다.

22) 《新韓民報》, 1932년 6월 2일, 〈임시정부 와히아와후원회〉.

23) 《新韓民報》, 1932년 6월 16일, 〈와히아와에 '시사근문' 신문 발행〉.

통일운동의 실패와 분쟁으로 인한 개인적인 상처를 씻으면서 워싱턴(Washington D. C)과 제네바(Geneva) 등지에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윤봉길의거로 인해 일제에 의해 무고한 한인들이 체포되자, 이승만은 구미 위원부의 이름으로 1932년 5월 4일 프랑스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상해거류 한인보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프랑스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아 내었다.<sup>24)</sup>

그런데 동지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 이승만탄핵사건으로 붙여진 임정에 대한 항명태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민족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렇지만 구미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임정의 폐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모든 후원활동과 외교활동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동지회는 외교활동을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1933년부터 제단체인합운동을 전개하였다.<sup>25)</sup> 같은해 4월 9일 동지회를 비롯하여 임시정부후원회 · 대조선독립단 · 동생회 · 조미구락부 · 와히아와공동회가 참여하여 한인연합협의회를 조직하고 15개조의 규칙과 《협의회보》를 발간하였다.<sup>26)</sup> 설립목적은 한국 독립을 성취하려는 민중의 역할을 연락 · 집중케 하며 운동의 전선을 협의하는 것이었다.

한인연합협의회는 교민단과의 분쟁으로 침체에 빠진 동지회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점이 없지 않았다. 자료미비로 이 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알 수 없으나 동지회는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위축되었던 회세를 상당히 회복시킬 수 있었고 이후 하와이 한인사회의 중심적인 단체로 발돋움하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인연합협의회는 대조선독립단이 1934년 10월 국민회와의 합류를 선언함으로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24) 《太平洋週報》, 1932년 6월 1일, 〈상해 체포한인 석방을 범국대사에 요구한 구미위원회 공문〉 · 〈상해한인 체포사건 선후책에 대한 동지회 태도〉.

25) 예컨대 최선주는 〈집단운동에 일치하고 분열행동을 배격하자〉라는 글에서 최근 임시정부를 추대하고 후원하기 위해 인구세와 특별의연을 거두는 일은 다 행한 일이나 이 일이 개별단체의 분산적인 행동으로 진행됨이 무척 유감스럽다 하였다(《太平洋週報》, 1932년 6월 15·29일, 하와이 〈외교운동을 각 단체에서 따로〉).

26) 《新韓民報》, 1933년 8월 10일, 하와이 〈한인연합협의회 조직〉.

한편 하와이 교민단은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체제유지조차 어려울 정도였으나, 만주사변 발발을 계기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 10월 교민단은 자체 조직과 별도로 선전부장 정두옥, 서기 김현구, 재무 차신희, 교섭위원 韓吉洙, 그 외 김원용·이용직으로 구성된 선전부(Korean National Information Bureau)를 설치하였다.<sup>27)</sup> 교민단 선전부는 후버(Hover, Herbert Clark)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10월 28일자 공개서한을 비롯하여, 국제연맹의회 의장 아리스티드 브리앙에게 보내는 11월 2일자 공개서, 중국 남경의 국민당정부에게 보낸 12월 11일자 청원서 등을 통해 일제의 만주침략 저지를 폭로하고 한국 독립운동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 선전부는 정두옥·김현구의 이름으로 1932년 11월 14일자로 국제연맹 사무총장 에릭 드럼몬드에 게도 공한을 보내 한국의 독립과 세계평화를 위해 일제의 불법침략행위를 저지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런 가운데 하와이 교민단은 1931년 1월부터 시작된 북미지역 한인사회의 통일운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체정비와 함께 국민회 재건운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교민단은 1933년 1월 16일 교민단 해체를 결정하고 같은해 2월 1일 대한인국민회를 復設시켰다. 그런 다음 대조선독립단과의 통합운동을 전개해 1934년 10월 15일 두 단체의 통합을 정식 의결하였다.<sup>28)</sup> 이로써 국민회는 외형상 안정을 되찾게 되고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이 가능해졌다.

#### 라. 1930년대 후반 통일운동과 독립운동

##### 가) 국민회·동지회의 통일운동

###### (가) 제1차 통일운동

임정후원활동과 선전외교활동의 시도는 1935년부터 하와이 한인사회의 기성세대들에게 다시금 통일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해 그 동안 소원했던 국민회

27) 정두옥, 앞의 글, 81쪽.

28) 《新韓民報》, 1934년 11월 8일, 하와이 〈합동축하의 성황〉.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대조선독립단의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독립단과 국민회의 합동이 완전하게 성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볼 때 이번 두 단체의 통합은 단지 대조선독립단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만이 국민회로 합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와 동지회 사이의 합동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두 단체의 합동문제는 1935년 10월 중개자로 나선 김성옥·최선주·조병요·안창호가 동지회와 국민회 대표들을 초청해 합동문제를 정식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sup>29)</sup> 하지만 양측 사이에 쌓인 상호불신이 충분히 순화되지 않았는데다 통합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교환되지 않아 별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하와이 한인사회의 통일운동 기운은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발로 독립운동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는 중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7월 15일 군사활동을 위해 군사위원회 설치를 발표하고, 8월 1일 독립운동단체 통일을 위한 〈한국 광복운동단체연합선언〉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sup>30)</sup> 이러한 중국내 독립운동의 열기는 하와이 한인사회에도 전파되어 국민회와 동지회 등 제단체들은 임시정부에 대해 적극 후원하였다.

중일전쟁을 계기로 임시정부에 대한 후원활동이 단체별로 독자적으로 전개되자 통일된 힘으로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은 마침내 1937년 8월 국민회와 동지회 사이의 통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국민회는 “임시정부를 봉대하고 독립운동을 적극 후원하기 위해 무조건 절대 합동할 것”을 동지회에 요구하였다.<sup>31)</sup> 반면 동지회는 초기엔 광복사업을 위해 단순히 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국민회가 완전통합을 강력히 주장하자 이에 호응해 통합 쪽으로 선회하였다. 그리하여 1937년 10월 10일 통합을 위한 두 단체 교섭위원회에서 다음의 합동 〈결의안〉을 작성하였다.<sup>32)</sup>

- ① 본 대표 등은 양 단체의 절대합동을 진행하라는 두 간부회의의 결의사명을 받아서 두 단체를 해결하기로 결정함.
- ② 두 단체의 행정부는 각각 헌장에 의지하여 각 지방회 대의원, 대표원에게 공함하여 절대 합동의 찬동을 받기로 함.

29) 《新韓民報》, 1935년 10월 3일, 국민회총임원회 〈합동문제에 대한 기정방침 불변〉·31일, 하와이 〈합동문제 토의〉 참조.

30) 《國民報》, 1937년 8월 18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62호〉.

31) 《國民報》, 1937년 10월 6일, 〈합동 만찬의 성황〉·13일, 〈합동의 이유〉·11월 24일, 〈합동교섭의 전망〉 참조.

32) 《國民報》, 1937년 10월 10일, 〈국민회·동지회 양단체 대표결의안〉.

- ③ 두 단체는 지방의원의 합동찬성보고를 받은 뒤에는 두 단체가 각각 자기 단체의 사단법인 관허장을 청원 취소하기로 결의함.
- ④ 이상 3조를 경과한 뒤 두 단체 간부는 각각 위원 5인씩을 선정하여 각 지방 대의원과 대표원에게 교섭하여 민중의사에 만족한 통일단체를 성립하기로 함.

그런데 이러한 통합 <결의안>에 대해 국민회는 11월 26일 개최한 임시대원위원회에서 법인관허장 취소와 관련한 제3조를 수용할 수 없으니 수정할 것을 동지회에 제의하였다. 동지회는 이미 합의한 제3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통합문제를 논의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 통합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번 통일운동을 계기로 아무런 충돌없이 양측 사이에 쌓인 악감정들을 서로 해소하고 이해할 자리를 만든 것은 적지 않은 성과였다.

#### (나) 제2차 통일운동

제1차 통일운동 이후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는 한동안 통일운동이 제기되지 않았다. 이는 통일의 대의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통합의 방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미 광복대업을 위해 통일운동을 전개한 이상 하와이 한인사회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였다.

잠시 잠잠해 있던 통일운동은 김구가 미주를 비롯한 해외 한인들에게 보낸 통일역량의 강화 호소와 하와이내 소수 한인들의 노력으로 다시 재개되었다. 먼저 김구는 《國民報》 편집인 황인환에게 보낸 1938년 6월 20일자 서신에서 광복전선의 통일과 해외 한인 전체의 통일, 나아가 전 민족의 대동단결을 호소하였다. 그런 가운데 당시 하와이 내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중일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독립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던 민찬호·최창덕·최선주가 1937년 7월 30일부터 국민회와 동지회 대표들을 비공식적으로 초청해 3차에 걸쳐 모임을 주선하였다.<sup>33)</sup>

이런 분위기 속에 먼저 국민회가 1938년 8월 14일 <공함>을 동지회에 보

33) 《國民報》, 1938년 8월 17일, <합동주선의 진행>.

내 통일문제 협의를 위해 공식모임을 가질 것을 제의함으로써 통일운동은 재추진되었다. 동지회는 이번 통합논의에 중립측 인사들도 참가시킬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이번 통일운동이 단순히 국민회와 동지회만의 통합이 아닌 하와이 한인 전체의 통일까지 염두에 두려는 의도였다. 그리하여 국민회·동지회·중립측은 8월 2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제5차 회의까지 합동수속 회의를 진행한 뒤 다음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양 단체의 법인관허장은 그대로 두고 합동하되, 이름을 公決하고 규칙을 수정하며, 임원을 公選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꼭 같이 한다. 이후 어느 법인관허장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인관허장을 없앨 단체의 민국 20년도(1938년) 임원의 동의하에 진행하기로 함(《國民報》, 1938년 9월 14일, 〈제5차 회의〉).

이와 같은 결의안은 1차 통합운동 때 문제가 된 법인관허장을 그대로 두고 합동의 진행을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려는 뜻이 담겨있었다.

이상의 합동방안을 받아들인 국민회와 동지회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연합의회를 개최하였다. 연합의회는 1938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13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참석자는 국민회측에서 16명, 동지회측에서 14명 등 30명이 모였다. 그리고 제2차 회의부터는 이번 회의가 두 단체만의 통합이 아니라 하와이 한인사회의 전체 통일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가와이 단합회와 대조선독립단에 대해서도 참석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가와이단합회는 대표 파송이 여의치 않음을 들어 처음부터 참가하지 않았고, 독립단은 3차 회의부터 6차 회의까지만 참석하고 말았다.

통일을 위한 연합의회는 처음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3차회의에서 두 단체는 통합 이후의 조직체계를 ‘민주제’로 결정하였고, 4차회의에서 기존의 《國民報》는 그대로 두되 《太平洋週報(Korean Pacific Weekly)》는 영문판으로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sup>34)</sup> 7차회의에서는 통합으로 탄생할 새 단체의 이름을 논란 끝에 ‘대한인회(Korean Association)’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민회의 공식 명칭인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의 공식명칭인 ‘대한인동지회’ 가운데

34) 《國民報》, 1938년 11월 23일, 연합의회 〈제3차 속회〉·〈제4차 속회〉.

공통된 글자인 ‘대한인’에서 따온 것으로 어느 한 편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그렇지만 회의가 후반으로 진행되면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먼저 두 단체는 이번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문제를 두고 논쟁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국민회·동지회의 자산보고 문제와 이 문제와 결부되어 대두된 통합의 새 단체 지도자를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에 대한 선거방식이 문제였다. 이 가운데 연합의회에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는 두 단체 통합 이후 탄생할 새 단체의 총회장과 부회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였다. 이는 새 단체의 주도권을 어느 단체에서 장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총·부회장에 대한 선거 논의는 11월 30일 제9차 회의부터 시작하여 국민회에서 조병요를, 동지회에서 김리제를 각각 총회장 후보로 선출하였다.<sup>35)</sup> 하지만 총회장 선거방식에 대해 국민회측은 소속단체에서 회비를 내고 의무를 이행한 순수한 회원만 선거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동지회는 이번 회의가 하와이 한인사회의 전체 통일을 모색하는 자리이니 만큼 회원이나 비회원이나를 가리지 말고 하와이내 모든 한인들에게 투표할 자격을 주자고 하였다.

선거방식을 둘러싼 두 단체의 입장차이는 실제 회원수가 동지회에 비해 국민회의 것이 훨씬 많았던 데 있었다. 당시 국민회측은 회원수가 463명인데 비해 동지회의 것은 80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sup>36)</sup> 국민회의 이런 주장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대체로 국민회 회원이 동지회 회원보다 많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동지회의 입장이 단순히 회원수 때문에 국민회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 동지회는 제2차 통일운동을 재개할 때 이미 하와이 한인 전체의 대동단결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였고,<sup>37)</sup> 그러한 영향은 연합의회 제2차 회의부터 가와이단합회와 대조선독립단에 대

35) 《國民報》, 1938년 12월 7일, 연합의회 〈제10차 속회〉.

36) 실제로 동지회원수는 약 300명 정도로 추정된다(《國民報》, 1938년 12월 14일, 사설 〈연합의회 정회〉).

37) 《太平洋週報》, 1938년 11월 26일, 〈임시대표회 순서와 결의사항〉을 보면 동지회는 국민회와의 통합운동 논의 시 가져야 할 활동방침 14개항을 결의하였다. 그 중에 보면 동지회는 이번 통합논의가 단순히 두 단체만의 통합이 아닌 제 단체의 통일전선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밝히고 있었다.

해 대표 참가를 결정하는데까지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회원수는 국민회에 비해 적었는지 모르나 하와이 한인사회의 전체 통일이라는 대의명분에서 만큼은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투표자격을 모든 한인들에게 주자고 한 데는 나름의 명분있는 논리였다.

이처럼 선거방식을 둘러싼 두 단체의 주장은 나름대로 정당성과 대의명분이 있었지만 통합의 성사가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두 단체의 주장이 순수했다고 볼 수 없었다. 즉 그 동안 양보하고 타협해 온 모든 과정이 결국 새 단체의 주도권 장악이라는 현실적인 이해 앞에서 두 단체 모두가 자신의 정당성만 내세움으로써 대동단결의 대의명분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38년 12월 7일에 개최된 제13차 회의를 끝으로 두 단체의 통일운동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나 국민회·동지회가 추진한 통일운동이 특별한 충돌없이 종결되어 1940년대 연합활동과 해외한족대회를 개최하는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준 점은 적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 나) 한길수와 이승만의 선전외교활동

1930년대 후반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는 中韓民衆同盟團의 韓吉洙와 동지회의 이승만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하였다. 평소 일본의 하와이 점령과 하와이의 일본화를 우려하고 있던 한길수는 일찍부터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한길수의 존재가 하와이에 알려진 때는 1932년 10월 25일 정두옥을 중심으로 조직된 국민회 선전부에 교섭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다.<sup>38)</sup> 이후 1933년 3월 초 한길수는 하와이 국민회장 이정근과 선전부장 정두옥의 공동명의로 된 〈하와이 일본인 여론조사〉라는 보고서를 하와이 육군정보당국에 제출하는 등 미 당국을 긴장시키기도 하였다.<sup>39)</sup> 1933년 4월 20일 한길

38) 鄭斗玉, 앞의 글, 81쪽.

“Koreans Here in Protest to Hoover on Manchuria”, *The Honolulu Star Bulletin*, October 29, 1931.

39) 《미육군정보국문서(MID)》, 1766-S-146철 제2번 문서; 방선주, 〈1930년대의 재미한인독립운동〉(《한민족독립운동사》 8, 국사편찬위원회, 1990), 450쪽에서 재인용.

수는 이용직과 함께 40매에 달하는 호소문(Korea Appeal)을 미육군장관에게 전달했다. 두 사람의 이름을 합성하여 W. K. Lyhan(William Lee Yongchik & Kenneth Haan)의 이름으로 우송한 이 보고서 요지는 미일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니 反日性向이 강한 한인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길수의 존재가 미주 한인사회에 크게 부상하는 시기는 1937년부터라 할 수 있다. 1937년 10월 하와이의 美國 州編入을 논의하기 위해 미연방 양원합동위원회 공청회가 호놀룰루에서 개최될 때, 한길수는 일본 정부가 하와이에 있는 일본계 시민들을 배후조정하여 인종분규를 일으키려 한다고 폭로하여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sup>40)</sup> 이로 인해 한길수는 하와이내 일본인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고 일본계 신문인 《日布時事》측으로부터 명예훼손 고발을 받아, 한인단체들로부터 그에 대한 동정과 함께 강력한 배일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한길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중한민중동맹단의 존재까지 널리 알리는 성과를 내었다.

한길수의 활동은 이후 본격화하였다.<sup>41)</sup> 1938년 9월 30일 하와이를 떠나 미 본토로 간 한길수는 중한민중동맹단을 대표하여 미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팽창위협과 전쟁음모를 폭로하는 등 활발한 강연활동과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sup>42)</sup>

한길수의 활발한 외교활동이 하와이 한인사회에 알려지는 때와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미국사회에까지 퍼져 국제환경이 급변해지자 동지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추진하였다. 동지회는 1937년, 1938년 두 차례나 시도한 국민회와의 통일운동이 비록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한인사회에 좋은 여론과 동정을 얻게 되었음을 自評하고 사기가 고무되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동지회는 1939년 1월 25일에 열린 동지대표회 제9차 속회에서 그

40) 《國民報》, 1937년 10월 27일, 〈한길수씨의 대폭격〉.

41) 한길수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稻葉 強, 〈太平洋戰爭中の在美朝鮮人運動－特に韓吉洙の活動を中心に－〉(《朝鮮民族運動史研究》 7, 1991).

郭林大, 《못잊어 華麗江山》(대성문화사, 1973).

42) "Kilsoo Haan in Washinton" *The Korean Student Bulletin*, March-April, 1939 and "Korean Testifies Before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in Washington" *The Korean Student Bulletin*, May-June, 1939.

동안 활동하지 않던 구미위원부를 매월 100달러의 경비로 개소하여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적극 후원하기로 결의하였다.<sup>43)</sup> 그 결과 이승만은 같은해 3월 30일 하와이를 떠나 워싱턴에서 본격적인 선전외교활동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일본내막기(*Japan Inside Out*)》를 집필해 일본의 미국침략을 예고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 (2) 1930년대 북미한인사회의 통일운동과 독립운동

### 가. 국민회의 침체와 한인공동회의 설립

북미 한인사회 최대 단체인 국민회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1922년 3월 하와이 국민회가 임시정부의 〈교민단령〉에 의거 대한인교민단으로 재편되어 중앙총회에서 떨어져나가자 국민회는 북미지역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재편 후 국민회는 이승만과 같은 뚜렷한 지도인물이 없는 데다 1929년 10월부터 시작한 경제대공황으로 재정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되어 자체 유지도 어려울 정도였다.

국민회가 침체에 빠지고 대공황으로 경제상 어려운 상태에 빠졌지만 독립운동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재미한인들에게 활력을 불어일키고 새로운 단체설립에 영향을 준 것은 국내에서 발생한 광주학생운동 소식이었다. 이 소식이 미주에 퍼지자 국내학생운동을 후원한다는 명분으로 1930년 1월 27일 뉴욕(New York)의 한인공동회를 비롯하여 시카고(Chicago)한인공동회(1930. 2. 3), 나성(Los Angeles)한인공동회(1930. 2. 9), 디트로이트(Detroit)한인공동회(1930. 2), 중가주한인공동회(1930. 3. 8)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이들 한인공동회는 모두 독자적인 활동기반을 갖고 있었으나 국내 혁명운동에 대한 후원과 선전활동을 위해 동일한 보조를 취하자는 뉴욕 한인공동회의 제의를 받아들여 1930년 3월 연합을 꾀하였다. 그 결과 각지의 한인공동회는 뉴욕에 한인공동회 중앙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허정, 서기 오천석을 선임하였다.<sup>44)</sup>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1년간의 사업성적을 보면 ① 영

43) 《太平洋週報》, 1939년 1월 18일·2월 4일, 〈동지대표회록〉.

44) 《新韓民報》, 1931년 2월 5일, 〈공동회 중앙위원회 사업에 관하여 해외동포 제위에게 고향〉.

문책자 《Korea Must Be Free》 10,000여 권을 발간하여 미국의 각지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보낸 일, ② 학생회를 도와 학생영문보의 출판과 미국 각지에 배포한 일, ③ 미국의 언론과 접촉하여 국내 학생들의 항일운동사건을 선전한 일, ④ 자체적으로 통신부를 설치하여 학생운동 및 국내 사정을 설명케 한 일 등이었다. 그러나 1932년 중앙위원회에서 인물난과 비용문제로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공포한 것으로 보아 이후 한인공동회의 연합활동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 것 같다. 한인공동회의 조직과 운영이 모두 독자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재미한인사회는 더욱 분열되었다.

#### 나. 미주 한인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국민회의 침체와 한인공동회 설립으로 인한 분열상에 대해 북미 한인사회에는 자성의 기운과 함께 국민회와 학생총회, 《新韓民報》를 중심으로 다양한 통일론이 제기되었다.<sup>45)</sup> 활발한 통일논의의 바탕에서 일제의 만주침략으로 상해 임정과 상해거류 한인사회로부터 대일항전을 위해 혁명역량을 결집하자는 요구가 밀려오자 광복을 위한 통일운동이 추진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중가주한인공동회는 1931년 10월 17일 임정후원과 역량집중을 위한 재미한교연합회 조직을 제안하였다.<sup>46)</sup> 여기에 대해 국민회 총회장 白一圭와 선전부위원들은 1931년 11월 2일 중가주한인공동회 대표 김정진과 회의를 갖고 임시정부로 모든 힘을 합칠 것과 미주 한인연합회를 조직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11월 9일 두 단체의 이름으로 미주 한인연합회(이하 ‘한인연합회’로 약함) 발기문을 대외에 공포하였다.<sup>47)</sup>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한 국민회·나성한인공동회·중가주한인공동회·묵경자성단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조직의 대강을 비롯해 선언서와 규칙·결의안 등을 제정한 뒤 한인연합회 설립을 공포하였다. 설립목적은 ‘한인 전체의 역량을 집중하여 임시정부를 후원하며, 국민의 선전에 노력’ 하는데 있었다.

한인연합회는 1932년 1월 22일 임정 공문을 통해 공식기관으로 인준받는

45) 이러한 통일론에 대해서는 홍선표, 앞의 글(1996) 참조.

46) 《新韓民報》, 1931년 10월 22일, 〈중가주공동회결의안〉.

47) 《新韓民報》, 1931년 11월 12일, 〈미주 한인연합회발기문〉.



동시에 미·목·큐 지역 동포의 인구세 수봉업무를 부여받았다. 아울러 1933년 2월 나성동지회가 한인연합회에 참가하면서 한인연합회의 위상은 북미 한인사회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으로 부상하였다.

한인연합회는 크게 입법부와 집행부로 나누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집행부에서 담당하였다. 집행부의 구성은 사무장 1인, 재무 2인, 서기 1인, 선전부장 1인으로 구성되어 사무장이 모든 사무를 총괄하였다. 한인연합회의 주요 활동은 재미한인들로부터 인구세를 수봉하여 임시정부로 송부하는 것이었는데, 설립 이후 약 1년간 인구세 수봉실적을 보면 677달러였고 이 중 675달러를 임정으로 송금하였다.<sup>48)</sup>

그런데 한인연합회는 단순한 연합체에 불과했기 때문에 회원, 단체들간의 결속을 단단하게 유지시킬 만한 조직력을 갖지 못하였다. 또 자체 유지를 위한 예산이 없어 전담 사무실이나 전담 사무원을 둘 수 없어 회원, 단체가 사무를 분담하였고, 활동근거지도 달라 선전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집행부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여 활동하기도 어려웠다.

무엇보다 한인연합회의 운영을 어렵게 만든 것은 국민회가 연합회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보이지 보다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다. 그 이유로는 국민회의 우월의식과 한인연합회의 이승만 지원에 대한 불만, 국민회의 한인연합회 가입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국민회 내부 한인연합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회원단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한인연합회는 국민회가 1933년 4월 2일 단독으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가입을 위해 탈퇴를 발표한 후 크게 위축되었다. 한인연합회는 1933년 4월 16일 중가주 리들리에서 국민회를 제외한 4개 단체 대표가 모여 특별대표회를 개최하였으나, 중가주 한인공동회와 나성한인공동회가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大韓獨立黨<sup>49)</sup>을 설립하면서 연합회는 유명무실해졌다. 이러한 대한독립당도

48) 《新韓民報》, 1933년 2월 23일, 〈미주 한인연합회 제2차 통상대표회 공포서〉.

49) 大韓獨立黨은 다음의 자체 규약을 정하였다.

제1조, 우리 단결은 대한독립당이라 함.

제2조, 우리는 혁명의 방법으로써 한국 독립을 완성하기 목적함(《新韓民報》, 1933년 4월 20일, 〈공동회가 독립당으로〉).

소속단체, 회원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해 외면받으면서 설립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임원들만 남은 이름뿐인 단체로 전락하였다.<sup>50)</sup>

일제의 만주침략을 계기로 임시정부를 돕고 재미한인의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설립된 연합회는 미주 한인사회에 외견상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위상을 가졌으나, 국민회의 탈퇴와 대한독립당의 설립으로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 다.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가맹운동

연합회로 운영되던 재미한인사회는 金奎植이 1933년 3월 10일 로스엔젤레스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김규식의 도미 목적은 미주지역 한인단체의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이하 '통일동맹'으로 약함)으로의 가맹과 재미韓·中 양 민족의 연합을 통한 중한민중대동맹 미주지부를 결성하여 국제적인 연대를 꾀하는 일, 마지막으로 독립운동을 위한 미주동포의 의연금 모집과 선전활동에 있었다.<sup>51)</sup>

국민회가 같은해 4월 2일 통일동맹 가입을 결의하자 나성한인공동회·대한독립당 등 여타의 단체들도 통일동맹에 가입하였다. 뉴욕의 한인들은 김규식의 뉴욕 방문을 계기로 6월 18일 뉴욕의 동지회·대한인교민단·국민회지방회 3개 단체 연합으로 통일동맹뉴욕지부를 결성하고 자체 규약과 임원을 선임하였다.<sup>52)</sup> 또 뉴욕 한인들은 6월 24일 중국인과 연합하여 中韓民衆大同盟 뉴욕지부를 결성했다.

김규식이 북미지역에 머무른 약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북미 한인사회내 대부분의 단체가 통일동맹에 가입하였다. 또 하와이에 있는 국민회와 동지회도 1933년 7월 22일과 10월 30일에 각각 통일동맹에 가입하였는데 이로써 전체 미주 한인사회는 외견상 통일동맹으로 통일된 것처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미주 한인들은 이번 기회를 미주 한인사회 통일을 위

50) 회장 송헌주와 서기 송창균만 남게 되었다(《新韓民報》, 1933년 5월 18일, 〈대한독립당의 소식〉).

51) 《新韓民報》, 1933년 5월 18일, 〈김박사의 사명〉.

52) 선임된 임원은 집행위원 고소암·이철원·조극·이진일·장신산 등 5인과 재무 고소암, 서기 장진산이다.

한 호기로 보았으나 통일동맹 가입은 어디까지나 한국 독립을 위한 대의에 찬성하고 동조한다는 표시이지 미주 한인단체의 연합이나 통일을 기대한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통일동맹 가입을 계기로 통일운동의 산물인 연합회가 해체되고 대한독립당이 설립되는 등 미주 한인사회는 더 분열되었다. 統一同盟 가입현상이 준 의미는 光復이라는 한 목표 아래 모든 단체가 언제라도 힘을 결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점이라 하겠다.

#### 라. 대한인국민회의 합동운동

1935년 3월 최진하가 새로 총회장이 된 이후 국민회 내부가 차츰 정비되었다. 최진하는 국민회의 당면과제를 2세 청년을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 할 것과, 재미한인사회의 통일책 및 발전책 연구로 삼았다. 그는 이런 자신의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1936년 5월 1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각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인구제·청년교양·임시정부 후원을 향후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는 국민회 인물 외에 중가주한인공동회·나성한인공동회·나성동지회의 인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미서부지역 한인대표들이 다 모인 셈이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재미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하나로 뭉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실현방법으로 역사와 전통이 가장 오래된 국민회를 부흥시켜 국민회 중심의 합동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sup>53)</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 국민회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한 특별대의회에 서 국민회 발전방향을 결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본회 憲章을 고쳐 委員會를 채용함, ② 노인구제, ③ 2세 청년을 위한 국어학교 설립, ④ 임시정부에 대한 후원, ⑤ 총회관을 로스앤젤레스에 신축하는 것 등이다. 이중 위원제로 만드는 일은 총회장의 독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총회장 선거를 폐지하는 대신 능력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합의제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국민회 중심의 합동운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 같은 헌장 개정은 능력 있는 지방유력자들에게 국민회 참가문

53) 《新韓民報》, 1936년 5월 28일, 〈대한인국민회총회 임원회의 결의안〉.

호를 확대시켰다.

합동운동 이후 국민회의 1년간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이 놀라울 정도로 부흥하였다.<sup>54)</sup>

- 一. 중일대전으로 인한 임시정부의 후원과 중국 항일에 정신과 물질로 돕는 일에 재미한인이 국민회의 기치 아래 일치 행동을 취한 것.
- 一. 총회관을 나성에 건축한 일.
- 一. 국민회 회원이 3배로, 인구세 납부가 3배로 증가한 것과 지방회가 16곳으로 확장된 것.
- 一. 청년부가 미·목·큐 각지에 설립된 것.

이처럼 진행된 국민회의 합동운동은 비록 북미내 모든 한인들을 국민회 회원으로 만들만큼 완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북미 한인사회에 상당한 위상과 지도력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국민회는 光復事業 추진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마. 중일전쟁 이후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1930년대 후반 북미지역 한인사회는 국민회 중심의 합동운동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새로운 활기를 되찾았다. 이런 가운데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국민회는 현 시국을 비상시기로 인식하고 임시정부후원활동을 추진하였다. 국민회는 1937년 9월 제4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정후원을 위한 특별의연금과 중국항일전쟁후원금(또는 ‘중국항일동정금’으로 불림) 그리고 광복 때까지 독립운동을 항구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국민부담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1938년 9월 국민회 제3계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중앙상무부 안에 시사위원회를 두어 원동정세와 재미한인의 임무 및 대내외의 선전방침을 연구하게 하고 국민회 대표 1인을 원동으로 특파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sup>55)</sup> 또 국민회는 비상시기에 하와이 각 단체들과 일치된 행

54) 《新韓民報》, 1938년 2월 3일, 〈재미한인의 정형〉.

55) 이 때 선정된 시사위원 7인은 초기엔 한재명·김성락·임병직·김강·김탁·안정수·장세운으로 결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김성락·임병직이 빠지고 박재형·심행호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원동특파원 선정은 광림대와 김강이 후보로 선임되었으나 경비부족으로 취소되었다(《新韓民報》, 1938년 9월 8일, 〈제3

동을 도모하고자 같은해 9월 14일로 하와이 국민회와 동지회에 공문을 보내 행동통일을 요청하였다.<sup>56)</sup> 1939년 국민회는 임시정부에 인구세와 국민부담금 1,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한인동포의 미국 입·출입 주선, 쿠바재류 동포에 대한 구제금 송부, 한인유학생의 미국 체류권 청원활동, 그리고 원동에 있는 한인 각 당들에게 통일 및 연합활동의 재촉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sup>57)</sup> 아울러 김용중 등 2세 한인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재해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국내 한인들을 돕기 위해 1939년 12월 20일 발기한 内地旱災救濟會에 대해 국민회는 적극 지원하였다.<sup>58)</sup>

한편 중일전쟁 발발 이후 북미 한인사회에는 국민회 조직과는 별도로 각지에서 한인 연합으로 설립한 중국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1937년 말부터 그 이듬해 초까지 뉴욕한인연합중국후원회·나성한인연합중국후원회·시카고한인연합중국후원회 등이 결성되어 일화배척운동과 후원금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각지에서 한인 연합으로 결성된 중국후원회는 결성 초기 후원회 안에 국민회 주요 임원들과 회원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기존 국민회 조직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조선의용대 창설소식이 미주에 알려진 1938년 11월 이후부터,<sup>59)</sup> 중국후원회의 개별활동은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회는 1939년 1월 22일과 2월 16일 중국후원회 문제를 검토한 뒤 국민회가 직접 후원회를 관할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sup>60)</sup> 하지만 중국후원회는 1939년부터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이하 ‘의용대후원회’ 또는 ‘후원회’로 약함)로 개편하면서 국민회와 점차 분리해 나갔다.

회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안)과 1939년 1월 19일, 〈사업성적서〉·4월 13일, 논설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하여〉 참조).

56) 당시 하와이 국민회와 동지회가 합동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선표, 앞의 글(1998) 참조.

57) 《新韓民報》, 1939년 9월 14일, 〈사업성적보고서〉·12월 28일, 〈민21대사기〉 및 1940년 1월 18일, 〈민국이십일년도 사업성적서〉 참조.

58) 《新韓民報》, 1939년 12월 28일, 〈국민회총회 청원서〉·〈인준장〉·〈제이세 청년의 장거 내지한재구제회〉 참조.

59) 조선의용대 창설소식이 미주에 알려진 것은 《新韓民報》, 1938년 11월 3일, 〈한구에서 조선의용대 정식성립〉이라는 기사에서부터다.

60) 《新韓民報》, 1939년 3월 23일, 〈중앙상무위원회의 중요결의〉.

조선의용대 후원문제가 처음 대두되는 것은 1939년 6월 나성한인연합중국 후원회를 대표한 변준호가 조선의용대 후원을 목적으로 로스엔젤레스에 한인 소집을 허락해 줄 것을 국민회 당국에 요청하면서다. 이것은 조선의용대 후원문제를 기존의 국민회·동지회와 같은 기성단체들과 연합해서 공동후원 하자는 의도에서였다.<sup>61)</sup>

하지만 기존의 북미 국민회와 동지회측은 조선의용대 창설문제에 별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동안 두 단체 모두가 처음부터 오직 임시정부 중심으로만 활동해 임시정부와 무관한 조선의용대에 대해 탐탐치 않게 생각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선의용대를 창설한 朝鮮民族革命黨이 그 동안 임시정부를 否定 또는 不關係 온 현실이 미주 한인사회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를 후원할수록 임시정부에 대한 후원이 줄어든다는 사실도 마땅치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회는 6월 29일 중앙상무위원회를 열고 변준호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이유는, 지난 4월 6일 국민회 제2계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와 어긋난다는 것이다.<sup>62)</sup> 즉 재미한인은 국민회의 통솔하에 인구세와 국민부담금을 거두어 임시정부로 상납하는 것이 원동활동을 돕는 바른 길이요 在來의 規例인데, 이 규례를 버리고 조선의용대를 직접 후원한다면 사무진행의 계통을 문란케 하는 것이므로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민회 입장은 북미 한인사회를 철저하게 임시정부 중심과 국민회 중심으로 주도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회의 태도에 대해 중국후원회는 간섭과 통제만 있고 활동이 미약한 국민회에 대해 불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존 단체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자 중국후원회측은 활동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면서 소속단체를 불문한 개인별 후원에 의존하였다. 그런 후 1939년 8월 27일 로스엔젤레스의 중국후원회는 안석중 등 40명의 명의로 자체를 해소하고 〈조선의용대후원회 성립선언문〉을 발표하였고,<sup>63)</sup> 10월 7일 中·美人들과 함께 로스엔젤레스 일

61) 《의용보》, 1941년 3월호, 〈질의문답〉.

62) 《新韓民報》, 1939년 7월 6일, 〈의용대후원에 관한 중상결의〉·1940년 1월 18일, 〈민국 21년도 사업성적서〉 참조.

63) 〈朝鮮義勇隊後援會成立宣言〉, 《朝鮮義勇隊通訊》 제28기(1939. 11). 후원회 회원은 60여 명이었고, 집행위원으로는 위원장은 안석중, 위원 김강·최능익·신두

본영사관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운동을 전개하면서 후원회 설립을 대외적으로 기념하였다.<sup>64)</sup>

조선의용대후원회 조직은 나성지역 외에 이미 1939년 4월과 9월에 뉴욕과 시카고에서도 각각 설립되고 있었지만 현재 자료미비로 그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형편이다.<sup>65)</sup> 다만 이들 후원회 단체들은 1940년 5월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연합회(이하 ‘조선의용대후원회’로 약함)로 통합되면서 통일된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의용대후원회는 중한민중동맹단 대표인 한길수의 외교선전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반일시위운동이나 반일선전강연 등 대외활동과 조선의용대 지원을 위한 재정모금운동 등에 주력하였다.

조선의용대후원회는 조선의용대 후원을 주목적으로 하였지만 여기에만 한정하지 않으려 했다. 즉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하는 모든 군사운동에 대해 후원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다만 임정의 광복군이 창설 중일 때 후원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광복군을 후원한다는 원칙을 가졌으나 이왕이면 이미 조직된 의용군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sup>66)</sup>

조선의용대후원회는 스스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한 임시적인 기관이며 기존의 국민회와 전혀 대립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지만, 자체 회관을 마련하고 1940년 1월부터 기관지 《의용보》를 발간하는 등 항구적인 정치단체로 자리잡아 갔다. 그 결과 의용대후원회는 1941년 4월 하와이에서 개

식·정지영·변준호·김혜란·곽립대·최봉운·선우학원·이창희·최영순·이경선이었다(김혜란, 〈중일전쟁 이후 재미동포 해방운동의 회고〉(2), 《독립》, 1946년 9월 25일).

64) 《新韓民報》, 1939년 10월 12일, 잡보 〈조선의용대후원회의 나성 왜영사관에 피케팅〉. 그런데 김혜란의 위의 글에서는 조선의용대후원회 설립시기를 10월 18일로 보고 있고, 최기영, 〈조선의용대와 미주 한인사회〉(《한국근현대사연구》 11, 1999)에서는 최능익의 〈의용대후원회와 과거의 활동〉이라는 글을 통해 나성의 조선의용대후원회 설립시기를 1939년 10월 10일로 하여 모두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당시 소식을 가장 가까이서 보도했던 《新韓民報》의 기사를 따랐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날(1939년 10월 7일) 피케팅 행사는 조선의용대후원회 성립기념식으로 치러졌다고 한다.

65) 《의용보》, 1941년 1월호, 〈의용대후원회의 유래〉 참조.

66) 《의용보》, 1940년 3월호, 〈질의문답〉 참조.

최한 해외한족대회에 북미지역 한인사회의 한 대표로 국민회와 함께 참여하였고, 1942년 10월에는 자체를 해소하고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로 개편, 조직을 확대시켜 나갔다.<sup>67)</sup>

### (3) 1940년대 미주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 가. 하와이 한인사회의 연합활동과 독립운동

통일운동의 실패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하와이 한인단체들이 연합행동을 보인 때는 1940년이 되면서부터다. 이 때가 되면 유럽에서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이 점차 확대되어 미국의 참전분위기가 형성된다. 루즈벨트(Roosevelt, Theodore)대통령은 1940년 5월 26일 시국연설에서 현 전쟁을 대비해야 함을 역설하고 국방력 건설과 전쟁난민을 위한 적십자 구제금기부를 미국민들에게 요청하는 등 大戦참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sup>68)</sup> 아울러 미국내에서는 장차 미일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고조되고 있었다.<sup>69)</sup> 특히 하와이가 미일전쟁의 첫 발생지가 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하와이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하와이 한인들은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 당시 하와이는 미국정부가 하와이에 대한 국방설비를 한창 준비하는 중이어서 거류민 사회 전체가 국방준비를 대대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 동지회 외교원 이원순은 〈이 때 한인은 어떻게 할까〉라는 글에서 이번 시국을 계기로 하와이 한인들의 공동행동을 요구하였다.<sup>70)</sup>

이러한 공동보조의 분위기 속에 하와이 한인들은 1940년 10월 13일 6개 단체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연합한인위원회(‘한인연합위원회’라고도 불리움, 이하 ‘한인위원회’로 약함)를 조직하였다.<sup>71)</sup> 10월 20일 발표한 〈연합한인위원선언서〉를 보면 연합한인위원회는 미국의 국방활동을 전적으로 후원할 목적으로 조직되었지만 이 후원활동을 통해 한민족이 목표하는 독립과 식민지 민족의

67) 《독립》, 1943년 10월 27일. 〈의용대 후원회와 과거의 활동〉.

68) 《太平洋週報》, 1940년 6월 1일, 〈국방에 대한 대통령연설〉.

69) 《太平洋週報》, 1940년 8월 3일, 〈1년래 미국 참전을 선언〉·10월 12일, 〈미일 충돌이 일주일내에 날 듯〉 참조.

70) 《太平洋週報》, 1940년 10월 12일.

71)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편, 《해방조선》(나성과 하와이, 1948), 149쪽.



해방을 도모하려 하였다.

한인위원회에 대해선 자세한 자료가 없지만 조직은 하와이내 주요 단체 6개 대표 20명으로 구성하였다.<sup>72)</sup> 10월 20일 주요 임원을 비롯하여 관리부·선전부·구호부·훈련부·조사부·재정부 등 6부의 임원을 선정하였다. 인원 선정은 참가한 단체 모두에게 골고루 안배되었다.

한인위원회는 비록 미국의 대전참전 분위기를 계기로 미국방원조라는 대의명분 속에 이루어졌으나 1930년대 하와이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전개한 통일운동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인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자료상의 한계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후 해외한족대회 이후 미국방후원 사무가 제미한족연합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1941년 5월 경 해소되었다.

한인위원회 결성을 계기로 하와이 한인들의 독립운동은 연합적으로 추진되었다. 중경 임시정부의 광복군조직 계획이 하와이를 비롯한 미주 한인사회에 알려지면서 하와이 한인사회는 북미와 마찬가지로 광복군후원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하와이에서 전개된 광복군후원활동은 자료상의 한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941년 제단체 연합으로 거행된 3·1절 기념식을 통해 하와이 한인사회는 전례 없는 대동단결력을 보임과 동시에 광복군후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sup>73)</sup>

이런 성과에 힘입어 당시 3·1절 경축위원장이던 안원규는 3월 10일 각 단체에 보낸 〈윤첩〉에서 광복군후원활동을 상설화할 것을 요청하였다.<sup>74)</sup> 그 결과 3월 13일 국민회·동지회가 연합한 대한광복군후원금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광복군후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72) 참가단체와 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부인구제회(동지회) : 김순연·손노디·이유실
- 부인구제회(국민회) : 광명숙·김차순·김매들린
- 중한민중동맹회[단] : 정두옥·차신희·손창희·김영선
- 대조선독립단 : 정태영·박성달·현순·이명선
- 동지회 : 손승운·이원순·안현경·도진호
- 국민회 : 안원규·김원용·김태원·김현구

(《太平洋週報》, 1940년 10월 29일, 〈각단체 대표대회〉).

73) 3·1절 연합행사를 통해 거둔 광복후원금이 2,000여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하와이 한인들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었다.

74) 《新韓民報》, 1941년 3월 27일, 〈윤첩〉.

이처럼 하와이 한인사회는 연합한인위원회와 광복군후원활동을 통해 단결력을 대외에 과시하면서 독립운동의 열기를 이어갔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후 북미 국민회와 함께 해외한족대회를 준비하는데 좋은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 나. 해외한족대회의 개최

##### 가) 대회 추진과정

1930년대 북미와 하와이에서 이루어진 한인사회의 통일운동은 비록 완전한 결실을 주지 못했으나 미주 한인들로 하여금 광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통일 심리를 심어주었다. 1941년 4월에 개최된 해외한족대회는 바로 이런 1930년대 미주 한인사회에서 전개된 통일운동의 산물이었다. 광복대업을 위해 미주지역 9개 단체가 참가한 해외한족대회는 미주 한인 역사상 최대의 행사였다. 이 대회를 통해 미주 한인들은 그 동안 이루지 못한 한인사회를 한 군데로 결집시키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해외한족대회는 중국후원회와 조선의용대후원회 결성으로 위촉된 북미 국민회가 미주 한인사회에 지도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북미 국민회는 중일전쟁 이후 당면과제를 광복대업을 위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는 것과 국민회 중심의 합동을 완성하는 것에 두었다. 그러나 후자의 문제는 조선의용대후원회가 결성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민족적 대단결을 모색하려는 전자의 문제 또한 북미 국민회가 이미 1938년 9월 시국문제 협의를 위해 하와이 국민회와 동지회에 공함을 보내 교섭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하와이 내부의 합동문제로 별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1940년 1월 22일자 임시정부 재무총장의 공함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에 전해진 광복군 창설소식은 북미 국민회로 하여금 광복군후원금 모금활동 등 활발한 대외활동 추진에 좋은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광복군후원활동은 북미 못지 않게 하와이에서도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성과는 상당하였다. 김구의 회고에 따르면 한국광복군 창설은 미주·하와이 동포들이 원조한 3~4만 달러 등 모든 역량을 다한 자력에 의한 창설이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재미한인들의 광복군후원활동은 막대했다고 볼 수 있다.<sup>75)</sup>

국민회는 광복군후원활동으로 한인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자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미 국민회는 임정 아래 일치된 행동을 전개하고 시국문제 협의를 위한 내용으로 1940년 4월부터 하와이 국민회와 교섭하였다. 구체적인 교섭결과는 북미 국민회가 1940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제5차 대표대회 ‘立案’에 의거 1941년 1월 7일 하와이 국민회와 동지회에 대해 또다시 의견서를 보냄으로써 이루어졌다. 의견서 내용은 3개 단체가 대표 3인씩 선출해 시국문제를 공동 협의해 보자는 것이었다.<sup>76)</sup> 이 제안을 찬성한 하와이 국민회와 동지회는 1월 16일과 17일 회신에서 경비절감을 위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모일 것과 참가경비는 3단체가 평균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sup>77)</sup>

이로써 해외한족대회 개최문제는 실질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북미 국민회는 3월 9일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요 안건으로 먼저 무장운동과 외교 및 선전활동에 주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년 예산을 2만 달러로 정하되 지출은 임정 1만 5,000달러, 미주 외교비 5,000달러로 정했다. 또 이번 대회를 북미와 하와이의 3단체 중심으로 개최한 뒤, 연합회를 조직하되 의사부는 하와이에, 집행부는 로스엔젤레스에 설치키로 했으며, 외교위원 1인을 선정하여 임정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다.<sup>78)</sup> 이와 함께 국민회는 이번 대회의 방향을 임시정부 봉대, 광복군 후원 그리고 외교운동의 전개로 정하고 한시대·김호·송중익을 하와이 파견대표로 선임하였다.<sup>79)</sup>

한편 하와이 국민회와 동지회도 이번 대회를 임정 중심의 대동단결과 광복대업의 축성에 두었다. 그런데 하와이 두 단체는 이번 대회 참가단체의 범

75)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382쪽.

76) 《新韓民報》, 1941년 1월 9일, 〈중상회결〉·3월 6일, 〈중상결의〉 참조.

77) 이 때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주 국민총회 대표 3인을 하와이로 파견하여 하와이 국민총회 대표와 동지회 중앙부 대표, 3개 단체의 대표회를 열어 미주와 하와이 재류동포의 광복군 후원과 외교진행의 일치를 협의할 일(《新韓民報》, 1941년, 3월 6일, 〈중상결의〉·13일, 〈임시중앙집행위원회 결의〉).

78) 〈임시중앙집행위원회 회록(1942. 3. 9)〉(《대한민국민회 중앙집행회의록(1941~1944)》,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소장자료).

79) 《新韓民報》, 1941년 4월 10일, 〈미주국민총회대표 하와이로 전왕〉.

위와 출석대표의 자격을 임시정부를 신뢰하고 옹호하거나 또는 이를 서약하는 단체로서, 전권을 가진 신임장을 휴대하고 자격심사위원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하였다.<sup>80)</sup> 이러한 방침은 북미 국민회가 제기한 3단계 중심의 대회에서 벗어나 미주내 모든 한인단체로 참가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해 볼 때 해외한족대회는 임시정부를 옹호, 지지하는 모든 단체가 참가한 대규모 대회로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외한족대회는 북미 국민회 대표 3인이 4월 16일 호놀룰루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되었다. 북미 국민회 대표는 하와이 국민회 대표 안원규·김현구와 동지회 대표 이원순·안현경·도진호를 중심으로 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준비위원회는 美·布의 주요 단체에 대표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원동의 제 단체 참가를 중경 임시정부에 요청하였는데, 임시정부에 일이 많아서 떠날 수 없다는 김구의 회신으로 임정대표의 참가는 포기해야 했다.<sup>81)</sup> 하지만 임정은 4월 20일로 대회준비회에 보낸 공함에서 이번 대회에 큰 기대를 표명하고 대미외교문제와 광복군후원문제를 특별히 당부하였다.

해외한족대회에 참가한 단체와 대표는 북미 두 곳, 하와이 7곳 총 9개 단체에 15명이었다.<sup>82)</sup> 그런데 북미 국민회와 하와이 국민회·동지회는 각 3인

80) 위와 같음.

81)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해방조선》(여강출판사, 1986), 151쪽.

82) 참가한 각 단체와 대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북미 대한민국민회 대표 : 한시대·김호·송종익
- 동지회 대표 : 안현경·이원순·도진호
- 하와이 국민회 대표 : 안원규·김현구·김원용
- 중한민중동맹단 대표 : 차신호
- 대조선독립단 대표 : 강상호
- 한국독립당하와이총지부 대표 : 임성우
- 조선의용대미주후원회연합회 대표 : 권도인
-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 대표 : 민함나·심영신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는 국민회측(심영신)과 동지회측(민함나)으로 나누어져 있어 두 단체로 보아야 한다. 그 외 하와이 국민회장 조병요와 동지회 중앙부장 손승운은 정식 대표는 아니었지만 소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하였다. 그리고 김원용의 앞의 책, 410쪽에 대한여자애국단 대표 이성례·박경신이 참가했다고 기록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新韓民報》, 1941년 5월 8일, 〈해외한족대회준비회〉 참조).

씩 대표로 초청된 반면 그밖의 단체는 대표 1인만 초청되어서 이번 대회는 처음부터 두 국민회와 동지회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나) 대회 내용과 성과

해외한족대회는 4월 19일 대회 진행 임원선정과 20일 대회 의장 안원규의 역사적인 개회식 선언과 함께 4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sup>83)</sup> 회의를 통해 나온 주요 사항은 4월 27일 공동대회를 통해 설명되어 조정되었고, 최종안은 〈해외한족대회 결의안〉(이하 〈결의안〉으로 칭함)이라는 이름으로 4월 29일 발표되었다. 세측과 규정을 포함하여 총 7개조로 이루어진 〈결의안〉은 그 동안 진행한 해외한족대회의 모든 회의내용을 압축하였다. 주요 내용은 ‘독립전선의 통일’·‘임시정부 봉대’·‘군사운동’·‘외교운동’·‘미국방공작의 원조’·‘재정의 통일’·‘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조직’ 등 일곱 가지이다.<sup>84)</sup>

이번 대회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외교사업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인선문제로 진통이 있었다. 즉 대미외교를 담당할 사람을 1인으로 두느냐 3인으로 두느냐, 또 이와 관련해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다. 대회 개회 전 임시정부는 대미외교문제에 대해 신설될 외교기관의 명칭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로 하되 책임자를 3명 정도 임명할 것을 권유하고, 그 책임자는 무엇보다 순정한 정신과 인격을 갖춘 덕망있는 인사여야 함을 당부하였다.<sup>85)</sup>

한편 동지회와 중한민중동맹단은 처음부터 외교사업 안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미 중한민중동맹단의 한길수는 1938년부터 미국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동지회의 이승만도 1939년 구미위원부의 문을 연 후 적극 활동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외교활동은 임시정부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임시정부는 본단의 존재와 한길수의 외교사업을 인준해 달라는 중한민중동맹단의 요청에

83) 그런데 해외한족대회는 4월 29일 완전히 종료되지 못하고 5월 1일까지 지속하였다.

84) 이하의 〈결의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재미한국연합위원회, 〈해외한족대회 결의안〉, 앞의 책, 153~156쪽.

85) 《太平洋週報》, 1941년 5월 31일, 〈재미한족에 대한 임정훈사〉.

대해, “外交目標와 宣傳主旨가 得當치 못하기” 때문에 그 교정을 지시하면서 허락하지 않았고,<sup>86)</sup> 또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위해 동지회가 요청한 歐美委員部 復活件에 대해서도 의정원에서 구미위원부를 이미 폐지하였으므로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sup>87)</sup>

이런 상황에서 해외한족대회에서 외교사업을 임시정부의 인준을 받아 실행하겠다고 한 것은 두 단체가 그 동안 시도한 외교활동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소속단체의 대내외적 위상까지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동지회는 이승만을 외교대표로 강력히 추천하였고, 중한민중동맹단은 한길수를 쓴다는 조건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다.<sup>88)</sup> 이런 양측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이번 대회가 무산될 정도였으나 3일동안 인선문제에 매달린 끝에 북미 국민회 대표 김호의 노력으로 외교대표를 이승만으로 국방봉사원을 한길수로 정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그리고 외교사무를 1인이 專務하되 시국의 전개와 사무의 증가를 따라 인원을 증원시키며, 외교위원부에 관한 모든 것은 임시정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김호의 제안은 수용되었으나 임시정부가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었다. 비록 외교기관의 명칭은 임정이 제시했던 주미외교위원부로 받아들였으나 외교원 1인의 선임은 임시정부의 3인案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임정 봉대를 외쳤던 미주 한인들이 이해관계 앞에서는 결국 이상보다 현실의 논리에 따르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인선과정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해외한족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루어진 대회였다. 해외한족대회 결과 미주 한인사회는 임시정부의 기치하에 완전히 통일되고 미주 한인사회를 통할할 최대의 연합기관인 在美韓族聯合委員會를 설립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후 미주 한인사회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는 미주 한인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였다.

86) <大韓民國臨時議政院 記事錄(大韓民國 21년~23년)>(《韓國獨立運動史資料(臨政篇)》1, 국사편찬위원회, 1983), 93쪽.

87) 위와 같음.

88) <제2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1941. 5. 8)>(《대한민국민회 중앙집행위원회회록, 1941~1944》,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소장자료).

이런 성공적인 해외한족대회에 대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제단체들과 미주 한인들은 대대적인 환영과 찬사를 보냈다. 먼저 임시정부는 이번 대회로 인해 미주 한인사회가 임시정부로 통일된 데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였고,<sup>89)</sup> 김구는 이번 대회가 미주 독립운동의 역사상 신평채를 표현한 것으로 축하하였다.<sup>90)</sup> 중경의 민족전선연맹은 해외한족대회 의장 안원규에게 보낸 통신(1941. 8. 1)에서 성공적인 해외한족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아직까지 중국관내의 독립운동단체들이 통일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며 미주 동포들의 본을 따라 통일운동에 공헌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이를 볼 때 해외한족대회의 성공은 민족전선연맹측으로 하여금 임시정부의 한국 독립당과 통일전선운동을 재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주의 한인들은 이번 대회의 성공을 그 동안의 실패를 딛고 나온 ‘犠牲’의 산물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주장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값진 경험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미주와 하와이·멕시코·쿠바 재류동포의 통일전선을 완성하여 해외한족이 다같이 임시정부의 기치하에 서게 된 것은 해외한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각계의 반응들을 살펴 볼 때 이번 해외한족대회는 일제시기 미주 한인사회 역사상 매우 자랑할 만한 업적 중 하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이하 ‘연합회’로 약함)는 미주 한인사회의 분산된 독립운동을 한 군데로 집중하기 위해 9개의 주요 단체들이 연합해 결성한 독립운동기관이었다. 연합회의 설립목적은 보면 조국의 독립운동과 그 전선을 통일하여 항전 승리를 획득하는 동시에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연락, 협조하는데 두었다. 즉 해외한족대회에서 결의한 독립전선의 통일, 임시정부의 봉대, 군사 및 외교운동의 전개, 미국방공작의 후원, 그리고 재정수합 등, 이 모든 일을 직접 실행하기 위해 연합회가 결성된 것이었다. 이런 연합회의 성격은

89) 〈第33回 議會議事錄〉(《韓國獨立運動史 資料(臨政篇)》 1), 117~118쪽.

90) 《新韓民報》, 1941년 6월 26일, 〈임시정부 당국은 한족대회를 가장〉.

연합회가 단순히 배후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후원기관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연합회는 〈해외한족대회결의안〉이 선포된 1941년 4월 29일 결성이 되었으나 이 날 발표는 형식상의 선언이었고 실제 결성은 의사부와 집행부가 각각의 조직을 갖추면서다. 연합회의 조직은 해외한족대회에서 그 대강이 결의됨에 따라 하와이 호놀룰루의 의사부와 북미 로스엔젤레스의 집행부로 구성된 2원체제의 위원제 방식으로 조직되었다.<sup>91)</sup>

참가단체의 대표수는 회원수 비례에 따라 배분되어<sup>92)</sup> 회원수가 많은 두 개의 국민회와 동지회가 사실상 연합회를 주도하였다. 해외한족대회 당시 회원비례의 원칙은 정확하지 않으나 100~150명을 기준한 것으로 보이며, 1943년 제2차 전체위원회(4. 28~5. 8)에서 회원 50명당 대표 1인으로 확대하였고, 그 이후엔 회원, 단체의 크기를 불문하고 평등한 참여로 나아갔다. 연합회 임원 임기는 결성 초기 정해져 있지 않다가 1942년 제1차 전체위원회(4. 3~7, 5. 4~7)에서 2년으로 확정하였다.<sup>93)</sup>

연합회의 운영방침은 해외한족대회에서 결정된 대로 常例會가 없고 특별한 사정으로 의사부와 집행부 공동결의로 임시로 소집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별도의 중앙조직이 없이 매년 全體委員會를 열어 현안문제와 장래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연합회의 전체위원회는 총 3회(1942~1944) 시

91) 해외한족대회에서 결의된 연합회 설치 중 조직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연합위원회는 의사부와 집행부로 하여 의사부는 하와이에 있는 대표원으로 집행부는 미주에 있는 대표원으로 각각 조직함.
- 본회는 재미한족의 정치단체로 구성함.
- 본회의 기관은 위원제로 하고 위원은 해외한족대표대회 출석대표 전수와 하와이 국민회 · 동지회 · 미주 국민회 수석으로 선출함.
- 하와이에 있는 위원 전부를 의사부를 조직하고 미주에 있는 위원 전부를 집행부를 조직하되, 각 위원의 결원보충은 각기 전임자 소속단체에서 행케함.
- 본회는 상례회가 없고 특별사정으로 의사부와 집행부 공동결의를 따라 임시로 소집케 함.

92) 여기에 대해서는 “What U.K.C. Stands For : Its Program,” *The Korean National-Pacific Weekly*, Jan. 20, 1943.

柳一韓, 〈단체에 대한 인식 착오〉(《新韓民報》, 1943년 8월 12일).

93) 《新韓民報》, 1942년 5월 14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제1차 전체위원회 결의안〉.



행되었는데 회기를 정하지 않았는데도 시국사정에 따라 매년 봄철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연합회의 재정사무는 해외한족대회에서 집행부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각부가 독자적으로 재정을 관리하였다. 이것은 의사부와 집행부의 위치가 지역적으로 상호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각지에서 수봉한 재정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실제 운영면에서도 통합관리할 중앙기관이 없는 연합회 속성상 시행하기 힘든 것이었다.

1943년 제2차 전체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의사부의 행정범위를 조정하여 전체적인 일은 집행부가 담당하고 지역적인 것은 각부가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원칙을 결정하였다.<sup>94)</sup> 이로 인해 연합회의 중경특파원 파견문제나 워싱턴사무소 설립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두 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갔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연합회 조직과 운영은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라기보다 지역적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조직·운영되었고, 중요사항에 대해선 각부의 상호협의하에 추진하였다.

연합회의 활동은 각 방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모든 재정을 獨立金으로 통일한 해외한족대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임정과 주미외교위원부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였다. 1941년 2만 달러의 1년 예산에서 시작한 뒤 그 이듬해는 연 6만 달러로 확대해 2/3는 임시정부에 1/3은 주미외교위원부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설립 이후 1948년까지 연합회가 임정에 지원한 금액은 5만 8,201달러이며, 주미외교위원부에 2만 6,520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원금액은 전체 독립금 수입 14만 9,481달러의 38.9%와 17.7%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던 2/3를 임정에, 1/3을 주미외교위원부에 지원한다는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먼저 1943년부터 주미외교위원부 개조문제를 둘러싸고 연합회와 이승만과 갈등을 빚으면서 독립금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임정에 대한 재정후원을 무조건적으로 시

94) 《新韓民報》, 1943년 5월 13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제2차 전체위원회 결의안〉.

행한 것이 아니라 연합회의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것에 따라 지원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이승만과의 갈등에 대해 임시정부가 동지회 편중책을 펴 나가자 재정지원의 감소 및 중단으로 대응하였다. 이 때문에 임정에 대한 연합회의 재정지원도 1944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재정지원 모습은 독자적인 위상과 권위를 확보해 가려는 연합회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연합회의 선전외교활동은 해외한족대회에서 결의한 주미외교위원부(이하 ‘위원부’로 약함)를 통해 전개하였다. 위원부는 해외한족대회에서 민간외교보다 정부외교로 실시한다는 계획하에 설립되었고 1941년 6월 임정의 승인을 얻으면서 공식적인 외교기관이 되었다. 위원부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임정승인 활동과 군사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임정승인활동은 미국이 임정을 비롯한 한국독립운동 단체들을 불신한 데다, 자국의 대한정책이 영국·중국·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현 전쟁의 승리와 전후 안정에 더 치중해 신탁통치로 확정하면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의 무기대여요청도 미국정부의 임정승인문제와 결부되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승만이 제기한 재미한인의 군사훈련계획은 미 군부에 받아들여져 1942년부터 장석윤·장기영 등 38명이 카타리나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군사훈련을 받았다.<sup>95)</sup> 이러한 군사훈련은 이후 미 군부가 남코(NAPKO)작전과 중경에서 추진된 독수리작전(Engle Project), 그리고 화북작전 등을 수행하는데 좋은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연합회는 미국방후원공작활동의 일환으로 로스엔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그리고 호놀룰루에 각각 한인경위대를 설치하였다. 연합회는 1942년 3월 31일 임정으로부터 관리권을 받은 후 한인경위대를 광복군의 군사조직으로 편성하였고,<sup>96)</sup> 1942년 4월 26일에는 거주정부로부터 맹호회장을 받아

95) Clarence N. Weems, “*Washington First Steps Toward Korean-American Joint Action(1941~1943)*,” 《韓國武裝獨立運動에 관한 國際學術大會 論文集》(한국독립유공자협회, 1988), pp. 337~338쪽.

96) 《新韓民報》, 1942년 4월 30일, 〈임시정부의 한인경위대에 관한 전보〉·5월 7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보고〉·11월 5일, 〈임시정부 국무회의 중요기사〉.

일명 ‘맹호군’으로 부르게되는 등 활동기반을 확대해 나갔다.<sup>97)</sup> 한인경위대는 1943년 6월 미육군부의 방침에 의거 그 권리를 상실할 때까지 각종 시위행렬과 방송선무활동 등에 참가하여 과거 박용만·盧伯麟 등에 의해 전개된 미주 한인의 무장독립운동정신을 이어갔다.

한편 연합회는 이승만과 위원부 사무확대문제로 마찰이 일자 단독으로 워싱턴사무소를 설치해 독자적인 선전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태평양협회(I. P. R)나 국제연합구제협회(UNRRA) 등 국제회의에 참가해 한국문제를 선전하였고, 미국내 한인포로의 전시활용을 교섭하였으며, 미국무부와 교육부 등 부서에 한국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각종 집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한국문제를 선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sup>98)</sup> 해방 이후 연합회 대표단이 한국에 입국하려 할 때 미정부가 쉽게 허가를 내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활발한 활동을 계기로 미정부가 연합회의 존재를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밖에 연합회는 재미한인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한인증명권 발급을 통한 생명 및 재산보호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미국방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위해 국방공채발매 및 승전후원금모금활동과 각종 위문활동, 미군 부대 내에서의 한인사역활동 등을 위해 크게 노력하였다.

연합회는 1943년 이승만과 연합회 사이에 제기된 위원부 사무확장문제로 갈등과 마찰을 빚은 후 동지회의 탈퇴로 이어지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44년 10월 위원부개조를 위한 미주 한인 전체대표대회(10. 28~11. 5)의 결정이 동지회 불참을 이유로 임정에 의해 거부되자 연합회와 임시정부와의 관계 또한 악화되었다.

이러한 관계악화로 연합회는 임정 봉대를 외쳤던 설립 초기의 정신을 버리고 독자활동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1944년 4월 통일내각을 성립해 대내외적인 위상을 제정립하고 독립운동의 역량집중을 도모해 나갔던 중경 임정의 노력과 기대를 무산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독자활동 모습은 1945년 4월 샌

97) 《新韓民報》, 1942년 4월 30일, 〈의기가 하늘에 닿은 한중비 3국인 경위대 관병식의 장관〉·〈맹호회장의 연대기〉.

98) 도 984, Report UKC in America Washington Office of The Secretary of Public Relations(June 5, 1944—February 5, 1945),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창설대회에서 이승만이 중심이 된 정부대표와는 별도로 연합회가 한족대표를 조직해 추진함으로써 표면화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연합회 단독으로 국내대표단을 조직해 미정부의 공식허가를 받아 통일국가수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연합회의 모습은 과거 임정 및 기타 독립운동단체들의 재정후원과 이승만·안창호 등 특정인물의 외교활동에 대한 재정후원에만 주력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적이고 자주적인 독립운동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연합회 결성 이후 나타난 새로운 모습이며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큰 변화라 할 수 있으나, 전체 독립운동사상에서 볼 때 독립운동전선의 분열을 의미하는 아쉬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洪善杓〉

## 2) 일본지역 민족운동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은 1920년대 말 30년대 초를 거치면서 새로운 모습을 띠어 갔다. 물론 여기에는 내적인 요인보다도 외적인 요인이 우선적으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당시 식민지·반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이 배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코민테른(Comintern)의 절대적인 권위에 당시의 혁명가들은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다.

조선인의 도일을 촉진시킨 요소는 1930년대에도 상존했다. 그것은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내부적인 요소로는 가뭄과 수해를 들 수 있고, 외부적인 요소로는 중국인 노동력의 수입을 거론할 수 있다.

먼저 내부적인 요소를 보면, 1930년대의 경우도 농가 영농수지나 부채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가뭄과 수해 등 자연환경이 농가에 미치는 피해도 192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해와 가뭄은 1930년대에도 그치지 않았다. 1930년대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가뭄은 1932년과 1935년의 가뭄이었다. 1932년

가뭄은 이른 봄부터 시작되어 남부지방에 큰 타격을 주었다. 곡창지대로 수리시설이 잘 갖추어진 경상도·전라도에서도 수확의 절반이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수만 명의 이재민을 냈다. 조선총독부가 8월부터 구제를 시작했으나 경상남도의 경우에만 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sup>1)</sup>

1935년의 가뭄은 3월부터 5월까지 북부지방에, 6월부터 8월까지 남부지방에 피해를 주었다. 피해는 전국적이었으나 이 가운데 충청도와 전라도의 피해는 가장 심했다. ‘30년만의 가뭄’이라고 할 정도의 재해로 전라남도에서만 10만 호의 이재농가가 발생했고, 전라북도에서는 6만 7,000호가 이재농가로 기록되었다. 이 가뭄의 여파는 이듬해까지도 가시지 않아 1936년의 춘궁기까지 이어졌다.<sup>2)</sup> 이러한 가뭄은 농민의 이촌을 촉진함은 물론 조선인의 도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부적인 요소로는 중국노동자의 유입, 높은 실업률, 다양해진 직업구성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1930년대 조선인의 도일을 재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 12월에 중국인 이민노동자 사용인원을 제한하는 법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전국 각지에 직업소개소를 설치하며, 공민구제·토목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선인의 도일을 진정시킬 수는 없었다. 이상과 같은 요소는 1930년대 재일조선인의 증가를 초래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193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은 방향전환기, 1930년대 전기와 후기, 그리고 강제연행기로 감정적인 구분을 통해 운동의 양상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때 시대구분의 우선적인 고려의 축은 강제연행이 실시된 1939년이다.

### (1) 1930년대 일본지역 조선인의 상태

#### 가. 1930년대 전반

1930년대 일제의 도일정책은 조선인의 도일과 일본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의 도일정책은 일시귀선증명서제도와 도항소개장 발급제

1) 정혜경, 《일제하 在日한국인 민족운동의 연구－大阪지방을 중심으로－》(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9).

2) 《동아일보》, 1935년 8월 20·23일, 9월 7일, 11월 13일.

도로 대변된다.<sup>3)</sup>

1929년 8월에 내무성 경보국장이 각 부현에 내린 통첩 〈조선인노동자 증명에 관한 건〉을 통해, 조선인은 일시귀선증명서제도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일본이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일본 내에서 필요한 조선인 노동자의 이동을 막고, 필요없는 조선인을 귀국시키려는 의도에 기인한다. 즉 그 대상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공장 및 광산노동자를 일시귀선증명서제도로 묶어 두고, 그외 다른 직업의 일본거주 조선인이 일시 귀국한 경우에는 재도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일시귀선증명서제도를 통해 도일조선인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아울러 도일조선인의 귀환율에도 영향을 주어 조선인의 정주화를 강화하는 결과도 낳았다. 따라서 1930년대 중반부터 일본 당국의 정책은 거주 조선인의 일본인화에 집중되었다.

일시귀선증명서제도는 1930년 7월에 약간의 보완을 거친 후 1930년대 전반에 걸쳐 조선인의 도일을 통제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일시귀선증명서제도를 한층 강화한 1930년대 도일정책의 결정판은 1936년 5월에 경무국이 발송한 〈규제통첩〉이다.<sup>4)</sup> 이 통첩은 당시까지의 모든 도일관련 규제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한 것은 도일을 원하는 조선인은 본적지나 주소지 소재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도항소개장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과 일본거주 조선인의 피부양자 도일과 관련한 여러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이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피부양자가 도일을 할 경우에 일본에서 조회를 거친 후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도항소개장을 소지해야 했다. 이 도일규제를 통해 일본은 조선인의 도일을 더욱 철저하게 저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규제는 강제연행기에 들어서면서 전면적으로 도일정책이 바뀔 때까지 도일정책의 근간을 이루었고, 이렇게 도일한 조선인은 다음과 같다.

3) 자세한 내용은 정혜경, 앞의 책 참조.

4) 内務省 警保局, 〈特高警察通牒〉(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3), 20~23쪽.

〈표〉

1930년대 재일조선인의 추이

연 도	거주 조선인수		
	(1)	(2)	(3)
1930	298,091	419,009	419,009
1931	311,247*	437,519	427,275
1932	390,543	504,176	433,692
1933	456,217	573,896	500,637
1934	537,695	689,651	559,080
1935	625,678	720,818	615,869
1936	690,501	780,528	657,497
1937	735,689	822,214	693,138
1938	799,878	881,347	796,927

\* 《日本帝國統計年鑑》；朴在一, 《在日朝鮮人に關する綜合調査研究》(新紀元, 1957), 23~29쪽; 田村紀之, 〈內務省警報局調査による朝鮮人人口(1)〉(《經濟と經濟學》46, 1981), 58쪽.

#### 나. 1930년대 후반

일제시대 조선인은 강제연행되었다. 조선인은 강제연행되어 일본뿐만 아니라 만주·사할린·남양군도·남방지역으로 끌려 갔다. 선행연구에 기초해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는 연행방식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sup>5)</sup>

제1기는 1939년 9월부터 1942년 2월까지의 이른바 ‘모집’이라는 방식을 쓴 시기이다. 1939년 7월 28일자 내무·후생 양차관 명의의 통첩 〈조선인 노무자 내지(일본) 이주에 관한 건〉에 의해 탄광·광산·토건업 등을 하는 업자에게 조선인 집단연행이 허가되었다. 일본의 회사는 필요한 조선인 노동자수를 정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 모집책임자를 조선에 파견, 조선총독부가 모집할 지역을 배당해 주었다. 1939년 9월 중순부터 조선총독부가 할당할 지역으로 출장간 모집책임자는 집단모집을 자행했던 것이다.

제2기는 1942년 3월부터 1944년 8월까지로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요강〉에 의거하여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인 조선노무협회가 노동자의 알선, 모집

5) 강제연행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김인덕, 〈일본지역 강제연행 연구－연구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국민족운동사연구》17, 1997) 참조.

사업의 주체가 되었던 이른바 ‘관알선’ 시기이다. 이 시기에 노동자는 조선을 출발할 때부터 부대식으로 편성되었으며, 모집지역도 평안도와 함경도를 뺀 전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42년 경부터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연행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연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할당된 수의 7·8할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본래 연행대상이었던 노동자의 연령이 20세부터 35세까지를 지키지 않았고, 13~15세의 소년과 50세 이상이나 되는 사람까지, 즉 어린이로부터 늙은이까지 확대 연행해 갔다.

제3기는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 패전에 이르는 시기로 〈국민징용령〉이 적용되어 공공연히 무차별적으로 강제연행이 자행되었다. 이와 함께 학생과 여성노동자를 동원하는 일도 더욱 강화되어 8월에는 학도근로보국대와 여자정신대를 결성하여 조선인들을 전쟁에 강제동원했다.

이상의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이미 제1시기 모집단계에서부터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 및 그 하부조직이 강제동원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이 노예노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강제연행에 대한 총수치는 자료에 따라 일정치 않으나 일제가 스스로 만든 자료에 의거해도 일본으로 노무동원된 수는 150여 만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琴秉洞은 일본 당국이 계산한 조선동포의 일본 도항자 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실제 수보다 적다고 전제하고 각종 관청통계 중에서 각 연차별로 가장 높은 숫자를 골라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총연행자 수를 151만 9,142명으로 추정하기도 했다.<sup>6)</sup>

## (2)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의 방향전환

### 가. 지속적인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의 방향전환을 가져온 1929년에도 지역적·대중적 기반을 가진 재일조선인 민족해방단체는 지속적으로 투쟁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제2회 대회가 1929년 4월 열렸으며 ‘재건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무산자사·노동계급사가 활동했다.

6) 琴秉洞,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동포 강제연행과 학살의 실태에 대하여〉 상 (《月刊朝鮮資料》, 1974. 8).



특히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1929년 결집력을 회복하고 활동을 부흥시키며 다수의 노동자를 획득했다. 도쿄(東京)·카나가와(神奈川)·교토(京都)·오사카(大阪)의 각 조선인노동조합대회가 열렸고, 도쿄에서는 800명, 카나가와에서는 600명의 노동자가 모였다. 1928년 12월 3일 창립대회 이후 니이가타(新潟)현조선노동조합이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에 정식으로 가입했고 효고(兵庫)현에서도 1929년 4월 효고현조선노동조합이 성립되었다.

1929년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해체가 거론되는 시기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는데,<sup>7)</sup> 1929년 4월 조직된 ‘재건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의 플렉션에 의해 8월 시기까지 지도되었던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1928년의 계속선상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주요한 활동은 일상적인 투쟁과 함께 조직정비를 위한 대회, 국내 및 일본 혁명운동 지지투쟁과 교육활동을 통한 선전·선동사업·기념일 계기 투쟁·출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일본지역에서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과 함께 ‘재건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무산자사·‘일본출판부’가 해체기에 직면한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일본출판부’는 1932년 하반기에 일본 공산당 민족부 산하 조선인위원회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당재건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었다.

#### 나.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 단체의 해체논의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의 방향전환을 야기한 해체논의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 주도했고 내용에서는 일본공산당과 전협이 선도했다. 김두용·이의석·김호영 등은 1929년 9월부터 전협의 지도 아래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내에서 해체논의와 해체투쟁을 전개했다.

김두용은 프로핀테른(Profintern)의 식민지 노동자에 대한 인식에 따랐으며 일본지역의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일치한다고 전제하고 임금의 차별, 민족적 차별 등은 일본 노동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차별의 철폐가 일본 노동계급과 공동투쟁하여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

7) <1929年の共産主義運動>(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4), 32쪽.

고 당시 일본의 유일한 혁명적 노동단체로 일본공산당의 지도를 받던 전협에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 해소하여 합류할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해체를 주도한 사람들은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을 어느날 갑자기 전면 부정했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의 정서와 상태, 그리고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진영의 투쟁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논리였다.

국제노선이라는 후광을 입고 노동운동의 주류로 등장한 해체논의에 대해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카나가와조선노동조합의 이성백은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성백은 민족적 결집점의 상실과 운동의 대중성, 진정한 조선과 일본의 연대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오사카에서도 김문준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해체반대론자들은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 단지 해체주도 그룹의 세몰이에 밀려 파벌주의자들로 규정되었다.

해체 주도그룹은 전국대표자회의 이후 동경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신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해체와 그에 대신할 기관으로 전협조선인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해체는 곧바로 진행되지 않다가 1930년 1월 15일 ‘재조직 재건투쟁 주간’을 통해서야 전개되었다. 이렇게 전협조선인위원회는 지령·기관지·뉴스 등을 발행하여 가맹조합의 해체를 일상투쟁과 결합시켜 수행하고자 했다. 민족적인 차별을 감내해야 하던 재일조선인 노동자들은 해체를 지지할 수 없었다.

방향전환으로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을 몰고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해체논의는 일본지역 대중단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일본조선청년동맹·학우회도 해소를 결정했으며 이에 연동하여 신간회 동경지회도 자연 소멸되었다. 대중단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했던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은 일본공산당의 지도로 1931년 10월 해체를 결정했다. 그리고 12월 23일 《赤旗》를 통해 해체성명을 발표했던 것이다.

대중 자신의 자연생장적 창의를 의해 실천에 옮겨져 日鮮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협동은 광범한 계급전선의 현실적 사태로서 나타났다. ... 아직 일부 대중에는 우리 중국의 해체가 적의 압력에 의한 일시적 현상인 것처럼 인식하고 혹

은 지금 정치적 지도부대로서의 중국이 현존하는듯 환상을 가진 자가 없지 않다. 우리가 지금 해체성명을 하는 이유는 주로 여기에 있다. ... 단지 해체가 단순한 진영의 해결이 아니고 새로운 투쟁으로의 전향임을 말하면 족하다. 우리는 日鮮프롤레타리아의 모든 혁명적 조직 속에서 자기의 계급적 임무를 발견할 것이다(《赤旗》 61, 1931년 12월 23일).

결론적으로 말하여, 일본지역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의 방향전환을 추동한 프로핀테른의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전협으로 재편에 대한 지시는 계속적으로 발전한 재일조선인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시야에 넣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지역 단위 민족별 노동자의 독자성을 무시한 프로핀테른의 일방적인 시각은 자유노동자 중심의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운동을 약화시켰고, 공황기를 맞이하여 재일본 조선인 노동운동은 산업별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청년에 주목하여 노동조합 내로 노동청년을 흡수하는데 주력했다. 3·15 탄압과 일본총국에 대한 검거로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던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조직은 개진되었던 것이다.

### (3) 1930년대 전반 일본지역 민족해방운동

#### 가. 재일조선인 당재건운동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은 1929년 이후 변화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변화기의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은 일본 사회운동 속에서 이중적 임무를 띤 형태와 일본 사회운동과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민족주의적 경향을 노정하며 진행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일본 사회운동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전개된 경우에서는 국내의 당재건운동과 보조를 함께 하기도 했다.

재일조선인 당재건운동은 노동계급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노동계급사<sup>8)</sup>는 재일조선인 당재건 조직이다. 조직이 결성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1931년 10월 초 김치정·김두정은 검거선풍을 피해 황학노·함용석과 조선의 노농대중에 대한 계몽적 출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출판사를 결성하기로 하고 같은 달 10월 김치정·김두정·문용하·최두한·함용석·김봉철 등과

8) 자세한 내용은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국학자료원, 1996).

창립준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① 무산자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노동계급사’라는 출판사를 결성하고 《노동계급》을 발행한다. ② 노동계급사가 결성될 때까지 준비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임시기관으로 임시 상임위원회를 두고 그 책임자를 김치정, 위원을 나머지 출석자로 하며 각자 동지의 획득을 위해 노력한다. ③ 임시 서거국을 설치하여 책임자에 김치정, 국원에 김두정·한봉석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1932년 1월 중순에는 무산자사의 후신인 ‘노동예술사준비회’를 결성했다. 책임자 함용석 중심의 이 조직은 3월 중순 김두정·윤기청·박경호·김치정·문용하 등이 참가하여 ‘노동예술사준비회’는 위원회를 열어 ‘노동예술사’를 ‘노동계급사’로 개칭했다. 무산자사와 마찬가지로 표면상 출판사로 위장한 노동계급사는 별도로 편집부를 두었다.

‘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회 일본출판부’의 표면조직으로 활동한 노동계급사는 ‘조선공산당재건투쟁협의회 일본출판부’의 플랙션에 의해 지도되었다. 이 노동계급사의 투쟁목표는 제국의 패권에서 벗어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무산계급의 독재를 경과하여 공산제사회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조직은 동경에서 일시적으로 출판활동을 수행했다.

노동계급사는 각 기관이 1주 1회의 모임을 갖고 동지의 획득과 출판 준비, 재정 획득에 노력했다. 특히 취지대로 노동계급사는 출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첫째 김두정이 작성한 〈창립선언서〉를 《노동계급》 창간준비회에 발표했다. 둘째 《노동계급》 창간준비회를 1,000부 인쇄, 납본한 즉시 발매 금지당하지만 계획적으로 조선·일본지역의 배포망을 통해 발송·배포했다. 셋째 일문 선언서와 《노동계급》 임시호 200부를 인쇄하여 일본과 조선 각지에 배송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급사는 유봉섭이 입수한 〈朝鮮社會運動略史코스〉 50부를 인쇄하고 일문 선언서를 발행했다.

그런가 하면 1932년 9월 29일 김치정 등 20여 명은 회합에서 당재건 준비의 일부가 완료되었다면서 표면적으로 노동계급사를 해산한 것처럼 위장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의 오르그로 귀국하여 활동하기로 협의했고, 해체를 결의했다.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이 전환되어 가는 시기에 노동계급사의 존재에 대해 김두용·박석정 등은 반대했다. 이들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해체는

의 때 해체를 주도하던 사람들로 일본 사회운동단체에 존재의 올바름과 출판사임을 인지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제동맹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단체는 노동계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공산당은 오히려 노동계급사의 해체를 중용했고, 조직 내 간부 사이에서는 해체가 결의되었다.

#### 나. 일본사회운동과 재일조선인 운동

1930년대 재일조선인의 일본 사회운동 속의 활동을 설명할 때는 우선 일본공산당 조직 내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들어간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 가) 일본공산당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이 해산된 이후 재일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일본공산당에 가입했다. 일본공산당은 재일조선인 공산주의자를 지원하고 지도하기 위해 1931년 5월 이미 민족부를 설립했다. 민족부는 일본공산당의 중앙상임위원회 직속으로 설립되어 이와타 요시미치(岩田義道)와 마츠오 시케키(松尾茂樹)의 도움을 받은 카자마 조키치(風間丈吉)가 주도했다. 이 조직에 있어서 조선부문의 지도자는 김치정이었다.

1931년 조선공산당 일본총국과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를 해체하고 난 뒤, 일국일당주의에 따라 조직적으로는 일본공산당 세포에 속하여 일본공산당원의 당적을 갖게 되었다.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당 중앙과 지구당 조직의 말단 행동원으로 광범위하게 활동했는데, 도쿄·교토·오사카·고베(神戸) 등지와 조선인이 다수 거주한 아이치(愛知)·후쿠오카(福岡)·야마구치(山口)·히로시마(広島) 등을 비롯해 전 조선인 사회에서 투쟁을 선도했다.

##### 나) 전 협

전협은 일본 노동운동에 있어 일본공산당의 지도 아래 투쟁을 선도했던 조직이다. 그러나 전협은 재일조선인 노동자들이 다수 가맹했음에도 일본 혁명운동에 있어, 조선인들에게 지분을 주는데 망설였다.

1931년 전협은 일본 혁명운동에 조선인을 동원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으나, 조선인의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조선인의 민족의식이 계급의식 저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는 입장도 있었다. 그 결과 공장을 대상으로 한 조선인 조직화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나온 대책이 바로 민족부의 설치였다.<sup>9)</sup>

전협 중앙은 조선어부 설치와 관련하여 그 임무를 일본 노동시장에 몰려 있는 50만 이상의 재일조선인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조직화하여 일선프로레타리아의 강한 결합 아래 과감히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sup>10)</sup>

1932년 9월에 열린 제1회 중앙위원회는 결의에서 재일조선인 노동자가 본질적으로 가장 혁명적인 계급이라고 전제하고, 전협의 중대한 결합의 하나로 이들 중국·조선 및 대만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과의 결합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1933년 1월 전협 중앙상무위원회의 〈전국협의회 당면의 임무〉는 이 결의를 더욱 구체화했고, 제1회 중앙위원회는 ‘소연방 옹호·조선과 대만의 완전독립을 위한 투쟁, 천황제 폐지’를 행동강령으로 내걸고 특히 ‘제국주의전쟁반대·소동맹과 중국혁명의 옹호·대만과 조선의 독립운동지지 등과 결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협 내에서 조선인 조합원의 수는 증가했다. 1931년에 일본 전국의 전협 조합원은 1만 70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4,100명이 조선인이었다.

실제로 1930년대 이후 일본 노동운동에 있어 가장 전투적 투쟁은 전협이 주도했다. 여기에 산하 조직으로 조선인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조선인에 대한 특별조직이었다. 일부의 재일조선노동총동맹원은 조직적으로 해체하여 여기에 들어 갔고, 이후 전협 조선인위원회의 지령 아래 산업별 재조직 투쟁을 계속했다.

조선인 노동조합 해체를 주도한 조선인위원회는 지령·기관지·뉴스 등을 발행하여 가맹조합의 해체를 일상투쟁과 결합시켜서 해체활동을 전개했다. 1930년 4월이 되면 동경조선노동조합 산하 대부분의 조직과 교토·미에(三重)縣 조선노동조합은 해체되어 산업별조합으로 재편성되었다. 이후 전협 산

9) 정혜경, 앞의 책 참조.

10) 内務省 警保局, 〈社會運動の狀況〉(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2), 460쪽.

하의 산별 조직에 다수의 조선인이 들어갔다.

주목할 만한 조직으로는, 전협 산하 토목건축노동조합<sup>11)</sup>이 있다. 여기에는 다수의 조선인이 가입했는데,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 전협으로 해소하고 산업별로 조직되는 가운데 강력한 조직적 역량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일본토목건축노동조합이었다. 여기에는 재일조선인의 역할이 지대했는데, 조선인으로는 일본토목건축노동조합 본부에 강유홍·이성백·김종선·김수만·김기주·김수혁·함춘성이 각각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역 단위 주요 조직으로는 도쿄·오사카·카나가와·야마나시(山梨)·도야마(富山)지부 등이 있었다. 도쿄지부는 일본토목건축노동조합의 전국적 결성을 계기로 관동자유노동조합이 해소, 흡수되어 조직된 것으로 1931년 10월 말에는 조합원 700명의 조합이 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재일조선인이 500명이었다. 1932년 말에는 약 1,000명의 조합원 가운데 재일조선인이 930명에 달하여 지부의 주도권을 재일조선인이 장악하게 되었다.

카나가와지부는 1931년 4월에 일본토목건축노동조합 본부의 츠네타카(平安名常孝)가 카나가와현조선노동조합의 김일성·김범윤·정호용·김영준 등과 협의하여 결성했다. 초기에 카나가와현조선노동조합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해체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대세의 흐름에 순응하게 되었다. 1931년 10월 말에는 조합원수 810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재일조선인이 780명이었다. 이 지부는 그 어떤 조직 보다 전투적이었던 것으로 유명했다.

야마나시지부의 경우를 보면, 야마나시현 국도수리사업에 동원된 재일조선인 가운데 손해수·박상준 등은 도쿄市 직업소개소 실업등록자 재일조선인 300명을 모아 1931년 1월 야마나시토건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 조합은 박상준·강용달 등의 지도로 투쟁력이 강화되었고, 8월에는 일본토목건축노동조합 山梨지부로 개편되었던 것이다. 개편 후 야마나시지부는 조합원이 500명에 이르기도 했다.

한편 오사카지부에서는 이성국·강상호·이상길·구재봉·현호진·이병

1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

岩村登志夫, 《在日朝鮮人と日本勞働者階級》(校倉書房, 1972).

梁永厚, 《戰後大阪の朝鮮人運動》(未來社, 1994).

화·정암우 등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 가운데 정암우는 1934년 3월부터 일시 와해된 대판지부의 재건을 목표로 직업소개소 노동자에 대해서 격문을 살포하고 박애회의 구성원인 박수봉·최봉식 등을 적극 견인했다.

#### 다) 반제동맹

일본에서 반제운동이 현실운동에서 조직적인 내용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것은 1927년 5월 31일 조직된 대지비간섭동맹이라 하겠다. 이후 이 조직은 전쟁반대동맹으로 개조되었는데, 전쟁반대동맹은 1929년 11월 27일에 반제국주의민족독립지지동맹 일본지부로 되고 마침내 일본반제동맹<sup>12)</sup>이 되었다.

일본반제동맹은 중앙기관지로 《반제신문》·《반제뉴스》·《반제자료》·《반제팜플렛》을 발행했고, 1934년부터는 《반제신문》조선어판을 냈다. 특히 일본반제동맹은 재일조선인의 획득을 위해 이윤우를 《반제신문》조선어판 책임자로 선정했고, 재일조선인은 적극적으로 일본반제동맹에 가입해 활동하게 되었다.

재일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인만의 운동에 무력함을 느끼고 여기에 가입했으며, 재일조선인은 일본반제동맹이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민족·사회적 혁명을 재정·정치적으로 원조할 것이라는 내용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 이에 따라 재일조선인은 조직의 선두에 섰던 것이다. 결국 일본반제동맹 구성원의 60~70%는 재일조선인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반제동맹은 다음의 내용을 목표로 활동했다. ① 공산주의운동의 일부를 담당한다. ② 제국주의를 반대한다. ③ 소비에트·러시아를 방위한다. ④ 중국 및 인도혁명을 지지한다. 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를 해방시키는데 일조한다 등이었다.

특히 일본반제동맹 규약에서는 식민지 독립을 우선 강조했다. 즉 일본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조선지부, 기타 피압박민족의 정치적·사회적 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개인 및 조직을 단결시키고, 이와 함께 일본제국주의 내의 노동자·농민과 조선·대만·몽고 등 일본제국주의에 고생하는 식민지의 피압

1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社會運動の狀況〉(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4, 東京:原書房, 1967).

〈思想研究資料〉特輯71號(《朝鮮人の共產主義運動》, 東京:東洋文庫, 1973).



박 민중과 소비에트연방의 노동자·농민을 단결시키며, 조선·대만·몽고 등 식민지의 피압박 민중에 대한 민족적 억압, 차별대우에 맞서 해방을 위해 조선·대만·몽고 등의 민족·사회적 혁명을 제정·정치적으로 원조할 것이라고 했다. 즉 일본반제동맹은 제국주의 반대투쟁에 당면한 정치적 임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제국주의 타도를 목표로 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동투쟁을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1932년 일본반제동맹 중앙의 조직적인 투쟁으로 7월에 오사카지방위원회가 확립되었다. 오사카지방위원회는 8월에 동아통향조합에서, 9월 하순에는 泉南지방에서 조직원을 견인해 냈다. 또한 12월에는 동·서·남 및 농촌의 4지구에 약 400명의 재일조선인을 조직했다. 오사카지방위원회가 발간한 인쇄물로는 <8·1 반전투쟁의 국제적 캠페인에 대한 재대판 혁명적 조선노동자는 선두에서 쫓기하라>·<조선이 나온 반제국주의자 윤봉길의 총살에 대한 반대운동을 일으키라>·<神武天皇祭 및 반동의 시위운동을 분쇄하라> 등의 문건과 팜플렛 《반제신문》(오사카판) 등이 있었다.

라) 코 프

일찍이 재일조선인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은 1927년 3월에 재일유학생인 洪曉民·조중량·한식·고경흠·이북만 등이 제삼전선사를 조직한 이후 시작되었고, 이 조직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이하: 카프) 동경지부로 해소되었다. 이후 이 동경지부는 1929년 11월 해체되어 무산자사로 합류했다. 그런가 하면 무산자사에서 활동하다가 검거를 피한 김두용·박정석·이북만 등은 1931년 11월 카프 동경지부 구성원, 동경조선프롤레타리아 연극연구회원과 도쿄의 조선인 유학생들과 일본프롤레타리아문화연맹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을 적극적으로 지원, 지지하고 확대 강화를 위해 투쟁한다는 강령 아래 동지사를 결성했다. 동지사는 조직의 강화가 도모되고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에서 조선과 일본 예술의 공동전선수립의 원칙에 따라 조직을 해산하고 코프(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에 가입하기로 했다. 동지사는 해체선언을 발표했고, 그 구성원들은 일본프롤레타리아 연극동맹·미술가동맹·작가동맹·과학연구소·영화동맹·사진동맹·무신론자동맹 등에

가입했다.

코프 중앙협의회 서기국은 1932년 2월 조선협의회<sup>13)</sup> 설치를 결정했다. 이 조선협의회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했다. 첫째로 조선협의회는 재일조선인 노동자를 문화를 통하여 획득하여 전 동맹의 활동을 통일시킴을 그 목적으로 했고, 카프의 확대 강화에 따라서 조선프롤레타리아문화연맹의 확립을 위해 조선 내의 문화단체·클럽 원조를 두번째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셋째는 조선민족의 문화 연구에 그 목적을 두었다.

조선협의회는 코프 중앙협의회 산하의 청년·소년·부인·농민 등의 협의회와 동등한 지위를 갖았다. 여기에서는 이흥종·박영근·김용제·유정식·은무암·윤기청·정운상 등이 협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조선협의회는 당면 임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했다. 첫째 조직의 확립을 위해 각 동맹에서 유능한 일본인 동지를 끌어들이어 조선인만이 모여 생기는 섹트적 투쟁을 극복할 것, 둘째 각 동맹의 조선위원회를 확립하여 그 위원회는 조선인에 대한 활동에서 전 동맹적 해결방법을 취하고 그것을 조선협의회에 반영시킬 것, 셋째 각 동맹이 조선인 구성원의 획득에 노력할 것, 넷째 각 동맹의 활동을 강화하고 씨클활동을 전개하며 그곳에 뿌리를 박고 《우리동무》독자회를 만들 것, 그리고 다섯째로 《우리동무》편집국을 확립하고 여기에 일본인 편집위원을 가입시킬 것, 여섯째 통신원 획득에 힘쓰고 대중적 편집에 노력할 것, 일곱째로 각 동맹은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계몽적 선전선동적 출판물을 가질 것, 또한 대중적 계몽출판물에 적극적으로 조선인 노동자문제를 취급한 기사를 게재시킬 것, 마지막으로 《우리동무》편집국이 주동이 되어 코프 문고에 조선문제에 관한 적당한 팜플렛을 발행하는 계획을 세울 것 등이었다. 여기에서 거론한 《우리동무》는 김용제·김두용·이흥종 등에 의해 편집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기관지였다.

조선협의회는 반파시즘의 문화투쟁을 통해 재일조선인 노동자를 조직하고

13)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

〈思想研究資料〉特輯71號(《朝鮮人の共產主義運動》，東京：東洋文庫，1973).

고준석 지음, 김영철 옮김,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공동체, 1989).

田 駿, 《朝總聯研究》(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일본인 노동자에게 조선문제를 소개하여 관심을 고양시키며 조·일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제휴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 다. 독자적인 재일조선인 운동

이상과 같이 일본 사회운동 속에서 전개된 재일조선인의 민족해방운동과 함께 민족주의적 경향을 띠며 독자적인 형태로 1930년대에는 재일조선인의 투쟁도 존재했다.

#### 가) 동아통항조합

먼저 동아통항조합의 자주운항운동을 들 수 있다.<sup>14)</sup> 이것은 오사카 거주 濟州人이 중심이 되어 제주를 위해 수행한 독자적인 운동이었다.

1923년 12월 15일 제주와 오사카 사이에는 직항로가 개설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인들은 대거 일본으로 도항하기 시작했는데,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오사카항을 이용하는 도일자와 귀환자 가운데 제주인들이 부산·목포 등 제주도 이외 지역 13개 항구에서 왕래하는 자들보다 그 수가 10배 이상이 되었다. 또한 이들 제주인 도일자와 귀환자를 합하면 해마다 4만 명을 넘었다. 따라서 제주-오사카 항로는 일본인 선박업자들에게는 황금노선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항로는 직항로가 개설된 이래 朝鮮郵船과 尼崎汽船 등이 독점적으로 운항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1928년이 되자 이들 선박업자들은 배삯을 전격적으로 대폭 인상했다. 장사가 됨으로 이들은 보다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고, 일제도 이것을 묵인했던 것이다.

배삯인상은 제주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도민들은 같은 해 4월 자유 도향과 운임인하를 요구하는 대회를 열고, 배삯을 내리도록 선박회사에 요구했다. 당연히 그들은 배삯인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신간회 오사카지회는 제주도민 대회를 열고, 배삯인하와 승객에 대한 대우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를 했다. 그리고 실행위원을 선출하여 교섭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했다.

한편 오사카 제주인들의 배삯인하 움직임을 감지한 고순흥 등은 자주운항

14) 자세한 내용은 김인덕, <1920년대 후반 재일제주인의 민족해방운동>(<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참조.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같은 해 12월에 ‘제주항해조합’과 ‘기업동맹기선부’를 설립하고 제주—오사카 간의 독립항로를 개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1928년 12월 1일부터 입대한 第二北海丸을 첫 출항시켰다. 그러나 조직적 기반이 약했던 이 운동은 곧바로 경영난에 빠지고 말았다. 가맹원이 16명, 출자액 300원의 약소한 조직으로 두 선박 회사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이에 고순흠은 1929년 3월부터 鹿兒島郵船會社の 하객취급 대리점 운영권을 인수받아 운영했다.

고순흠과는 달리 제주도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소비조합을 만들어 조합이 직접 선박을 운영할 것을 계획한 사람은 오사카지역 제주인의 중심인물인 김문준이었다. 그는 1929년 4월 제주도민 유시간담회를 열고 제주통항조합준비회를 조직할 것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그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제주통항조합준비회의 일에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김문준의 뒤를 이은 것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에서 활동하다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 전협으로의 해소 후 전협에 가맹치 않았던 문창래·김달준·현석현·현길홍·김동인·성자선 등이었다. 그들은 “우리는 우리 배로”라는 구호를 걸고 조합 결성을 위해 활동하며, 《제주동아통항조합뉴스》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오사카의 제주인 4,500명을 조직한 준비회는 1930년 4월 21일에 오사카의 中之島公會堂에서 421명의 대의원과 2,000여 명의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조합명을 개칭하고, 강령을 내걸었다.<sup>15)</sup> 이 동아통항조합은 창립대회 후 개인가입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120개 지구가 참가해 조합원도 10,000명에 달하게 되었다.

#### 나) 조선신문사

1934년 12월 16일 이운수·박태을·김천해·전윤필 등은 합법적인 투쟁을 위해 조선신문사<sup>16)</sup>를 조직했다. 고려청년회 일본부에서 활동했던 이운수

15) 대회는 조합의 명칭을 ‘제주통항조합’에서 ‘동아통항조합’으로 바꿨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강령을 내걸었다. ① 경영상의 기술과 방침의 정제, ② 민주적 자치적 운영, ③ 도항의 자유 획득, ④ 무산계급 운동의 지지.

16) 자세한 내용은 田 駿, 앞의 책 참조.

는 1934년 5월 출옥해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일조선인을 문화적으로 계몽하고, 민족·계급적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으며, 코민테른 7차대회의 테제를 접하면서 소신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그는 박태을과 논의하여 재일조선인 일반을 대중으로 하는 합법적 신문의 발간을 협의하고 김천해·전윤필과 1934년 12월 16일 조선신문사를 창립했던 것이다. 사장 겸 편집인쇄인은 이운수였고, 매월 2회 출간하기로 했다.

조선신문사의 활동은 크게 조직의 확대와 신문의 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확대에 대한 내용을 보면, 1936년 1월 하순에 권오경·김주담·송인돌·이창린·이광찬·송성철·박서국 등의 7명을 사원으로 획득하고 같은해 2월 10일 제1회 사원전체회의를 열어 이운수·권오경·송성철·이광찬·박태을·김주담·박서국으로 진영을 편성했다. 1936년 2월 중순부터 5월에는 김두용·이북만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

같은해 7월에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주석회사로 조선신문사를 확대하기 위해 이운수는 도쿄·요코하마(橫濱)지방의 친일단체나 학생회 등에 들어가 독자 획득에 노력했다. 또한 박태을·송성철은 北陸지방의 재일조선인 기숙사를 순회하여 자금 및 지국 설치에 진력했다. 김천해도 카나가와·시즈오카(静岡)·나가노(長野)·아이치·케이힌(京阪)지방을 다니면서 출옥환영회 및 위안회 등을 지방의 재일조선인 혁명운동세력들이 개최하도록 지도하여 이 자리에서 조선신문사의 목적을 설명했다. 전윤필도 나가노·아이치·石川·富山 등지에서 지국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

《조선신문》에서는 이북만의 〈표리부동한 越境문제의 진상〉·〈외공고문제에 대한 스탈린씨의 견해〉·〈상승 중국공산군 三東省 태반 점령〉·〈불란서 인민전선 대승리〉 등의 논문이 실렸고, 조선어 폐지 및 공학문제, 한일합방문제, 내선인 차별문제, 내지 도일문제, 주택문제, 실업문제 등을 취급했다. 《조선신문》은 1935년 12월 31일자로 창간호가 나와 약 3백 부가 배포되었는데 나머지 상당수는 차압당했다. 《조선신문》 제1호에서 제7호까지는 매호 약 5,000부를 인쇄했고, 발매금지를 당한 제4호를 제외하고는 각각 도쿄지방 지국에 약 1,500부, 지방 지국에 약 1,000부, 동경지방 각 단체에 약 2,000부, 제

일조선인 유지들에게 약 570부, 국내에 약 640부 등이 배포되었다. 조선신문사의 활동은 1936년 7월 말 구성원이 검거되어 종결되었다.

#### 다) 민중시보사

조선신문사와 함께 민족주의적 경향의 투쟁조직으로는 민중시보사를 들 수 있다.<sup>17)</sup> 《民衆時報》는 1935년 6월 창간되어 김문준·이신형이 주간을 맡았고, 김경중·정재영·김달환·박봉주 등이 구성원으로 활동했는데, 조선 민중의 생활개선과 문화적 향상을 촉진하는 것을 강령으로 내걸었다. 특히 제일조선인의 생활권 옹호를 위해 건강상담·법률상담·생활상의 지침을 널리 선동했고, 의료위생·법률상담·공동구입 등은 같은 시기의 소비조합·친목회 등의 활동을 지면으로 옮겨 놓은 것과 같았다.

이렇게 민중시보사 조직이 생활권 투쟁에 힘을 쏟았던 것은 공산주의운동의 태도 변화, 그리고 패배, 생활난과 배외주의의 강화, 동화정책의 본격화를 배경으로 했다. 마침내 1936년 9월 21일 제27호로 《민중시보》는 폐간당하고 말았다.

#### 라) 조선무산자진료소

조선무산자진료소는 질병 발생이 쉬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오사카 거주 조선인들이 언어가 통하는 조선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선인 스스로가 만든 일종의 의료조합이었다.

1930년 1월 초에 오사카의대 출신의 정구충 등이 중심이 되어 실비진료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30여 명으로 후원을 조직했다. 1월 27일 동아통향조합 준비회 사무소에서 열린 후원회 창립총회는 동아통향조합준비회 간부 현길홍의 사회로 열렸는데, 선출된 임원 가운데에는 동아통향조합준비회 간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사무소는 《조선일보》 오사카 총판매소에 두었다. 조선무산자진료소는 정구충과 閔瓚鎬 등 의사와 조선인 간호사를 갖추고 2월

17) 《民衆時報》의 논조와 당시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外村大, 〈1930年代中期の在日朝鮮人運動—京阪神地域・《民衆時報》を中心に—〉(《朝鮮史研究會論文集》28, 1991). 外村大는 여기에서 1930년대 ‘민족적 생활권 투쟁’으로 제일조선인의 소비조합운동·교육운동·차가인운동·대판조선무산자진료소 설립·동아통향조합의 운동을 넣고 있다.

에 개업했는데, 개업 당일부터 6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sup>18)</sup>

조선무산자진료소는 1931년 2월 2일에 설립 1주년을 맞이하여 정구충이 진료소를 조선인 무산자대중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실행기관을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오사카조선인무산자진료소로 개칭되었다.<sup>19)</sup> 무산자 진료소는 진료확장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6월에 신재용을 국내에 파견하는 등 진료소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그 해 8월 21일에 열린 실행위원회 임시대회에서는 조선인이 다수 밀집한 서성구와 동성구에 분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울러 규약수정안이 검토되었는데, 이를 둘러싸고 의견의 대립이 두드러졌다. 이후 진료소는 일제의 폐쇄조치를 받았다.

#### 마) 소비조합

소비조합운동은 일본 내 여러 지역에서 전개되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이 오사카지역의 활동이다. 大阪消費組合 東大阪支部는 1933년 10월 1일에 결성되었다. 조합은 1936년 1월 13일에 유지위원회를 결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는데, 유지위원회는 회원의 수를 늘리고 소비조합 유지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이며, 유지회원의 역할을 통해 일반 민중의 사회적 신념을 집중시키는 데에도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다.

東大阪消費組合의 적극적인 활동은 당국의 주목을 받아 1936년 1월 16일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정기총회가 금지되기도 했다.<sup>20)</sup> 소비조합이 일반 민중의 사회적 신념을 집중하고자 활동을 개시한다는 점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것이다.

#### 바) 교육운동

일본 내에 조선인이 정주하면서 자녀교육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은 교육기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아동과 무학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운동의 근거지로 삼았다.

18) 《조선일보》, 1930년 1월 25일, 2월 1·21일 및 1931년 3월 5일.

19) 《조선일보》, 1931년 3월 5일.

20) 《民衆時報》(13), 1936년 1월 1일 · 《民衆時報》(15), 1936년 1월 21일.

오사카에 설립된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1930년대 초 關西共鳴학원이 있었다. 물론 이밖에도 조선촌을 중심으로 야학이 설립되었으나, 공명학원은 몇몇 조선촌이 연합하여 설립한 학교로서 조선인의 기금으로 교사를 마련하여 150명의 아동을 교육했다. 그 후 이 학원은 유지회의 후원 아래 오사카거주 조선인의 자랑이 되었는데, 1932년 2월 1일 당국에 의해 학생 3인이 검속된 후 7월 25일에는 폐쇄되었다.

오성무·김재수·방남희·정순제 등의 교사들은 노동사전,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관련 서적을 구입하여 사상연구에 진력하고 아동에게 계급의식을 침투시켰다. 1932년 5월 중순 경에는 방남희와 김재수가 일본프롤레타리아음악가연맹 구성원 3명을 초청하여 연주회를 개최했으며, 러시아혁명을 가르치거나 계급의식이 있는 영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8월 1일 반전데이를 맞아 학생 2명에게 격문살포 행동대원의 역할을 맡기도 했다.<sup>21)</sup>

비록 조선인학교의 교육방향과 교육내용이 학생들을 직접적인 민족운동가로 양성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으나, 조선어와 조선역사를 가르침으로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했다.

#### 사) 생활조합운동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는 각종 생활조합이 결성되었다. 특히 오사카에는 소비조합을 비롯해 생활조합이 활성화되었다. 이들 조합은 조선인의 생활권을 옹호하고 획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결성되었으나 조선인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운동의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방해도 극심했다.

소비조합의 경우는 대부분 공동구매를 주요한 기능으로 담당했으나 그것만으로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오사카소비조합 동부지부는 일본소비조합연맹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1935년 7월 1일에 소비조합운동의 국제기념일을 맞아 기념운동을 준비했으나 일제의 금지로 무산되었다. 이에 조합은 좌담회를 열기로 하여 1천여 명의 회원이 모였으나, 이것도 역시 해산당했다.

21) 内務省 警保局, 〈社會運動ノ狀況〉(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2), 566쪽.



이와 같이 소비조합이나 생활조합은 그 본연의 기능 외에도 조합원들을 규합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반일운동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대적 사명감을 달성하고자 진력했다.

#### 아) 차가운동

1930년대에 일어난 차가쟁의에 대한 통계는 일반적으로 1933년과 1937년 정도만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택분쟁이 192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여 노동조합과 借家組合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볼 때 1930년대에도 주택분쟁의 사례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2)</sup>

〈표〉 1930년대 조선인 주택분쟁 상황

	요구관철		거 절		요구철회		자연소멸		타 협		기 타		총 건 수	
	주택	토지	주택	토지	주택	토지	주택	토지	주택	토지	주택	토지	주택	토지
1933	984	18	113	21	13	7	734	3	—	—	622	14	3999	87
1937	6	1	18	—	1	—	1	—	31	5	8	9	65	15

1933년과 1937년의 분쟁상황은 비교하기에 적당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분쟁의 수가 현격히 줄어든다는 점, 총 건수에 비해 자연소멸이나 타협의 수가 많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분쟁의 수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일제의 탄압이 심했음을 의미한다. 1933년에는 자연소멸 건수가 많은 데 비해 1937년에는 타협이 많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1933년의 경우만을 보면, 거절당한 건수가 3%에 불과하여, 24.6%의 요구관철의 비율과 대비된다.

한편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브로커에 의한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한다. 《민중시보》에서도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나 사기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 등을 자주 소개하였다. 또한 1930년대 중반부터는 주택분쟁에 대한 일제의 대응도 달라져서 교섭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무력으로 주택을 철거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했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차가조합이

22) 오사카지역 차가쟁의의 내용은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2 참조.

나 차가동맹을 통해 대응하는 예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차가조합은 차가인 조합통일동맹 내선통제부와 오사카일반차가인동맹 등 1930년대 초반에 결성 되었으나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자) 기타—선거투쟁과 의혈투쟁—

선거투쟁은 1930년대의 경우, 1933년부터 아이치현 町會의원선거에서 공산주의계 조선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나고야(名古屋) 등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지방선거의 경우에 선거운동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통해 민중의 대표를 선출시키는 운동이었다. 이들은 〈노동자 농민의 町會로〉 등의 격문을 살포하면서 운동을 전개했다. 중앙에서의 선거투쟁은 기권운동이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한편 1930년대의 의혈투쟁으로 주목되는 것은 李奉昌의거이다.<sup>23)</sup> 이봉창은 1932년 1월 8일 천황이 관병식장에서 櫻田門 밖의 경시청 청사 앞으로 지날 때 수류탄을 던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하고, 체포되어 9월에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8일 순국했다.

#### (4) 1930년대 후반·40년대 일본지역 민족해방운동

1930년대 후반, 1940년대 제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은 강제연행에 대한 저항과 청년학생의 단체 조직을 통한 반일투쟁으로 대분할 수 있다.

강제연행에 의해 끌려간 조선인은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에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1944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불과 10일 만에 조선 전토에서 “징용령을 내렸으나 출두하지 않는 자”가 2만 3,166명에 달했다. 탄압과 저항에 대해 태업·파업·폭동 등과 노동기피를 통해 저항했다. 탄광을 비롯한 일본의 산업현장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저항행위를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본인 감독자 및 노동자의 민족적 차별과 인격적 모욕이었다. 실제로 조선인 노동자들의 저항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저항이 많았다.<sup>24)</sup>

23) 이현희, 《이봉창의사의 항일투쟁》(국학자료원, 1997).

24) 강만길, 〈침략전쟁기 일본에 강제동원된 조선노동자의 저항〉(《한국사학보》 2,

그런가 하면 1930~1940년대 유학생의 운동을 보면, 1936년 메이지大學의 조선유학생연구회사건, 나고야의 민족부흥회사건, 교토의 평안그룹사건들이 있었다. 아울러 1940년대의 경우도 부단히 소그룹별 운동은 지속되는데, 사고조선청년막스주의연구회, 와세다대학(早稻田大)유학생그룹, 1940년 나고야의 민족주의그룹사건, 1943년의 도쿄의 우리독립운동그룹사건, 이밖에도 오사와 고베 등지에서 계림동지회·조선인민족주의사건·전진회사건·민족주의집단총성회사건·조선학생민족주의집단사건·조선인직공민족주의집단사건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조직의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사고조선청년막스주의연구회

1941년 2월 조옥래·박응포·최동명·金城基億·金山和珉 등은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기 위해 사고조선청년막스주의연구회<sup>25)</sup>를 조직했다.

조직의 리더 박응포는 공산주의 관련서적을 탐독한 후 자본주의 아래에서의 빈부의 격차가 보다 심화될 것과 노동자와 농민은 자본가의 착취의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임을 인식했다. 이와 함께 조선의 노동자·농민의 경우는 일본 내의 노동자·농민의 처지보다 열악하다고 전제하고 조선동포의 구제의 길은 공산주의사회에 의한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면서 적극적인 선전·선동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가운데 1941년 2월 조옥래가 박응포에게 마르크스주의 독서연구회의 조직을 제안하고 여기에 최동명·金城基億·金山和珉이 가담하여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富山高등학교의 최정률과 富山약학전문학교 노성완 등과 연계를 갖기도 했다.

박응포가 주도한 이 조직은 약칭을 C.Y.M.S(조선청년마르크스주의연구회)로 하고 조선의 사회혁명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주 1회 토요일 독서회, 조선출신 유학생으로 전원의 승인 아래 가입, 월 1원의 회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회원은 각자의 번호를 가졌다. 1에서 5호까지의 번호는 박응포·최동명·조옥래·김산화기·김성기억 순이었다.

1997), 262~263쪽.

25)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4-2.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4(共產主義運動 編).

아울러 본부를 카나자와(金澤)에 두고 도쿄로 조직원이 이동할 때는 도쿄에도 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독서회의 경우 교재를 河上肇의 《近世經濟思想史》를 사용했는데 전술한 조직원 5명 이외에 장차 조용달·原山薰·泉昇煥 등을 참가시키기로 하고 매주 토요일 최동명의 하숙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일상적인 유학생들의 모임인 독서회·환송회·환영회 등을 적극적인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창씨개명의 문제·언어의 문제·의무교육제의 문제·납세의 문제·지원병제도의 문제 등과 사회주의적 방식의 독립의 길, 민족적 차별이 없는 러시아의 상황, 중일전쟁의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나. 와세다대학유학생그룹

1930년대 후반 와세다大學 내의 우리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적 유학생그룹으로 와세다대학유학생그룹<sup>26)</sup>이 조직되었다.

와세다대학에는 와세다대학우리동창회가 있어 학생운동의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조직은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띠며 유지되어 오다가 1937년 고준석을 대표로 송군찬·전덕연·김경희·이성우 등이 주도했는데, 이후 와세다대학우리동창회는 조선공산당과 일본공산당 재건의 한 부대로 그 역할을 수행했다.

와세다대학 유학생들의 활동은 도쿄를 비롯해 오사카에서도 전개되는데, 고준석은 조직의 확대를 위해 1938년 1월 오사카에서 홍문중·김인택 등과 모임을 갖고 상호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또한 고준석·송군찬·황병인 등은 와세다대학 社會事情研究會에 가입하여 일본인 학생들과도 이론적 교류를 갖으며 활동을 전개했고, 특히 고준석은 이 모임의 간사를 맡아 회를 선도했다.

와세다대학 유학생들의 활동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공산당 재건에 관

26)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4(共產主義運動 編).

早稻田大學우리同窓會, 《韓國留學生運動史—早稻田大學우리同窓會70年史—》, (1976).

계한 것이었다. 1938년 5월부터 고준석·송군찬·황병인·박천석·황봉노 등은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비합법적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고 이청원과 연락하며 문건을 작성했다.

당시 이들이 작성한 문건은 〈조선혁명론〉·〈조선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운동의 과거와 미래〉·〈조선사회운동약사와 금후의 전망〉 등이었는데, 이 문건들은 독서회의 교과서가 되어 조선혁명의 이론적 지침서의 역할을 했다.

이상과 같은 이들 혁명적 전위들의 활동은 도쿄 내 다양한 유학생 조직을 획득했는데, 法政大學에서는 박노섭·박제섭·윤수동·윤감모·송군섭·양정봉 등을 결집시켜 조선문제연구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 다. 계림동지회

1940년대 개별 단체로 오사카에서 조직된 제일조선인 민족운동단체인 鷄林同志會<sup>27)</su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련의 회합에서 김봉각·김병목·강금중·고봉조·한만숙 등은 민족의식을 서로 확인하고, 5월 초 金城製作所에서 “조선청년이 나갈 길은 오직 하나, 민족의 해방을 위해 헌신하는데 있을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독서회를 갖고 상호수양하며 실력의 양양에 노력하기로 하여 흥아연구회를 조직했다. 이 조직은 수차례 회합하여 조선독립의 이론과 실체에 관해 연구를 계속했는데, 국내외 정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사회주의 이론 학습을 즐기치게 수행했다. 특히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사회주의 이론의 교과서격인 河上肇의 《貧乏物語》를 읽고 토론하기도 했다. 흥아연구회는 1940년 5월 중순에 이르러 일본 내의 정세가 점차 쇠퇴한다는 인식 아래 김봉각의 주창하에 발전적으로 해소되었고, 같은해 5월 26일 새롭게 비밀결사로 조직되었다. 이것이 계림동지회였다. 이렇게 계림동지회원은 투쟁 속에서 단련되어 새롭게 조직을 결성했던 것이다.

계림동지회는 5월 26일 모임에서 조직의 결성과 함께 다음의 행동방침을 결의했다. ① 현하 긴박한 국제정세에 즈음하여 조선민족의 해방을 위해 조

27) 平林久枝, 〈鷄林同志會のこと－戦時下の抵抗の一例－〉(《在日朝鮮人史研究》7, 1980).

金奉角 編著, 〈鷄林同志會〉(《獨立運動과 三・一獨立運動紀念塔建立》, 1992).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8・15解放前－》(三一書房, 1979).

선 독립을 탈환하도록 만전을 다할 것, ② 조선독립운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지의 공고한 결합을 급무로 함. 동지의 결집에는 우선 인텔리겐차를 획득해서 지도체를 확립 강화할 것, ③ 마르크스주의·삼민주의를 중심과제로 연구할 것, ④ 당면 日本大學·오사카專門學校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학내 구성원의 획득에 매진할 것.

계림동지회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강령·규약 등을 작성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주요 활동의 내용을 보면, 첫째 조선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전개했다. 둘째로 조직강화를 도모했다. 특히 조직위원회에서 잡지회람소를 개설하여 동지의 획득에 노력하기로 하고 김봉각이 그 책임을 맡기로 했다. 이후 김봉각은 자신의 집에 흥아잡지회람소를 설치하여 독자망의 확충을 도모하여 십수 명의 회원을 획득했다.

계림동지회는 민족해방운동이 침체되었던 전시하에도 불굴의 의지를 갖고 이론 학습과 조직적 강화를 통해 제국주의 일본에 끝까지 반대했던 것이다.

방향전환을 통해 새로운 지형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한 1930년대 이후의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일본 사회운동으로부터 독자성을 갖기도 했다. 지역사회의 운동과 개별적인 형태로 전개된 193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의 민족해방운동은 일본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다. 특히 만주나 중국관내지역의 경우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 이 시기의 민족해방운동의 경우 민족문제와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한 문제가 다른 어느 시기보다 투쟁의 주요한 계기가 된 점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1930년대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은 1920년대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운동의 지형이 달라졌고, 이에 대응하는 조선인의 태도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강화되는 일제의 탄압 아래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시위를 통해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조선인들은 인식했고, 장기적인 전망을 갖게 되었다.

1930년대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의 특징을 들면, 첫째 운동지형의 변화, 둘째 운동양상의 변화, 셋째 독자적인 지역운동의 존재, 넷째 투쟁의 단절성,

28) 반전운동의 내용이나 강제연행시기의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일천하기에 보다 연구가 진전되어야 성격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중추수주의적인 경향성 등이다. 이와 함께 부분적이지만 조·일연대가 고민되고, 부단히 현실투쟁에서 그것이 실현되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민족해방운동은 한국민족운동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반제적인 성격을 띠며, 동시에 지역적 특수성에 기초하여 독자성을 갖고 전개된 반일투쟁이었다.

〈金仁德〉